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1029-10

#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

2022. 12.



#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2.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효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보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연구 목적

-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산정함

#### □ 연구의 필요성

- 첫째,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 둘째, 지역별·영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성평등 촉진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 제고

###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 방법

#### □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③항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분야와 지표가 구성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구성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여야 함.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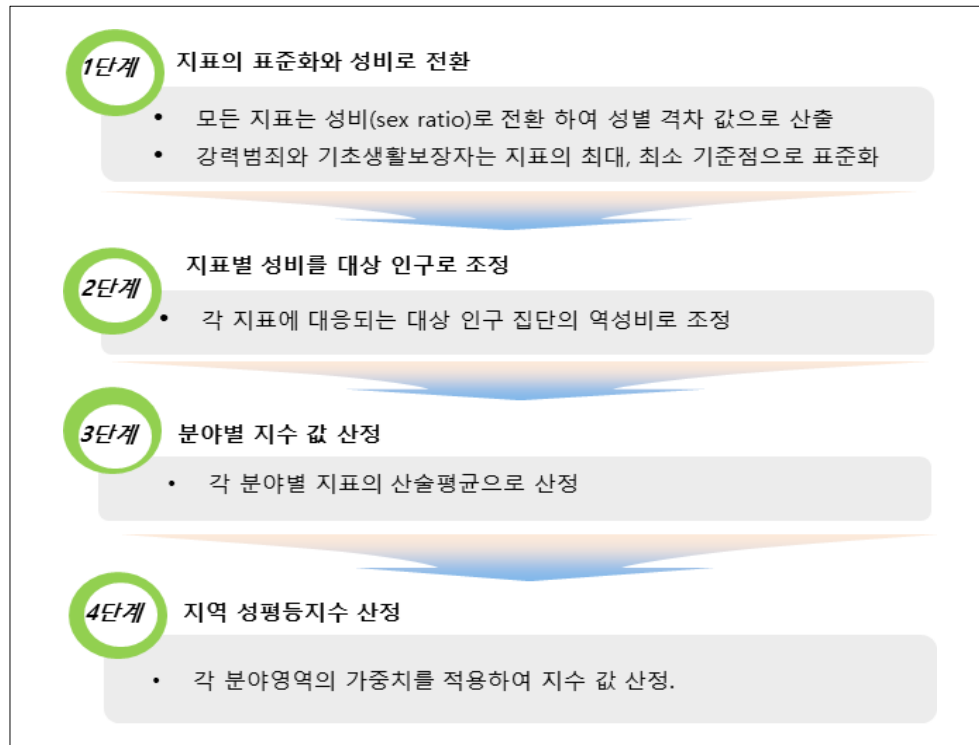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 (이하 생략)

〈지역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표〉

정책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 지역성평등지수산정 방법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의 4단계를 거쳐 산정됨



#### □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산정됨

-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 격차(sex gap)를 측정함
-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는 투입(input)보다 성과(outcome)를 측정함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수준 개선보다 성 격차 해소 시 개선 효과가 더 크도록 설계함.

### 3.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과 개선방향

#### □ 지역별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 2022년도 지역성평등지수는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계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출되었으며, 지역성평등지수는 점수에 대한 순위를 범주화하여 보여줌. 지수의 점수를 순위에 따라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 내 시·도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제시함. 또한 각 범주는 2022년 지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범주의 성평등 점수 최대와 최소치를 함께 제시함
-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77.84점~79.00점)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남. 대전광역시는 2016년 이래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8년(중상위권)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함. 부산광역시 또한 2017년(중상위권)을 제외하면 2016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상위권에 진입한 이후 이를 유지함.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오르내렸으나, 2020년 상위권에 재진입하면서 2021년까지 상위권에 위치해 있음.
- 중상위권 지역은 76.72점~77.54점의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지역별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중상위권으로 분류됨. 경기도는 2018년 중상위권에 진입한 후 2021년까지 중상위권을 유지함. 광주광역시는 2019년 상위권으로 진입하지만, 2020년 중하위권으로 떨어진 후 2021년까지 이를 유지함. 대구광역시 또한 2017년~2020년 동안 상위권으로 구분되었으나, 2021년 중상위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울산광역시는 2016년까지 하위권을 유지하다 2017년 중하위 지역으로 진입한 뒤 2018년 중상위까지 상승한 후, 2019년 중하위 지역으로 하락하지만 2020년 중상위권으로 다시 진입하여 2021년까지 유지함
- 중하위권 지역(76.04점~76.69점)은 강원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로 나타남. 강원도는 2017년 중상위권에서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후 2021년까지 중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됨. 경상남도는 2020년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상승한 후 2021년까지 유지함. 인천광역시는 2016년 이래 중하위권과 중상위권을 등락하는 특성을 보이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중하위권으로 구분됨. 충청북도는 2016년 이래 줄곧 중하위권에 머무르다 2018년 중상위권으로 진입하며, 이후 2020년 하위권까지 하락하나 2021년 중하위권으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 하위권(73.74점~75.13점) 지역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임.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2016년 이래 계속해서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2016년 중하위권에서 2017년 하위권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반면 전라북도는 2016년 상위권으로 상승하여 2017년까지 유지하다가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뒤 2020년과 2021년에는 하위권으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기준)〉

등 급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평등 상위지역	광주	대구	대구	광주	대구	대전
	대전	대전	부산	대구	대전	부산
	부산	전북	서울	대전	부산	서울
	전북	제주	제주	부산	서울	세종
	-	-	-	제주	제주	제주
성평등 중상위 지역	강원	광주	경기	경기	광주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서울	경기	경기
	서울	서울	울산	세종	세종	대구
	제주	인천	충북	인천	울산	울산
성평등 중하위 지역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경남
	전남	울산	인천	전북	인천	인천
	충북	충북	전북	충북	전북	충북
성평등 하위지역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전남	전남
	울산	전남	전남	전남	충북	전북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주: 1) 각 등급 안의 시·도 순서는 가나다순임. 2)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2021년 기준 성평등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임. 세종특별자치도는 2020년 성평등 등급이 중상위권이었으나 2021년 상위권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고, 충청북도의 경우 2020년 하위권에서 2021년 중하위권으로 상승함. 반면에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는 전년 대비 성평등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대구광역시는 2017년부터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2021년 측정결과 중상위권으로 한 단계 하락하였고, 전라북도는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성평등 순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외 13개 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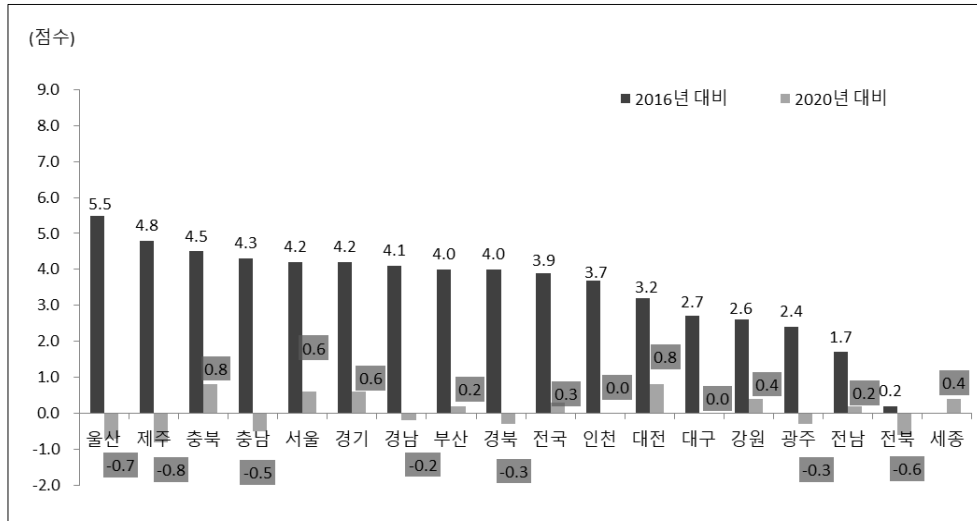
2020년 성평등 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나타남

〈2020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 등급변화〉

구분	지역
성평등 등급 상승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성평등 등급 유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등급 하락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 2016년과 비교하여 울산광역시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으로 나타남. 2016년 대비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은 5.5점으로 전국 평균 3.9점보다 1.6점 더 높음. 다음으로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2016년 대비 4.8점 개선되었고, 충청북도(4.5점), 충청남도(4.3점), 서울특별시(4.2점), 경기도(4.2점), 경상남도(4.1점), 부산광역시(4.0점), 경상북도(4.0점)에서 4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임. 반면 2016년 대비 대구광역시(2.7점), 강원도(2.6점), 광주광역시(2.4점), 전라남도(1.7점), 전라북도(0.2점) 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개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시도 중 울산광역시는 2016년 하위권 지역에서 2021년 중상위권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중상위권에서 2021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함. 하지만 전라북도는 2016년 상위권에서 2021년 하위권으로 하락하며, 전라남도의 경우 2016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과의 비교에서 성평등 수준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가 0.8점으로 가장 많이 개선되고 서울특별시(0.6점), 경기도(0.6점), 강원도(0.4점), 세종특별자치시(0.4점) 등에서 전국 평균(0.3점) 이상의 개선을 보임. 하지만 전라남도(0.2점)와 부산광역시(0.2점), 인천광역시(0.0점), 대구광역시(0.0점)는 2020년 대비 성평등 개선이 매우 낮거나 없었고, 경상남도(-0.2점), 경상북도(-0.3점), 광주광역시(-0.3점), 충청남도(-0.5점), 전라북도(-0.6점), 울산광역시(-0.7점), 제주특별자치도(-0.8점)는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2020년 대비 성평등 등급이 대구광역시는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전라북도는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한 단계씩 낮아지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는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에 힘입어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함

###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



#### □ 분야별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 ○ 경제활동 분야

-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79.7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78.0점), 강원도(77.7점), 전라북도(75.8점), 대전광역시(75.4점), 부산광역시(75.2점), 충청북도(75.0점)에서 성평등 수준이 75점 이상으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해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울산광역시(8.2점)이었고 서울특별시(5.6점), 경상남도(5.5점), 인천광역시(5.4점), 부산광역시(5.2점) 등의 지역에서 5점 이상 개선됨.

##### ○ 의사결정 분야

- 2021년 기준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시도는 대전광역시임. 대전광역시가 50.7점으로 유일하게 50점 이상이며, 울산광역시(47.8점), 광주광역시(47.6점), 서울특별시(45.7점), 대구광역시(44.6점), 부산광역시(44.5점), 인천광역시(43.7점) 등 특·광역시에서 1위에서 7위까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이 분야에서 전라남도(31.6점), 경상북도(32.2점), 세종특별자치도(34.1점), 강원도(35.3점) 등의 지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2016년과 비교해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임. 2016년 대비 경상남도는 17.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이며, 인천광역시

(15.3점), 부산광역시(14.6점), 충청북도(14.0점), 제주특별자치도(14.0점) 등에서 14점 이상의 개선을 보임. 이와 같은 성평등 개선 수준으로 인해 경상남도는 2016년 13위에서 2021년 9위로 상승하며, 동 기간 인천광역시는 9위에서 7위로, 충청북도는 12위에서 11위로 순위 상승을 보임

○ 교육·직업훈련 분야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8개 분야 중에서도 보건 다음으로 높은 영역임. 이 분야의 성평등 상위권은 서울특별시(97.3점), 세종특별자치시(97.2점), 경기도(96.9점), 인천광역시(96.8점), 울산광역시(96.7점)임.
- 2016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된 지역은 전라남도(2.1점)와 제주특별자치도(2.1점)이며, 다음으로 전라북도(1.5점), 경상북도(1.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년 대비 성평등 개선은 대체로 최대 0.4점에서 최소 0.1점 사이로 이루어짐.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0.4점 개선이 일어났고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0.1점 개선을 보이며, 이외 지역은 0.2점과 0.3점의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복지 분야

- 복지 분야는 모든 시도에서 8개의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분야임. 2021년 기준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6.0점으로 가장 높으며, 제주특별자치도(92.8점), 서울특별시(90.4점), 경기도(87.9점), 울산광역시(87.6점)가 상위권에 위치함
- 2016년도와 비교하여 울산광역시의 복지 분야 성평등 개선이 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1.5점), 충청남도(0.9점), 서울특별시(0.7점), 경상남도(0.6점) 지역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에, 이외 지역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라북도는 2016년 대비 10.7점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며, 강원도(-7.2점), 광주광역시(-4.5점), 부산광역시(-4.0점), 충청북도(-4.0점) 등에서 4점 이상의 성평등 수준 하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보건 분야

- 2021년 기준 이 분야에서 서울특별시가 98.4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98.2점), 광주광역시(98.0점), 대구광역시(97.4점) 등이 상위권에 위치한다. 보건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91.9점이며 충청남도(94.1점), 경상북도(94.8점), 경상남도(95.7점)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2016년 대비 보건 분야에서 성평등이 개선된 지역은 전라북도(0.3점)와 부산광역시

(0.1점)이며, 이외 지역은 모두 성평등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특히 17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2016년 대비 3.1점 감소)가 가장 크게 성평등 수준이 낮아졌고, 충청남도(-2.6점), 경상북도(-1.7점), 대구광역시(-1.0점), 강원도(-1.0점)에서 1점 이상 성평등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안전 분야

- 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도별 차이가 크고 증감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임. 2021년 기준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경상북도(84.8점)이며, 대구광역시(82.3점), 세종특별자치시(81.7점), 부산광역시(81.3점) 광주광역시(79.1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함.
- 2016년도와 비교하여 충청북도가 14.1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충청남도(11.5점), 경기도(9.4점), 대전광역시(9.3), 서울특별시(9.1점) 지역은 9점 이상의 높은 개선을 보임. 반면에 전라북도는 2016년 대비 14.8점 성평등 수준이 떨어지며, 전라남도(-4.6점), 경상남도(-0.7점) 등에서는 안전 분야 성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충청남도는 2016년 14위에서 2021년 6위로 상승하며, 경기도는 12위에서 8위로, 대전광역시는 11위에서 9위로 순위 상승이 나타나지만, 전라북도는 2016년 1위에서 2021년 12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함

○ 가족 분야

- 가족 분야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8개 영역 중 7번째로 성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성평등 개선은 큰 편임. 2021년 기준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69.6점)이며 충청남도(69.3점), 부산광역시(67.5점), 충청북도(66.9점), 경상북도(66.8점)가 성평등 상위권 지역이며, 대구광역시(61.6점), 광주광역시(63.0점), 세종특별자치시(63.9점), 부산광역시(67.5점)가 하위권에 위치함
- 2016년과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성평등 점수의 개선을 보였으며, 특히 경상북도가 12.0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11.2점), 충청남도(10.8점), 충청북도(10.5점), 부산광역시(10.5점)에서 10점 이상 높은 개선이 보임.

○ 문화·정보 분야

- 문화·정보 분야는 시도 간 격차가 높은 분야이다.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90.2점이며, 울산광역시(89.3점), 서울특별시(88.9점), 대구광역시(87.7점), 세종특별자치시(87.6점)가 상위권을 차지함.
- 2016년 대비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시도가 더 많음. 2016년 대비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경상남도로 2.2점 향상되었고 서울특별시(1.2점), 강원도

(0.8점), 제주특별자치도(0.3점)에서 소폭 개선됨.

□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개선 방향

- 서울특별시는 상위권이지만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들(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역시 하락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이 요구됨.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문화·정보
		하위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하위		공적연금가입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기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분야의 높은 성평등 수준이 2021년에도 유지됨. 보건 분야 내 스트레스인지율이 9단계 상승하여 보건 분야가 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하여 상위권에 위치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 부산광역시는 상위권으로 성평등 개선은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50점 미만인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성비 등 8개 지표에 대해서는 하락 원인에 대한 진단과 진단에 기반한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함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안전, 가족, 문화·정보
		하위	-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가족 분야 내 가족관계 만족도와 셋째 아 이상 출생비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가족 분야가 전년도 대비 11단계 상승함. 문화·정보 분야 내 여가만족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의 향상에 따라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함.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안전 분야가 소폭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가사노동시간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육아휴직자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성비	

○ 대구광역시는 2020년 상위권에서 2021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기 때문임. 다만 그 수준이 소폭이고, 나머지 분야의 지표가 전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중상위권으로 나타남. 성평등 개선은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가족 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에 우선적인 개선이 요구됨. 개선이 요구되는 지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점 미만인 육아휴직자 지표이며, 그 외 전년 대비 하락을 보인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지표에 대한 원인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함.

〈대구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보건, 안전, 문화·정보
		하위	가족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경제활동, 복지,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 하였으나, 나머지 분야의 지표가 전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중상위권을 차지함. 의사 결정,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하는 반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족 분야가 하위권에 머무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육아휴직자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인천광역시는 중하위권으로 성평등 개선은 성평등 순위가 하위권인 가족 및 문화·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지표에 대한 집중 관리 역시 요구됨. 또한 전년 대비 하락을 보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등 6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상위권 →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보건
		하위	가족, 문화·정보
	지표	상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하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경제활동,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가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보건 분야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어 중하위권에 위치함. 교육·직업훈련, 보건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육아휴직자</li>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li> <li>○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시간, 여가만족도</li> </ul>		

- 광주광역시는 중상위권으로 성평등 개선은 성평등 순위가 낮은 가족, 문화·정보 분야를 점검하고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지표(경제활동참가율,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특히 육아휴직자 지표의 경우 성평등 수준 30점 미만인 지표에도 해당하므로 집중 관리가 요구됨.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보건, 안전
		하위	가족, 문화·정보
	지표	상위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공적연금 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인터넷 이용률
하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셋째 아 이상 출생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상위권을 차지하나, 가족 분야가 4단계 하락하여 문화·정보 분야와 더불어 하위권에 위치함.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소폭 상승하나, 나머지 분야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육아휴직자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 대전광역시는 상위권으로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하락을 보인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 7개 지표에 대한 하락 원인 점검과 개선방안 도출이 요구되며, 성평등 수준이 50점 미만으로 낮은 지표 역시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
		하위	-
	지표	상위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하위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여가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복지와 보건 분야가 전년도 대비 한 단계 하락하나 보건은 상위권을 차지하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대폭 상승과 더불어 대체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함.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9단계 낮아져 큰 하락을 보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여가 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울산광역시는 중상위권으로 성평등 개선은 성평등 순위가 낮은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가사노동시간 지표와 2021년 크게 하락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에 대한 관리 역시 요구됨. 또한 전년 대비 하락을 보인 성별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등의 지표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하위권 → 2020년 중상위권 → 2021 중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하위	경제활동, 보건, 안전
	지표	상위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인터넷이용률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복지 분야의 소폭 상승과 더불어 교육·직업훈련,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에서의 소폭 하락과 함께 성평등 종합등급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다만 가족 분야 내 셋째 아 출생성비가 대폭적으로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가사노동시간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상위권으로 전년 대비 종합등급이 상승한 이유는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소폭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였기 때문임. 하지만 의사결정 분야와 가족 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분야의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이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등 8개 지표에 대해서는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선 전략이 요구됨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상위권 →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문화·정보
		하위	의사결정, 가족
	지표	상위	상용근로자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가만족도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가족관계 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소폭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모두 상위권을 차지함. 경제활동 분야 내 모든 지표가 소폭 감소하여 해당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고, 셋째 아 이상 출생비 지표가 11단계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 경기도는 중상위권으로 성평등 개선은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들(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지표 역시 집중 관리가 필요함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상위권 →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하위	-
	지표	상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여가만족도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년 대비 성별 임금격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의 개선과 더불어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비, 육아휴직자 지표가 소폭 하락하여 종합등급이 중상위권에 위치함. 교육·직업훈련, 복지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 시간, 여가만족도		

○ 강원도의 성평등 등급은 중하위권으로 2019년 이래 동일한 등급임. 강원도는 8개 분야 중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안전 분야가 하위권으로 성평등 개선은 이들 분야의 개선을 위한 분석과 대책 추진이 필요할 것임. 더불어 2021년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이었던 지표(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에 대한 점검과 성 격차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필요함. 또한 전년 대비 성평등이 낮아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등에 대해서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임

〈강원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하위권 →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하위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스트레스 인지율
		하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안전 분야가 하위권이며,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소폭 상승하나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인터넷 이용률 지표가 하락함에 따라 중하위권에 위치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 (홍약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 충청북도는 2020년 이래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분야별로 하위권에 포함된 분야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높지 못한 지표의 성비로 인해 성평등 수준이 높지 못함. 이에 충청북도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자)와 3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지표 총 6개(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함

〈충청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하위권 → 2020년 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가족
		하위	-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하위	관리자 비율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종합점수에서 중하위권으로 재진입함. 셋째 아 이상 출생비가 대폭적으로 상승한 반면 문화·정보 분야 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지표가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충청남도의 성평등 종합등급은 2019년 이래 하위권으로 나타남. 이에 성평등 개선은 8개 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표별로 보면, 2021년 기준 충청남도는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와 30점 미만 지표(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및 관리자 비율)에 대한 점검과 증장기 개선방안이 필요함. 더불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 즉,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에 대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하위권 →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분야	상위	가족
		하위	복지, 보건, 문화·정보
	지표	상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하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8개 분야 중 가족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하위권 혹은 중하위권이며, 경제 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지표가 전년 대비 하락하여 하위권에 위치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 전라북도 종합등급은 2021년 하위권으로 2020년 중하위권에서 1단계 하락함. 분야 중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가 유일하며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교육·직업 훈련과 복지 분야임. 특히, 하위권 분야 중 복지 분야는 중장기 계획하에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관리자 비율 및 가사노동시간과 3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임

〈전라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하위권 →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하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하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하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년 대비 보건 분야의 성평등 하락 폭이 크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지표의 하락에 따라 하위권에 위치함. 경제활동과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분야의 하락은 위험 요인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 전라남도는 2019년 이래 종합등급이 하위권임. 분야 중 상위권은 없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하위권으로 구분됨. 이에 성평등 개선은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함. 지표별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와 3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에 집중적 점검과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지표로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인터넷 이용률에 대하여 하락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전라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하위권 →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분야	상위	-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하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평균교육연수,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가사노동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8개 분야 중 안전, 가족을 제외한 5개 분야가 모두 하위권이며, 전체 23개 지표 중 10개 지표가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종합등급 또한 하위권에 위치함. 공적연금가입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시간 지표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나 이외의 지표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수준을 가짐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인터넷 이용률	

○ 경상북도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종합등급이 하위권으로 분류됨. 성평등 개선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분야 등 하위권에 해당하는 분야의 성평등을 수준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을 해야 할 것임. 지표별로는 50점 미만 지표인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하위권 →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분야	상위	안전, 가족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지표	상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공적연금가입자, 스트레스 인지율, 가사노동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8개 분야 중 5개의 분야가 하위권이며, 상용근로자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지표가 소폭 상승하나,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 대폭적 하락과 더불어 6개의 지표의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여 하위권에 위치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 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경상남도는 2020년 이래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은 하위권에 해당하는 분야 중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을 점검하고 성평등 수준이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 휴직자 총 4개와 3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개선 방안이 수립될 필요 있음. 더불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는 총 10개로, 상용 근로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로, 이 지표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함.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하위권 →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
		하위	경제활동, 보건
	지표	상위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육아 휴직자, 여가만족도
하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체 지표 중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가 하위권이지만, 전년 대비 복지,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소폭 상승함. 다만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가 대폭적으로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 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이래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8개 분야 중 안전 분야가 유일하게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음. 이에 안전 분야 지표에 대한 성평등 검토하고 더불어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 총 2개와 3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총 2개에 대한 성비 개선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는 총 9개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자,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한 원인을 점검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복지, 가족
		하위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하위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체 8개 분야 중 3개 분야(경제활동, 복지, 가족), 23개 지표 중 10개의 지표가 상위권에 위치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지표가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함. 다만 상용근로자비율을 포함한 8개의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li>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li> <li>○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자,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li> </ul>	

#### 4.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방안

- 첫째,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망 구축이 필요
  -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는 지역성평등지수를 분석하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성평등 정책의 우선 추진 방향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성평등 정책을 검토하여 성불평등이 높은 분야와 지표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등 성평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또한, 분석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와 공유·협약하여 불평등한 분야와 지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중앙행정부처는 지역성평등 수준을 참조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기관장에게 개선방안이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이들과의 협력망 구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한 협력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성평등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함
  
- 둘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는 해당 지표의 관리부처를 통해 상시 관리 되어야 함
  - 지표별 관리기관과 통계생산기관은 다음과 같음

#####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생산 및 주기 개선〉

분야	지표	관리기관	통계생산기관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15~64세)	고용노동부	통계청
	성별 임금격차(성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성비	고용노동부	통계청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국회사무처/각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관리자 비율 성비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분야	지표	관리기관	통계생산기관
교육· 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성비	교육부	통계청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교육부	교육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경찰청/검찰청	통계청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경찰청/검찰청	경찰청
가족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육아휴직 성비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문화·정보	여가시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여가만족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인터넷 이용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성 불평등이 높은 분야의 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작성과 연계 필요

-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목적이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분야, 지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사업분석에 대해 성평등 개선을 위해 추진 되는 성주류화 도구 중 하나임.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도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의 선정에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측정 결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은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기관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더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성 불평등한 지표와 연계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및 지표와 관련된 사업(혹은 계획)을 선정하고 이를 성인지예산서와 연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II.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	7
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	9
2. 지역성평등지수산정 방법 .....	13
3.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	21
III. 지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	23
1. 성평등 종합수준 비교 .....	25
가. 지역별 성평등지수 순위 .....	25
나.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	27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	30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	31
나. 여성의 인권·복지 .....	38
다. 성평등 의식·문화 .....	45
3. 지표별 성평등 수준 비교 .....	51
가. 경제활동 분야 지표 .....	51
나. 의사결정 분야 지표 .....	52
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 .....	54
라. 복지 분야 지표 .....	55
마. 보건 분야 지표 .....	57
바. 안전 분야 지표 .....	58

사. 가족 분야 지표 .....	60
아. 문화·정보 분야 지표 .....	61
<b>IV.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개선 방향 .....</b>	<b>63</b>
1. 서울특별시 .....	65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65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69
2. 부산광역시 .....	71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71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74
3. 대구광역시 .....	77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77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81
4. 인천광역시 .....	83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83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87
5. 광주광역시 .....	89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89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93
6. 대전광역시 .....	95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95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99
7. 울산광역시 .....	101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01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05
8. 세종특별자치시 .....	107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07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11
9. 경기도 .....	113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13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17

10. 강원도 .....	119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19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23
11. 충청북도 .....	125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25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29
12. 충청남도 .....	131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31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35
13. 전라북도 .....	137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37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41
14. 전라남도 .....	143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43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47
15. 경상북도 .....	149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49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53
16. 경상남도 .....	155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55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59
17. 제주특별자치도 .....	161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	161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65
<b>V. 지역성평등지수 관리방안 .....</b>	<b>167</b>
1. 지역성평등지수 요약 .....	169
2.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방안 .....	172

■ 참고문헌 .....	177
■ 부    록 .....	179
〈부록 1〉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	181
〈부록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표 .....	184

## 표 목 차

〈표 II-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와 시행령 15조 .....	9
〈표 II-2〉 2021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 .....	12
〈표 II-3〉 지표별 값의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 .....	16
〈표 II-4〉 분야별 가중치 .....	17
〈표 II-5〉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 값과 가중치 .....	18
〈표 II-6〉 지역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산정 산식 .....	19
〈표 III-1〉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	26
〈표 III-2〉 2020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 등급변화 .....	27
〈표 III-3〉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 .....	30
〈표 III-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32
〈표 III-5〉 경제활동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34
〈표 III-6〉 의사결정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36
〈표 III-7〉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38
〈표 III-8〉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39
〈표 III-9〉 복지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41
〈표 III-10〉 보건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43
〈표 III-11〉 안전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45
〈표 III-12〉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46
〈표 III-13〉 가족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48
〈표 III-14〉 문화·정보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	50
〈표 III-15〉 경제활동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	52
〈표 III-16〉 의사결정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	53
〈표 III-17〉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	55
〈표 III-18〉 복지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	56
〈표 III-19〉 보건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	58
〈표 III-20〉 안전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	59
〈표 III-21〉 가족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	61

〈표 III-22〉 문화·정보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	62
〈표 IV-1〉 서울특별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65
〈표 IV-2〉 서울특별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68
〈표 IV-3〉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70
〈표 IV-4〉 부산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71
〈표 IV-5〉 부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73
〈표 IV-6〉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76
〈표 IV-7〉 대구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77
〈표 IV-8〉 대구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80
〈표 IV-9〉 대구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82
〈표 IV-10〉 인천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83
〈표 IV-11〉 인천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86
〈표 IV-12〉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88
〈표 IV-13〉 광주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89
〈표 IV-14〉 광주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92
〈표 IV-15〉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94
〈표 IV-16〉 대전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95
〈표 IV-17〉 대전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98
〈표 IV-18〉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00
〈표 IV-19〉 울산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01
〈표 IV-20〉 울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04
〈표 IV-21〉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06
〈표 IV-2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07
〈표 IV-23〉 세종특별자치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10
〈표 IV-24〉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12
〈표 IV-25〉 경기도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13
〈표 IV-26〉 경기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16
〈표 IV-27〉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18
〈표 IV-28〉 강원도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19
〈표 IV-29〉 강원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22
〈표 IV-30〉 강원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24

〈표 IV-31〉 충청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25
〈표 IV-32〉 충청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28
〈표 IV-33〉 충청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30
〈표 IV-34〉 충청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31
〈표 IV-35〉 충청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34
〈표 IV-36〉 충청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36
〈표 IV-37〉 전라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37
〈표 IV-38〉 전라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40
〈표 IV-39〉 전라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42
〈표 IV-40〉 전라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43
〈표 IV-41〉 전라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46
〈표 IV-42〉 전라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48
〈표 IV-43〉 경상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49
〈표 IV-44〉 경상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52
〈표 IV-45〉 경상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54
〈표 IV-46〉 경상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55
〈표 IV-47〉 경상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58
〈표 IV-48〉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60
〈표 IV-49〉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61
〈표 IV-50〉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64
〈표 IV-51〉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	166
〈표 V-1〉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련 기관별 역할 .....	172
〈표 V-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	174

## 그림 목 차

[그림 I-1] 2022년 연구의 주요 내용 .....	5
[그림 II-1]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단계 .....	15
[그림 III-1] 성평등지수 1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격차 .....	28
[그림 III-2] 2015년 및 2020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 .....	29
[그림 III-3]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점수 변화 .....	31
[그림 III-4]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33
[그림 III-5]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35
[그림 III-6]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37
[그림 III-7]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40
[그림 III-8]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42
[그림 III-9]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44
[그림 III-10]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47
[그림 III-11]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49
[그림 IV-1] 서울특별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66
[그림 IV-2] 부산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72
[그림 IV-3] 대구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78
[그림 IV-4] 인천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84
[그림 IV-5] 광주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90
[그림 IV-6] 대전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96
[그림 IV-7] 울산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02
[그림 IV-8]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08
[그림 IV-9] 경기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14
[그림 IV-10] 강원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20
[그림 IV-11] 충청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26
[그림 IV-12] 충청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32
[그림 IV-13] 전라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38
[그림 IV-14] 전라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44

[그림 IV-15] 경상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50
[그림 IV-16] 경상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56
[그림 IV-17]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	162
[그림 V-1] 지역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	169

## 부 표 목 차

〈부표 2-1〉 경제활동참가율 .....	184
〈부표 2-2〉 성별 임금격차 .....	185
〈부표 2-3〉 상용직 근로자 .....	186
〈부표 2-4〉 광역 의회의원 .....	187
〈부표 2-5〉 기초 의회의원 .....	188
〈부표 2-6〉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189
〈부표 2-7〉 관리직 근로자 .....	190
〈부표 2-8〉 평균 교육년수 .....	191
〈부표 2-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192
〈부표 2-10〉 기초생활수급자 .....	193
〈부표 2-11〉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	194
〈부표 2-12〉 국민연금 가입자 .....	195
〈부표 2-13〉 공무원연금 가입자 .....	196
〈부표 2-14〉 사학연금 가입자 .....	197
〈부표 2-15〉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	198
〈부표 2-16〉 건강검진수검률 .....	199
〈부표 2-1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200
〈부표 2-18〉 강력범죄 피해자 .....	201
〈부표 2-19〉 취업여부별 가사시간 .....	202
〈부표 2-20〉 가족관계만족도 .....	203
〈부표 2-2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204
〈부표 2-22〉 육아휴직자 .....	205
〈부표 2-23〉 여가 시간 .....	206
〈부표 2-24〉 여가활용 만족도 .....	207
〈부표 2-25〉 인터넷 이용률 .....	208
〈부표 2-26〉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성비 .....	209
〈부표 2-27〉 스트레스인지율 .....	210

# I

## 서론

- |               |   |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국가 수준의 성 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이후 매년 국가 수준의 성 평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1년부터 「국가성평등보고서」로 변경하였으며, 성평등 측정을 위한 새로운 지표구성이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 목적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영역별 성평등 실태와 개선 정도를 분석하여 성평등 제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데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의 평등 수준과 영역별 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 개발에 활용되며, 더불어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국가경쟁력과 복지와의 사회경제적인 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는 가족, 복지, 보건, 경제 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등 총 8개의 분야에 24개의 지표 구성하여 국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변화를 점검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중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지역 성평등지표 및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 확대’ 계획을 근거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정책분야에서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1년 개발되었다. 2015년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법 제19조 3항은 지역성평등지표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지표구성에 있어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시도별로 성평등이 취약한 영역을 보여주어, 분야별 성평등 정책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지수가 가지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지역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둘째, 지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성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성평등보고서」는 2019년까지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로 작성되었으며, 2020년 지역 성평등의 분석과 비교하는 보고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2년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I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필요성, 연구내용, 방법을 간략히 제시한다. II장은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를 설명한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산정 방법, 지수의 특징 등을 설명한다. III장은 성평등 수준의 지역별 수치를 비교한다. 성평등 수준은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6년간의 종합 성평등 수준, 영역별 성평등 수준, 지표별 성평등 수준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시도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파악한다. IV장은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은 각 시도의 변화추이 중심으로 영역, 분야별 지표를 분석하여 불평등한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여 시도별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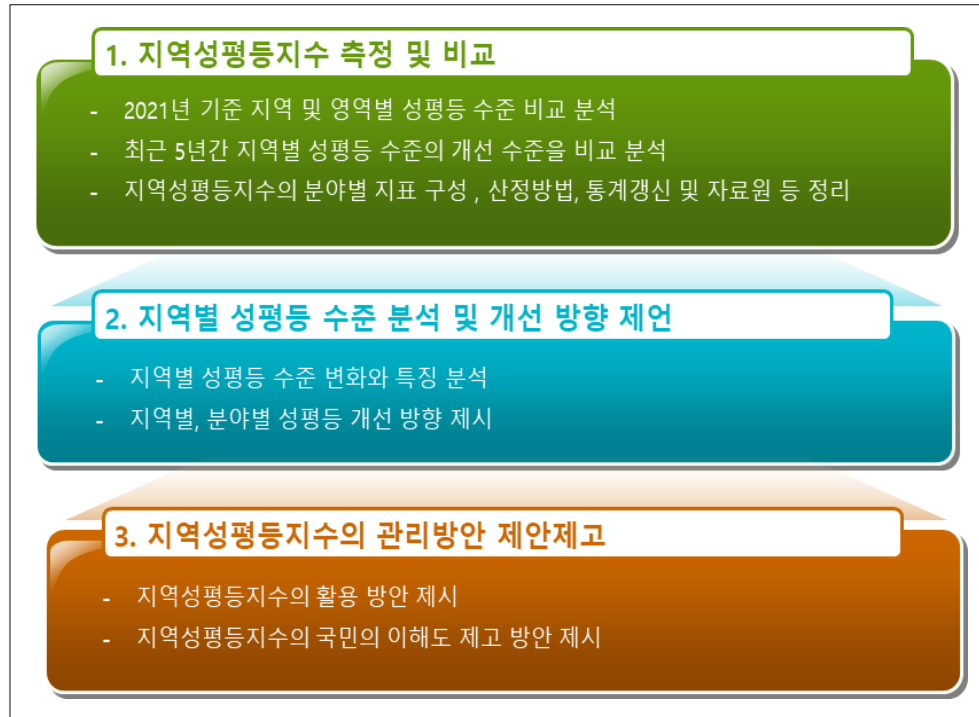
###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한다.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에 따라 지역 특성과 통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지표 전반을 검토하고 분야별 지표를 활용하여 2021년 통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및 영역·성평등 수준 분석한다. 분석 기간은 최근 5년간으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영역 및 분야에 대한 변화를 시도별로 분석하고 이를 비교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및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영역과 분야별 지표의 내용 및 자료원을 제시한다.

둘째,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과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시도별 성평등 수준은 종합순위, 영역별, 분야별, 지표별로 성평등 수준과 순위를 제시한다. 분석된 결과는 성평등 순위(종합 등급, 상위 혹은 하위 분야와 지표), 전년 대비 등급을 일으킨 주된 원인,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로 구분하여 종합된 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를 기준으로 성 불평등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관리방안을 재정리하고 지역성평등지수의 활용을 위한 방안과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와 특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I-1] 2022년 연구의 주요 내용

##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 성평등지수의 산정 방법, 표준화 방법, 지역성평등 정책을 검토한다. 국내외 지역성평등지표 관련 연구와 지표의 표준화 및 지수 산정 방법론 연구 등을 살펴본다.

둘째, 지역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지역성평등지표 산정을 위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지역단위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개편된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구성, 측정 방법, 지수의 공개내용과 공개방식 등을 설명하며, 지표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한다.

넷째, 지표구성과 점검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자문은 지역성평등지수 구성과 지표 활용방안,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연계 방안, 지역 성평등지수산정 방법 등을 자문한다.



## II

#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9
2. 지역성평등지수산정 방법	13
3.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21



### 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sup>1)</sup>

지역성평등지수 작성은 2011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다가,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의 제19조 제1항은 국가성평등지수산정 근거를 규정하고 더불어 제3항에 지역성평등지수의 작성 근거와 지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역성평등지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보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작성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15조는 국가성평등지수와 더불어 지역성평등지수의 작성 분야를 크게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둘째,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셋째, 의사결정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였다.

〈표 II-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와 시행령 15조

<p><b>(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b>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여야 함.                  (중략)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b>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b>하여야 함. (이하 생략)</p> <p><b>(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b>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p>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12.10.), 양성평등기본법

1) 주재선 외(2020), 「2020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 pp.9~11. 인용 및 수정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이래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지표 구성에 있어 약간씩 변화해 왔다. 이에 지역성평등지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던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 연구 결과로 지역성평등지수는 4개의 정책영역에 17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4개의 정책 영역은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로 결정되었고, 정책목표에 따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가정과 안전한 삶’, ‘소외여성의 사회통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영역별로 4~5개의 지표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점 영역을 추가하였다.

2012년과 2013년까지의 지표 구성은 지수산정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영역명 정비와 일부 지표의 재정비를 하였다. 2012년은 가점 영역을 삭제하고 영역명을 변경하였고, 2013년은 일부 지표의 통합, 삭제, 추가 작업이 있었다. 삭제된 지표는 ‘전문직 성비’와 ‘가정폭력 건수’로, 각각 성평등 수준 달성률과 지표의 포괄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삭제되고 ‘상용직 근로자 성비’와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성비’로 대체되었다. 이외 대표성 제고 영역의 경우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 의회 의원’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고 ‘초·중·고 교장 성비’를 추가했다.

2014년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될 것을 대비하여 선제적 개편을 하였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양성평등기본법은 지역성평등지수를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규정(제19조 제3항)함에 따라, 지표 구성을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재구성하게 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연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와 지표 구성을 기준으로 연계성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지표 중 지역단위의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연관된 유사 지표로 대체한다. 단, 유사 지표가 생산되지 않으면 지표 구성에서 제외한다. 셋째, 지표 구성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지표 연계 시에도 동일하다.

이와 같은 연계원칙에 따라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구성은 기본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구성 체계를 따르면서도, 지역 통계 생산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통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지표 중 ‘비빈곤 가구주 비율’은 통계 신뢰성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대체했다. 이 지표는 전국단위의 신뢰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체되었다. 국가와 지역 성평등지수 연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원칙은 지역 특성으로, 이 원칙에 의해 대체된

지표가 바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이다. 지역단위의 성평등 측정에서 국회의원 성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풀뿌리 정치와 지역 정치적 환경의 성평등 특성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이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원칙에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연계하기 어려운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등의 지표는 지표 구성에서 삭제하였다.

2016년은 두 개의 지표를 추가하고 하나의 지표를 대체하였다. 추가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와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이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는 행정참여의 성 격차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성평등 개선 의지를 지수 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한편 경제활동 분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제성평등 지표와 연계하고 측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로 수정하였다.

2016년 지표 구성은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확정된 이래 지표구성의 변화는 없어, 2022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2021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

정책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법) 피해자		
성평등 인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2. 지역성평등지수산정 방법<sup>2)</sup>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이와 같은 성평등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의 세 개 정책영역으로 구성하고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 23개의 지표로 구성한다. 또한 ‘동등’이란 개념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성 격차(gender gap)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격차(gap)란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 격차는 남성 수준과 여성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완전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성 격차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평등을 성 격차로 측정하는 방법은 국제성평등지수산정<sup>3)</sup>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개념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지만, 집단(국가, 지역)별 발전 환경을 통제<sup>4)</sup>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성 격차는 차이(difference)가 아니라 성비(sex ratio)를 이용하는데, 성비를 이용한 방법은 성별 차이뿐 아니라 수준(혹은 발전 정도)도 고려한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에 적합한 방법이다.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산정하고 있다.

단계 1은 지표의 표준화와 성비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먼저 모든 지표는 평등기준점으로 표준화한다. 지표 값의 범주는 완전불평등상태인 ‘0’에서 완전평등상태인 ‘1’까지이다. 비율로 보면 여성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일 때, 성비는 ‘1’로 완전평등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sup>5)</sup>. 대부분 지표는 비율 50% 지점에서 완전평등 기준점 ‘1’을 만족한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이를 만족하지 않거나, 현재의 성별 수준을 감안할 때 완전평등 기준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경우 자연 출생환경에서 성비가 1이 아니다. 즉, 자연출생성비가 1.06이므로 남녀 비율 50%에서 완전평등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의 완전평등한 수준은 자연출생성비

2) 주재선 외(2020), 「2020년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 pp.12~19. 인용 및 수정.

3)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I) 등을 포함해 성 격차를 보여주는 지수에 대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임.

4) 즉, 지역별 혹은 국가별 발전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을 통제할 수 있음.

5)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여성수준이 남성수준보다 높을 경우 지표 값은 완전평등 상태인 ‘1’점을 부여함. 이는 지역성평등지수가 지역의 성평등 상태를 비교하고 더불어 여성의 불평등 개선에 목적을 두고 산정됨을 의미함.

수준의 역수인 0.944를 완전평등기준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수준이 높을수록 성평등에 부정적 의미를 주는 지표로서, 성 격차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가 남녀 모두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성 격차를 통해 성평등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두 지표는 격차와 더불어 일정 수준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불이익이 가중되도록 하는 측정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즉, 두 지표의 산정은 인구 대비 최대 발생건수로 표준화하여 성비 값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2011~2015년 동안은 지역별 최대 발생 건수(완전불평등기준점)를 고려하여 인구 10만 명 당 150명으로 두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성폭력에 성추행이 추가되고 성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이를 300명으로 재조정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도별로 2007년~2017년을 기준으로 1,000명 당 최소 15명에서 최대 70명 사이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최대치를 인구 1,000명 당 100명으로 두고 100명에 가까울수록 불이익이 가중되어 받도록 설계하였다. 이들 지표에 대한 표준화 방법은 아래 식과 같다.

○ 표준화 방식

$$S_f \text{ or } S_m = \frac{[Max(x) - x]}{[Max(x) - Min(x)]}$$

여기서  $S_f$ 와  $S_m$ 은 기준점을 고려한 표준화 점수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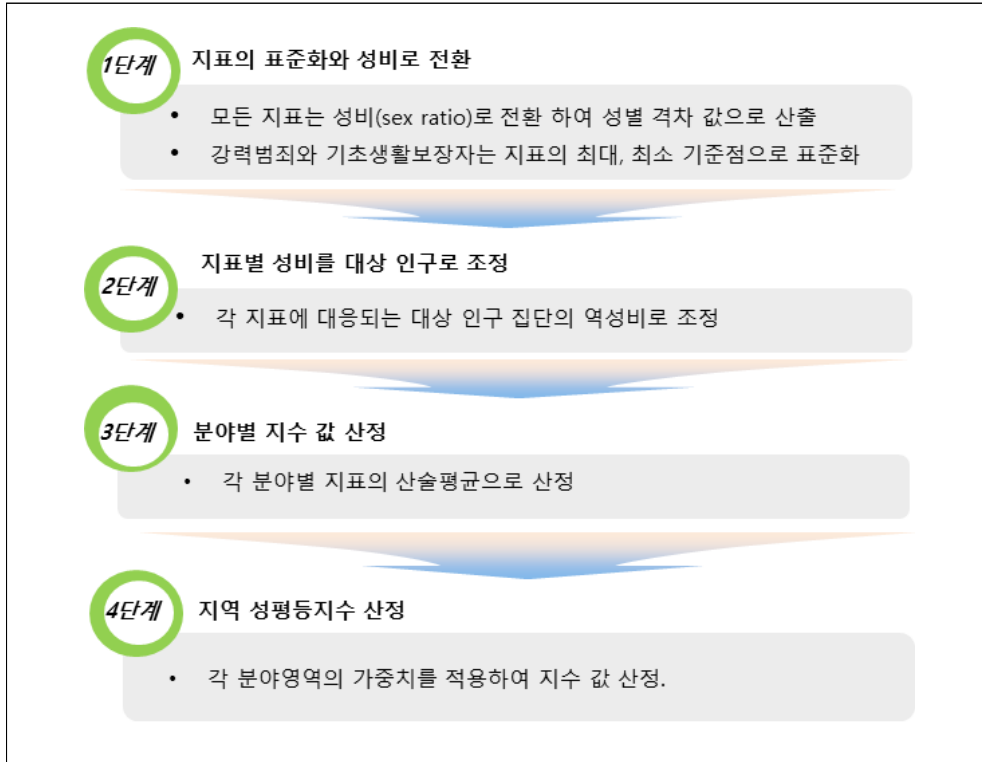
\* 강력범죄 피해자 지표인 경우 :  $Max(x)=300$ ,  $Min(x)=0$

\* 기초생활수급자 지표인 경우 :  $Max(x)=100$ ,  $Min(x)=0$

여기서 지표를 백분율로 표시할 때, 지표 대부분은 최솟값( $Min(x)$ )이 0이고 최댓값( $Max(x)$ )이 100이다.

다음으로 모든 지표는 성비(sex ratio)로 전환하는 것이다. 성비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별 발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지역별로 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준 차이를 일정 부분 보정해 주면서 성 차별을 측정해 준다. 한편 부정적 지표는 긍정적 지표로 변경하여 성비로 전환한다. 스트레스인지율은 비스트레스인지율(100-스트레스인지율)로, 빈곤가구주 비율은 비빈곤가구주 비율(100-빈곤가구주 비율)로 변경 후 성비가 높을수록 성평등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1]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단계

단계 2는 지표별 성비를 대상 인구로 조정하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각 지표의 성비에 대상 인구 집단의 역성비로 통계를 조정하는 단계이다. 이를테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기초 및 광역의원 입후보 자격인 25세 이상 인구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해당 지역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한다. 또 ‘관리직 비율 성비,’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등은 지표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의 성비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한편 ‘가사노동시간 성비’의 경우 남녀의 취업률에 큰 영향을 받는 지표로, 하루 동안 업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시간은 취업률을 고려해 가사시간을 조정하여 성비를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취업률과 비취업률의 평균을 이용하여 가사시간 성비를 계산하였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같이 두 개의 지표를 통합한 경우에는 각 지표 값의 규모와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은 정책 결정의 영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성비를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지표별 값의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지표별 값의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

분야	구성지표	가중치(보정 값)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임금격차	-
	상용근로자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성비 역수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성비 역수
	관리직 비율	취업자 성비 역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연수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전체 인구 성비 역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8세~59세 인구 성비 역수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
	건강검진 수검률	-
	스트레스 인지율	-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격차	-
가족	가사노동시간	동일 취업률 가정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6의 역수
	가족관계 만족도	-
	육아휴직자	-
문화·정보	여가시간	동일 취업률 가정
	여가만족도	-
	인터넷 이용률	-

단계 3은 분야별 지수 산정 단계이다. 분야별 지수는 지표의 성비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지표의 값은 완전불평등 '0'에서 완전평등 '1'까지 범위를 가지며, 생산 여부에 따라 측정통계와 추정통계를 활용한다. 추정통계는 생산주기가 1년 이상(2년 혹은 5년)인 경우와 1년을 주기이더라도 당해 생산되지 않으면 추정치를 활용한다. 지역성평등지수 중 5년 주기 지표는 '평균교육연수',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이며, 2년 주기 지표는 '전반적 사회안전인식'과 '여가만족도'이다. 이들 지표가 생산되는 연도는 측정지표 값을 활용하지만, 그 외 지표는 추정치를 활용한다. 추정치는 두 값 사이의 경우 내삽법(interpolation)을 통해 추정했고 두 값 다음 연도의 경우 외삽법(extrapolation)을 통해 추정하였다. 단, 4년 주기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보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값은 선거 이후 보궐선거가 아니면 다음 선거까지 통계변화가 거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가 생산되는 해까지 동일한 지표 값을 사용하고 있다.<sup>6)</sup>

마지막 단계 4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은 분야별 가중치를 이용해 계산한다. 분야별 가중치 산정은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를 같이 활용하고 있다. 분야별 가중치<sup>7)</sup>는 경제활동이 0.19, 교육·직업훈련 0.14, 복지와 의사결정이 각각 0.13, 안전 0.12, 가족 0.11, 보건 0.10, 문화·정보 0.08이다.

〈표 II-4〉 분야별 가중치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0.19	0.13	0.14	0.13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0.10	0.12	0.11	0.08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과정을 간단한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경제

6) 선거를 통해 얻은 통계는 선거 당해 당선자를 기준으로 지표 값을 산정함. 선거에 의한 의회 의원과 단체장 당선자 통계는 매년 다양한 이유로 성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의회위원의 경우 의원 자격이 박탈될 때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성비가 변경될 수 있고, 자치단체장 또한 재선거 등이 이루어지면 성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하지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수정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성평등지수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가 공표될 때까지 이와 같은 방법을 유지하고자 함.

7) 가중치는 2009년 교수, 관련 연구자, 공무원 등 각계의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활동 분야의 3개 지표 값과 가중치이다.

〈표 II-5〉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 값과 가중치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	남녀 임금 (천 원)	상용직 근로자 (천 명)	지표 가중치	
				임금근로자 (천 명)	취업자 (천 명)
여성	52.6	1,806	987	1,826	2,246
남성	72.7	2,889	1,537	2,181	2,852

○ 단계 1 : 각 지표의 성비(여/남)의 백분율을 구한다.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frac{52.6}{72.7} \times 100 = 72.35$

- 남녀임금 성비 :  $\frac{1,806}{2,889} \times 100 = 62.51$

- 상용직 근로자 성비 :  $\frac{987}{1,537} \times 100 = 64.22$

○ 단계 2 :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재계산한다.

- 상용직 근로자 성비는 임금근로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  
 :  $64.22 \times \frac{2,181}{1,826} = 76.71$

○ 단계 3 : 표준화된 지표 값을 산술평균하여 분야별 지수 값을 산정한다.

- 경제활동 영역 :  $\frac{72.35 + 62.51 + 76.71}{3} = 70.52$

○ 단계 4 : 다른 분야의 지수도 단계 1에서 단계 3을 통해 동일하게 계산되며, 지역 성평등지수는 각 분야의 가중치(〈표 II-6〉)를 이용하여 최종 산정하게 된다.

(예) 가족 분야 : 59.56, 복지 분야 : 79.54, 보건 분야 : 87.84, 의사결정 분야 : 28.97, 교육·직업훈련 분야 : 95.92, 문화·정보 분야 : 84.71, 안전 분야 : 53.90

- 지역성평등지수

=  $59.56 \times 0.11 + 79.54 \times 0.13 + 87.84 \times 0.10 + 70.52 \times 0.19$   
 +  $28.97 \times 0.13 + 95.92 \times 0.14 + 84.71 \times 0.08 + 53.90 \times 0.12 = 69.51$

〈표 II-6〉 지역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산정 산식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b>경제활동</b>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X = [ F / M ]$
성별 임금격차	임금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 F / M ]$
상용근로자비율	대상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로 조정된 상용직 근로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b>의사결정</b>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광역의원 성비와 기초의원 성비 평균	$X = W\_m/f \times [ F\_광역 / M\_광역 + F\_기초 / M\_기초 ] / 2$
5급 이상 공무원비율	대상 남녀 공무원 비율로 조정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관리직 비율	대상 남녀 취업자 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	$X = W\_m/f \times [ F / M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b>교육·직업훈련</b>		
평균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의 성비	$X = [ F / M ]$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X = [ F / M ]$
<b>복지</b>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명 당 100명을 최대치로 표준화함	$X = [ S_f / S_m ]$ 여기서, $S_f$ or $S_m = \frac{[Max(x) - x]}{[Max(x) - Min(x)]} = \frac{100 - x}{100}$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8~59세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b>보건</b>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X = [ F / M ]$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 F / M ]$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 성비	$X = [ F' / M' ] * \text{비스트레스인자율로 변경 후 성비}$ 여기서 $F'=100-F, M'=100-F$ .
<b>안전</b>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대상 인구 비율로 조정된 사회 안전 인식 성비	$X = W\_m/f \times [ F / M ]$
강력범죄(홍역범) 피해자 비율 격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X = [ S_f / S_m ]$ 여기서, $S_f$ or $S_m = \frac{[Max(x) - x]}{[Max(x) - Min(x)]} = \frac{300 - x}{300}$ *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 명 당 300명을 최대로 표준화함
<b>가족</b>		
가사노동시간	남녀 취업 구조를 통제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X = 1 / [ ( T\_Ef + T\_Nf ) / ( T\_Em + T\_Nm )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 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X = [ F / M ] \div 1.06 * 1.06$ 는 자연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X = [ F / M ]$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성비 (역수)	$X = W\_f/m \times [ M / F ]$
<b>문화·정보</b>		
여가 시간	남녀 취업 구조를 통제한 여가 시간 성비	$X = [ ( LT\_Ef + LT\_Nf ) / ( LT\_Em + LT\_Nm ) ]$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비	$X = [ F / M ]$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활용 능력에 대한 성비	$X = [ F / M ]$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기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3) pf, pm: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 비율, 남성비율, Sf, Sm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남녀비율을 나타냄.  
 4) T\_Em, T\_Nm, T\_Ef, 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냄.  
 5) LT\_Em, LT\_Nm, LT\_Ef, L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냄.

### 3.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sup>8)</sup>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격차(gap)는 빈곤, 임금, 기술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차이(difference)와 비(ratio)를 활용해 측정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지표의 성 격차를 남성 대비 여성 비로 활용하고 있다. 수준(level)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 방법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접근 정도(평등 정도)를 알 수 있고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의 개발 수준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갖는다. 즉, 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을 측정하면 자원의 접근 기회가 많은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성평등 수준에 우위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격차는 지역의 발전 상태와 관계없이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격차는 성별의 절대적 성취 정도가 평등에 반영되지 못해서 직감적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outcome)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지표구성은 산정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해 활용한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제성평등지수는 결과적 평등상태, 즉 남녀의 성과 수준을 기반으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의 경우 가점 영역에서 성평등 정책 활성화 차원으로 5개의 투입지표를 구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가점 영역의 투입지표는 2012년부터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역성평등 수준이 가점 영역의 투입지표로 인해 순위변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둘째로 국제지표에서 알 수 있듯 제도와 정책 수단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성과지표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된다. 성평등지수 산정은 보통 '여성의 수준 상승' 혹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적을 갖는다. 성평등지수 개발 시 '여성의 수준 상승'과 '성평등' 달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정책적 목적 혹은 지향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성평등 개선에 더 큰 지향점을 갖는다면, 지수는 성별 수준의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게

8) 주재선 외(2020), 「2020년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 pp.20~21. 인용함.

된다. 즉, 차이가 얼마나 좁혀지고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다. 반면 여성 수준 상승에 더 큰 목적을 하고 있다면, 지수는 남성 수준과 관계없이 여성 수준이 낮은 부분에 더 관심을 끌게 된다. 즉, 정책의 방향이 남성과의 격차보다 여성의 수준 향상에 더 관심을 두고 접근하게 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 격차의 해소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산정되고 있다.

### Ⅲ

## 지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1. 성평등 종합수준 비교	25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30
3. 지표별 성평등 수준 비교	51



## 1. 성평등 종합수준 비교

### 가. 지역별 성평등지수 순위

지역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17개<sup>9)</sup> 시·도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측정에 활용되는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지수의 수준이 높다는 것<sup>10)</sup>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종합점수는 수준의 순위를 범주화하여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순위를 범주화하였기에, 각 범주 내 시·도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 각 범주는 2022년 지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범주의 성평등 점수 최대와 최소치를 함께 제시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77.84점~79.00점)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2016년 이래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8년(중상위권)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또한 2017년(중상위권)을 제외하면 2016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상위권에 진입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오르내렸으나, 2020년 상위권에 재진입하면서 2021년까지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중상위권 지역은 76.72점~77.54점의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지역별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중상위권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2018년 중상위권에 진입한 후 2021년까지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상위권으로 진입하지만, 2020년 중하위권으로 떨어진 후 2021년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또한 2017년~2020년 동안 상위권으로 구분되었으나, 2021년 중상위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2016년까지 하위권을 유지하다 2017년 중하위 지역으로 진입한 뒤 2018년 중상위까지 상승한 후, 2019년 중하위 지역으로 하락하지만 2020년 중상위권으로 다시 진입하여 2021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중하위권에 있는 지역(76.04점~76.69점)은 강원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9)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년부터 통계 지표가 모두 생산되어 2019년부터 측정에 포함되었으며, 통계의 갱신 등으로 일부 지역의 과거 성평등 수준이 소폭 변동이 있었음.

10) 본 연구에서 성평등이 높다는 것은 성 격차가 낮다는 의미이며,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성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다. 강원도는 2017년 중상위권에서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후 2021년까지 중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0년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상승한 후 2021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6년 이래 중하위권과 중상위권을 등락하는 특성을 보이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중하위권으로 구분된다. 충청북도는 2016년 이래 줄곧 중하위권에 머무르다 2018년 중상위권으로 진입하며, 이후 2020년 하위권까지 하락하나 2021년 중하위권으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등 급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평등 상위지역	광주	대구	대구	광주	대구	대전
	대전	대전	부산	대구	대전	부산
	부산	전북	서울	대전	부산	서울
	전북	제주	제주	부산	서울	세종
	-	-	-	제주	제주	제주
성평등 중상위 지역	강원	광주	경기	경기	광주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서울	경기	경기
	서울	서울	울산	세종	세종	대구
	제주	인천	충북	인천	울산	울산
성평등 중하위 지역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경남
	전남	울산	인천	전북	인천	인천
	충북	충북	전북	충북	전북	충북
성평등 하위지역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전남	전남
	울산	전남	전남	전남	충북	전북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주: 1) 각 등급 안의 시·도 순서는 가나다순임. 2)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성평등 하위권(73.74점~75.13점) 지역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이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2016년 이래 지속해서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2016년 중하위권에서 2017년 하위권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전라북도는 2016년 상위권으로 상승하여 2017년까지 유지하다가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뒤 2020년과 2021년에는 하위권으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기준 성평등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이다. 세종특별자치도는 2020년 성평등 등급이 중상위권이었으나 2021년 상위권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고, 충청북도의 경우 2020년 하위권에서 2021년 중하위권으로 상승하였다. 반면에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는 전년 대비 성평등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광역시는 2017년부터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2021년 측정결과 중상위권으로 한 단계 하락하였고, 전라북도는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성평등 순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외 13개 시도는 2020년 성평등 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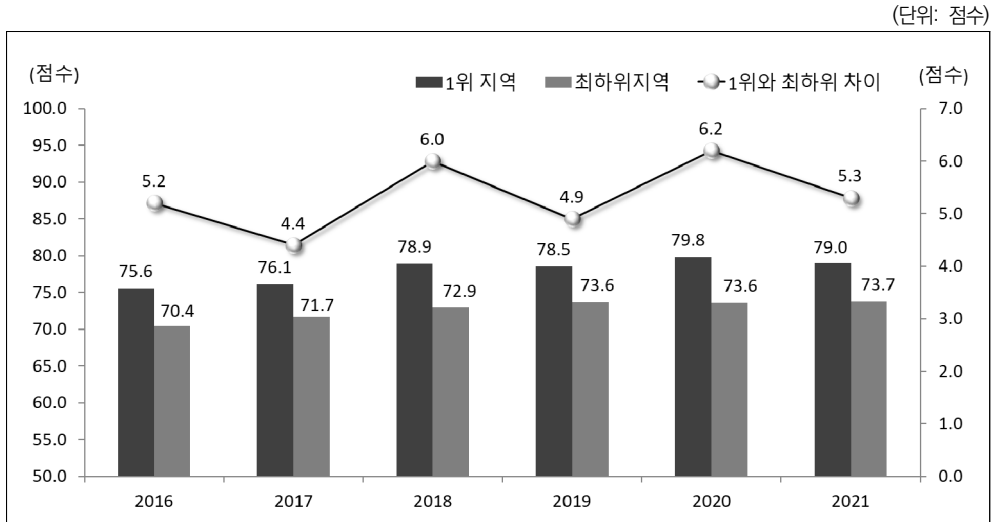
〈표 Ⅲ-2〉 2020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 등급변화

구분	지역
성평등 등급 상승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성평등 등급 유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등급 하락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 나.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성평등 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등·하락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인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2016년 5.2점에서 2017년 4.4점, 2018년 6.0점, 2019년 4.9점, 2020년 6.2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21년은 5.3점으로 나타난다. 지역 성평등 1위 지역의 점수는 2016년 75.6점, 2017년 76.1점, 2018년 78.9점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2019년 78.5점으로 낮아졌고 2020년 다시 79.8점으로 높아지나 2021년 79.0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2021년 기준 성평등 1위 점수는 2016년 대비 3.4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역 중 최하위 점수는 2016년 70.4점에서 점차 개선되어 2017년 71.7점, 2018년 72.9점, 2019년 73.6점, 2020년 73.6점으로 점차 개선되며 2021년 73.7점을 보인다. 이로 인해 2021년 성평등 최하위 수준 점수는 2016년 대비 3.3점 개선되어

성평등 1위 지역 점수와 비슷한 개선 수준을 보인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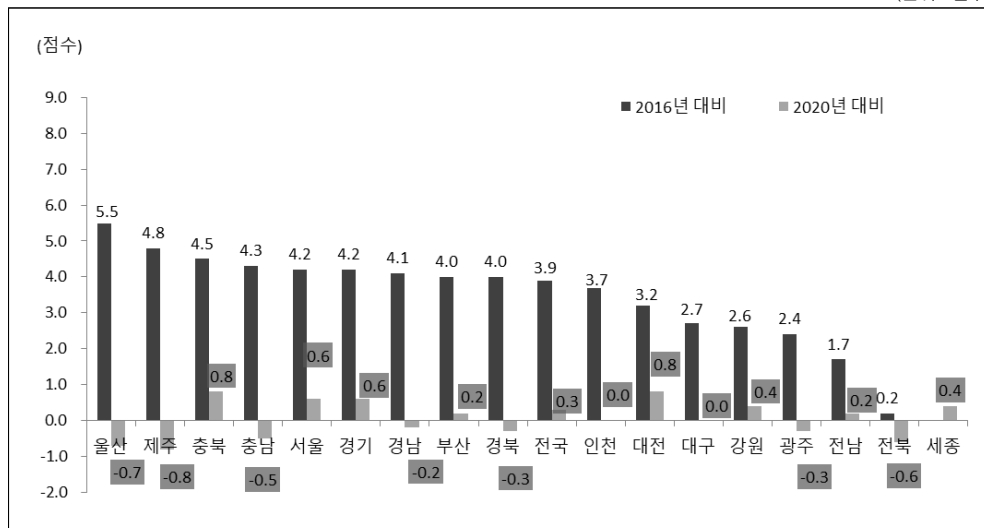
[그림 III-1] 성평등지수 1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격차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이 모든 시도에서 점차 개선되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상위권에 있는 지역, 즉 6위와 9위 지역의 차이는 0.82점으로 나타나며, 중하위권에 위치한 10위와 13위 지역의 차이는 이보다 작은 0.65점으로 나타난다. (<표 III-1> 참조)

2021년 성평등 개선 정도를 지역별로 보면, 2016년과 비교하여 울산광역시(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로 나타난다. 2016년 대비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은 5.5점으로 전국 평균 3.9점보다 1.6점 더 높다. 다음으로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2016년 대비 4.8점 개선되었고, 충청북도(4.5점), 충청남도(4.3점), 서울특별시(4.2점), 경기도(4.2점), 경상남도(4.1점), 부산광역시(4.0점), 경상북도(4.0점)에서 4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반면 2016년 대비 대구광역시(2.7점), 강원도(2.6점), 광주광역시(2.4점), 전라남도(1.7점), 전라북도(0.2점) 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개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시도 중 울산광역시는 2016년 하위권 지역에서 2021년 중상위권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중상위권에서 2017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2016년 상위권에서 2021년 하위권으로 하락하며, 전라남도의 경우 2016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20년과의 비교에서 성평등 수준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가 0.8점으로 가장 많이 개선되고 서울특별시(0.6점), 경기도(0.6점), 강원도(0.4점), 세종특별자치시(0.4점) 등에서 전국 평균(0.3점) 이상의 개선을 보였다. 하지만 전라남도(0.2점)와 부산광역시(0.2점), 인천광역시(0.0점), 대구광역시(0.0점)는 2020년 대비 성평등 개선이 매우 낮거나 없었고, 경상남도(-0.2점), 경상북도(-0.3점), 광주광역시(-0.3점), 충청남도(-0.5점), 전라북도(-0.6점), 울산광역시(-0.7점), 제주특별자치도(-0.8점)는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2020년 대비 성평등 등급이 대구광역시는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전라북도는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한 단계씩 낮아지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는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에 힘입어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다.

(단위: 점수)



[그림 Ⅲ-2] 2015년 및 2020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

##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의 영역과 8개의 분야, 23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3개의 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정책영역으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점수는 70.1점으로 2016년과 비교하여 5.8점 상승하여 세 영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0.7점의 개선되어 세 영역 중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의 세 개 분야를 통해 측정된다. 2021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86.9점으로 세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성평등 개선은 2016년과 비교하여 1.7점 상승, 2020년과 비교하여 0.4점 하락하는 등 개선 정도는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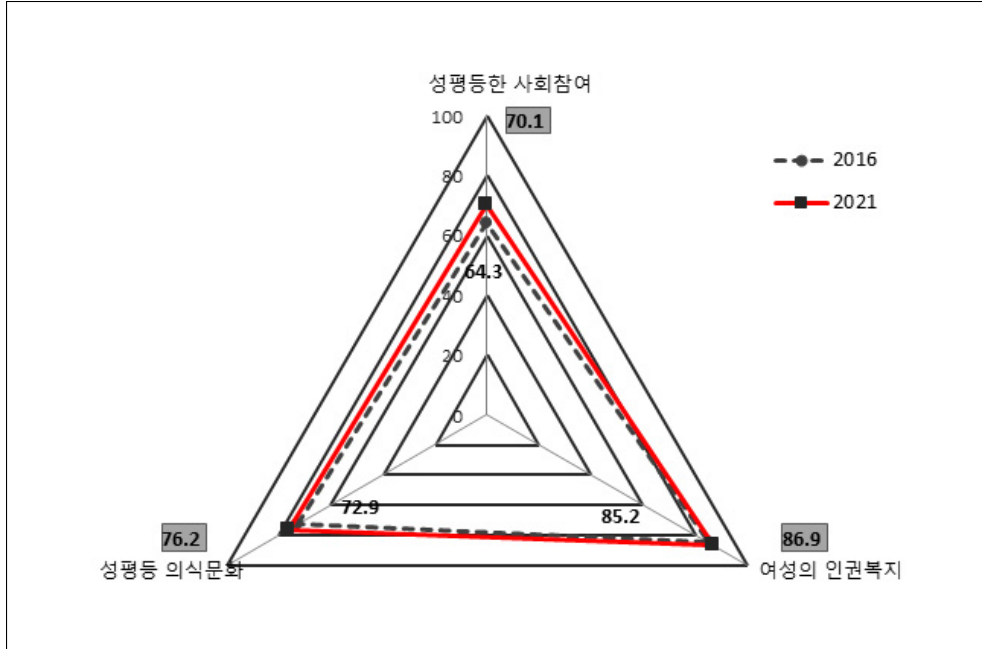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를 포함하여 측정된다. 2021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77.1점으로 세 영역 중 두 번째로 높다. 성평등 개선 수준을 보면, 2016년과 비교하여 3.9점 높아졌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3〉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

(단위: 점수)

구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2016	64.3	85.2	73.2	
2017	65.7	85.6	74.2	
2018	68.1	85.8	75.5	
2019	69.0	86.4	76.2	
2020	69.4	87.3	76.8	
2021	70.1	86.9	77.1	
증감	2020년 대비	0.7	-0.4	0.3
	2016년 대비	5.8	1.7	3.9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점수 변화

세 개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변화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점수를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점수는 대전광역시가 73.9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73.7점), 광주광역시(72.7점) 순으로 높으며, 도지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72.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영역의 하위권은 충청남도(67.4점, 15위), 경상북도(65.1점, 16위), 전라남도(64.7점, 17위) 등 주로 도지역이 차지했고, 광역시로서는 세종특별자치도(68.1점, 14위)가 유일하게 하위권에 위치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역별 성평등 개선 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경상남도이다. 경상남도는 2016년 대비 8.2점의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광역시(7.3점)의 개선이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6.9점)와 울산광역시(6.8점) 등에서 6점 이상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도지역은 경상남도(8.2점)를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6.8점)와 충청북도(6.0점)에서 6점 이상 높은

개선을 보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충청북도가 1.3점으로 가장 큰 개선을 보였고 강원도(1.2점), 대구광역시(1.1점), 전라북도(1.1점), 대전광역시(1.0점)에서 1점 이상의 개선을 보였고, 세종특별자치시(0.1점)와 제주특별자치도(0.0점)에서 개선이 매우 낮거나 없었다.

〈표 III-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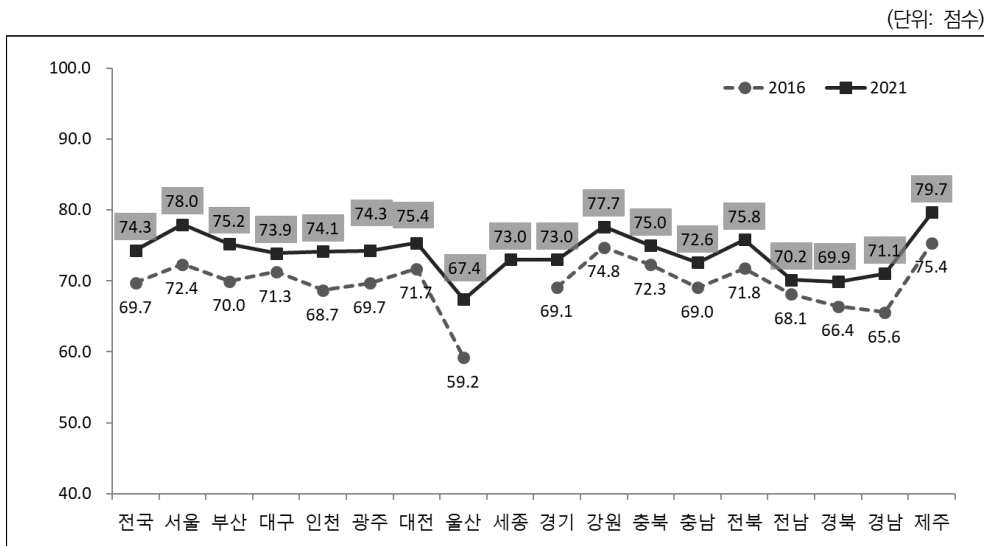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 년대비	2016 년대비
서울	69.2	1	70.1	1	71.5	2	71.8	3	73.0	1	73.7	2	0.7	4.5
부산	65.0	6	65.8	10	69.5	5	71.0	4	71.5	5	71.9	5	0.4	6.9
대구	65.9	4	67.7	4	69.5	6	71.0	5	70.4	7	71.5	7	1.1	5.6
인천	64.2	9	67.5	5	69.0	8	70.3	6	70.8	6	71.5	6	0.7	7.3
광주	67.1	3	68.9	2	70.6	4	75.7	1	72.1	4	72.7	3	0.6	5.6
대전	68.7	2	68.4	3	70.9	3	72.5	2	72.9	2	73.9	1	1.0	5.2
울산	63.8	10	66.4	7	68.5	9	67.0	13	69.9	8	70.6	8	0.7	6.8
세종	-	-	-	-	-	-	68.3	10	68.0	11	68.1	14	0.1	-
경기	64.9	7	65.8	9	69.3	7	69.8	7	69.4	9	70.2	9	0.8	5.3
강원	64.6	8	64.3	11	66.3	11	67.7	12	67.8	13	69.0	12	1.2	4.4
충북	63.2	11	66.2	8	68.2	10	68.4	9	67.9	12	69.2	10	1.3	6.0
충남	61.6	13	63.1	14	65.3	13	66.5	14	66.9	15	67.4	15	0.5	5.8
전북	62.9	12	64.3	12	66.2	12	67.9	11	67.6	14	68.7	13	1.1	5.8
전남	59.6	16	61.6	15	63.7	15	64.5	16	64.1	17	64.7	17	0.6	5.1
경북	59.7	15	61.1	16	63.4	16	63.6	17	64.2	16	65.1	16	0.9	5.4
경남	60.9	14	63.3	13	65.0	14	66.4	15	68.2	10	69.1	11	0.9	8.2
제주	65.8	5	67.0	6	73.0	1	69.0	8	72.6	3	72.6	4	0.0	6.8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79.7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78.0점), 강원도(77.7점), 전라북도(75.8점), 대전광역시(75.4점), 부산광역시(75.2점), 충청북도(75.0점)에서 성평등 수준이 7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광역시(67.4점), 경상북도(69.9점), 전라남도(70.2점), 경상남도(71.1점)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2016년과 비교해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울산광역시(8.2점)이었고 서울특별시(5.6점), 경상남도(5.5점), 인천광역시(5.4점), 부산광역시(5.2점) 등의 지역에서 5점 이상 개선되었다. 동기간 성평등 개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전라남도 2.1점 개선에 그쳤고, 대구광역시(2.6점), 충청북도(2.7점), 강원도(2.9점)에서 성평등 개선이 3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강원도의 성평등 개선이 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1.8점), 충청북도(1.2점), 울산광역시(1.2점)에서 1점 이상의 개선을 보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1.5점), 세종특별자치시(-1.1점), 부산광역시(-0.5점), 충청남도(-0.3점), 인천광역시(-0.3점),

전라남도(-0.1점) 등의 지역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에 따라,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16년 대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는 1~3위의 순위 상승이 있었고,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등은 1~3위의 순위 하락이 나타났다. 반면에, 울산광역시는 경제활동 분야에서 최하위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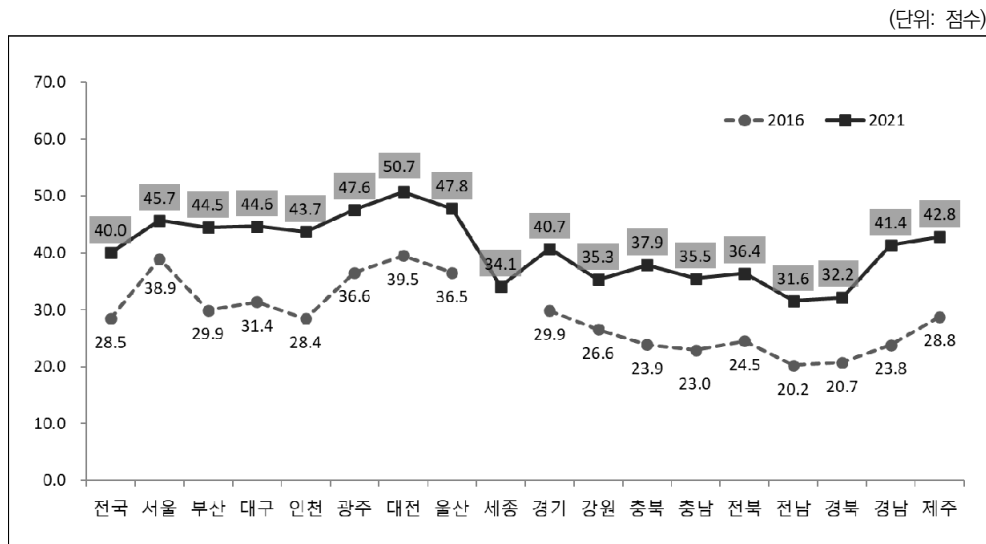
〈표 Ⅲ-5〉 경제활동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72.4	3	72.7	6	73.7	5	74.5	5	77.1	2	78.0	2	0.9	5.6
부산	70.0	8	70.5	9	71.5	11	74.4	6	75.7	3	75.2	6	-0.5	5.2
대구	71.3	7	73.9	2	74.3	3	74.6	3	73.1	11	73.9	10	0.8	2.6
인천	68.7	12	70.7	8	73.2	6	74.5	4	74.3	6	74.1	9	-0.2	5.4
광주	69.7	9	70.5	10	71.5	12	72.5	12	73.7	10	74.3	8	0.6	4.6
대전	71.7	6	73.1	4	74.4	2	74.2	7	74.9	5	75.4	5	0.5	3.7
울산	59.2	16	63.3	16	63.2	16	65.9	17	66.2	17	67.4	17	1.2	8.2
세종	-	-	-	-	-	-	73.4	10	74.1	7	73.0	12	-1.1	-
경기	69.1	10	70.8	7	72.3	8	72.4	13	72.3	13	73.0	11	0.7	3.9
강원	74.8	2	73.0	5	73.0	7	74.9	2	75.4	4	77.7	3	2.3	2.9
충북	72.3	4	73.5	3	74.2	4	74.0	8	73.8	9	75.0	7	1.2	2.7
충남	69.0	11	68.8	13	72.1	10	71.9	14	72.9	12	72.6	13	-0.3	3.6
전북	71.8	5	70.0	11	72.1	9	73.9	9	74.0	8	75.8	4	1.8	4.0
전남	68.1	13	69.3	12	69.3	13	72.5	11	70.3	15	70.2	15	-0.1	2.1
경북	66.4	14	68.0	14	68.8	14	68.5	16	69.7	16	69.9	16	0.2	3.5
경남	65.6	15	67.4	15	68.3	15	69.9	15	70.5	14	71.1	14	0.6	5.5
제주	75.4	1	76.6	1	77.2	1	78.4	1	81.2	1	79.7	1	-1.5	4.3

2)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이다. 2021년 기준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시도는 대전광역시이다.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점수를 보면, 대전광역시가 50.7점으로 유일하게 50점 이상이며, 울산광역시(47.8점), 광주광역시(47.6점), 서울특별시(45.7점), 대구광역시(44.6점), 부산광역시(44.5점), 인천광역시(43.7점) 등 특·광역시에서 1위에서 7위 까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 분야에서 전라남도(31.6점), 경상북도(32.2점), 세종특별자치도(34.1점), 강원도(35.3점) 등의 지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의사결정 분야는 모든 시도에서 분야별로 성평등이 가장 낮았으나 개선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6년과 비교해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이다. 2016년 대비 경상남도는 17.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이며, 인천광역시(15.3점), 부산광역시(14.6점), 충청북도(14.0점), 제주특별자치도(14.0점) 등에서 14점 이상의 개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평등 개선 수준으로 인해 경상 남도는 2016년 13위에서 2021년 9위로 상승하며, 동 기간 인천광역시는 9위에서 7위로, 충청북도는 12위에서 11위로 순위 상승을 보였다.

2020년과 비교하면 대구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이 2.5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 중 대구광역시를 포함하여 대전광역시(2.4점), 충청북도(2.4점), 경상북도(2.2점), 인천광역시(2.1점) 등의 지역이 2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이며, 서울특별시(0.8점), 광주광역시(0.8점), 강원도(0.8점), 울산광역시(0.7점) 등의 지역에서는 1점 미만의 비교적 낮은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표 Ⅲ-6〉 의사결정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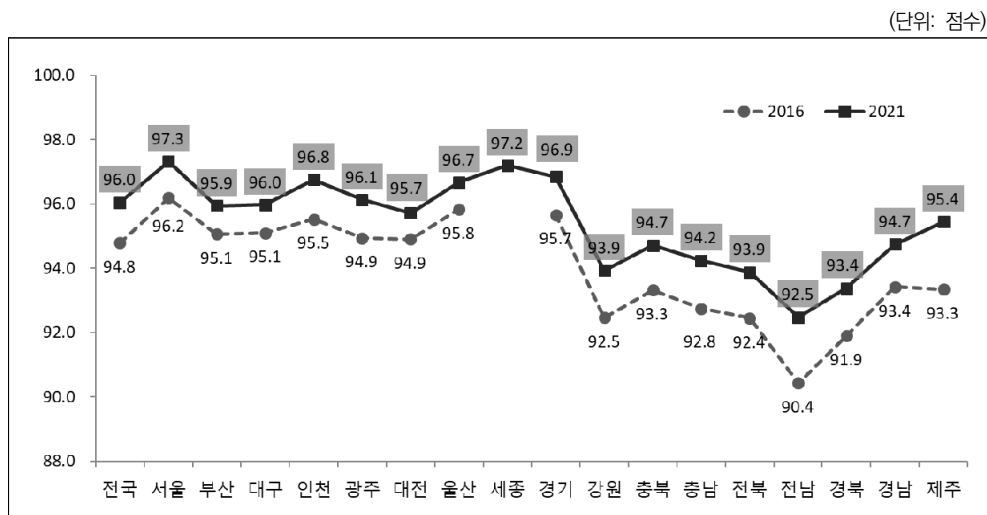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38.9	2	41.2	1	44.1	4	44.1	3	44.9	4	45.7	4	0.8	6.8
부산	29.9	6	31.6	8	41.6	6	43.1	4	43.2	5	44.5	6	1.3	14.6
대구	31.4	5	33.8	6	38.8	8	42.7	5	42.1	6	44.6	5	2.5	13.2
인천	28.4	9	36.1	5	37.9	9	40.2	7	41.6	7	43.7	7	2.1	15.3
광주	36.6	3	41.1	2	44.8	3	58.8	1	46.8	3	47.6	3	0.8	11.0
대전	39.5	1	37.2	4	43.0	5	47.9	2	48.3	1	50.7	1	2.4	11.2
울산	36.5	4	39.9	3	46.1	2	38.9	8	47.1	2	47.8	2	0.7	11.3
세종	-	-	-	-	-	-	35.2	11	33.0	15	34.1	15	1.1	-
경기	29.9	7	30.6	10	39.4	7	40.6	6	39.1	10	40.7	10	1.6	10.8
강원	26.6	10	27.2	14	32.9	12	34.7	13	34.5	13	35.3	14	0.8	8.7
충북	23.9	12	31.6	7	36.5	10	37.1	9	35.5	11	37.9	11	2.4	14.0
충남	23.0	14	27.3	13	30.3	15	33.8	15	33.9	14	35.5	13	1.6	12.5
전북	24.5	11	30.1	11	33.3	11	36.4	10	35.2	12	36.4	12	1.2	11.9
전남	20.2	16	24.5	15	30.4	14	29.3	17	29.8	17	31.6	17	1.8	11.4
경북	20.7	15	23.2	16	28.8	16	29.6	16	30.0	16	32.2	16	2.2	11.5
경남	23.8	13	28.9	12	32.6	13	35.0	12	39.6	9	41.4	9	1.8	17.6
제주	28.8	8	30.8	9	47.8	1	34.1	14	41.5	8	42.8	8	1.3	14.0

### 3)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8개 분야 중에서도 보건의 다음으로 높은 영역이다. 이 분야 성평등 수준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된다. 이 분야에서 성평등 상위권은 서울특별시(97.3점), 세종특별자치시(97.2점), 경기도(96.9점), 인천광역시(96.8점), 울산광역시(96.7점)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92.5점)이고, 경상북도(93.4), 전라북도(93.9점), 강원도(93.9점) 등에서 하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은 높고 지역 간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다.

성평등 수준이 완전평등 상태에 가까운 만큼 성평등 개선은 크지 않다. 2016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된 지역은 전라남도(2.1점)와 제주특별자치도(2.1점)이며, 다음으로 전라북도(1.5점), 경상북도(1.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 대비 성평등 개선은 대체로 최대 0.4점에서 최소 0.1점 사이로 이루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0.4점 개선이 일어났고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0.1점 개선을 보이며, 이외 지역은 0.2점과 0.3점의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Ⅲ-7〉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96.2	1	96.4	1	96.6	1	96.9	1	97.1	1	97.3	1	0.2	1.11
부산	95.1	6	95.2	6	95.4	7	95.6	8	95.8	8	95.9	8	0.1	0.8
대구	95.1	5	95.3	5	95.5	5	95.6	7	95.8	7	96.0	7	0.2	0.9
인천	95.5	4	95.8	4	96.0	4	96.3	5	96.5	4	96.8	4	0.3	1.3
광주	94.9	7	95.2	7	95.4	6	95.7	6	95.9	6	96.1	6	0.2	1.2
대전	94.9	8	95.1	8	95.2	8	95.4	9	95.6	9	95.7	9	0.1	0.8
울산	95.8	2	96.0	2	96.2	2	96.3	4	96.5	4	96.7	5	0.2	0.9
세종	-	-	-	-	-	-	96.4	2	96.8	2	97.2	2	0.4	-
경기	95.7	3	95.9	3	96.1	3	96.4	3	96.6	3	96.9	3	0.3	1.2
강원	92.5	13	92.8	13	93.1	13	93.4	14	93.7	14	93.9	14	0.2	1.4
충북	93.3	11	93.6	11	93.9	11	94.2	12	94.4	12	94.7	12	0.3	1.4
충남	92.8	12	93.1	12	93.4	12	93.7	13	94.0	13	94.2	13	0.2	1.4
전북	92.4	14	92.7	14	93.0	14	93.3	15	93.6	15	93.9	15	0.3	1.5
전남	90.4	16	90.9	16	91.3	16	91.7	17	92.1	17	92.5	17	0.4	2.1
경북	91.9	15	92.2	15	92.5	15	92.8	16	93.1	16	93.4	16	0.3	1.5
경남	93.4	9	93.7	10	94.0	10	94.2	11	94.5	11	94.7	11	0.2	1.3
제주	93.3	10	93.8	9	94.2	9	94.6	10	95.0	10	95.4	10	0.4	2.1

## 나. 여성의 인권·복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1.3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87.9점), 대구광역시(87.7점), 경기도(87.6점), 부산광역시(87.6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 영역의 하위권은 전라북도(83.4점), 전라남도(84.69점), 울산광역시(85.2점), 충청남도(85.2점)가 차지한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와의 차이는 7.9점으로 지역별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차이가 이전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8〉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83.3	13	83.1	16	84.3	14	84.6	17	85.9	15	86.4	9	0.5	3.1
부산	88.1	2	87.8	5	88.3	2	88.9	2	89.2	4	87.6	5	-1.6	-0.5
대구	87.8	4	88.4	3	87.6	5	88.4	4	89.6	2	87.7	3	-1.9	-0.1
인천	84.5	11	84.6	13	85.5	10	86.0	11	86.5	13	85.6	13	-0.9	1.1
광주	87.0	5	85.3	8	83.9	15	86.7	8	87.7	6	87.1	7	-0.6	0.1
대전	85.8	9	85.8	7	85.3	11	86.8	7	88.1	5	87.9	2	-0.2	2.1
울산	83.1	15	84.5	14	85.6	9	85.8	13	86.4	14	85.2	15	-1.2	2.1
세종	-	-	-	-	-	-	91.0	1	90.9	1	91.3	1	0.4	-
경기	84.4	12	85.1	10	85.8	8	86.5	9	87.3	7	87.6	4	0.3	3.2
강원	87.0	6	88.0	4	87.0	6	86.3	10	87.0	9	86.2	10	-0.8	-0.8
충북	83.3	14	85.0	11	86.4	7	85.9	12	85.8	16	86.5	8	0.7	3.2
충남	82.0	16	83.5	15	83.7	16	85.3	16	86.6	12	85.2	14	-1.4	3.2
전북	91.9	1	91.2	1	89.2	1	87.9	5	87.1	8	83.4	17	-3.7	-8.5
전남	87.9	3	89.1	2	87.9	4	86.8	6	85.3	17	84.9	16	-0.4	-3.0
경북	84.7	10	85.0	12	84.6	12	85.4	15	86.9	10	85.7	12	-1.2	1.0
경남	86.2	7	85.2	9	84.4	13	85.4	14	86.9	11	85.9	11	-1.0	-0.3
제주	85.9	8	87.3	6	88.3	3	88.5	3	89.3	3	87.4	6	-1.9	1.5

지역별 성평등 개선 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3.2점의 성평등 개선을 보인다. 17개 지역 중 이틀 세 지역을 포함하여 대전광역시(2.1점)와 울산광역시(2.1점)에서 2점 이상의 개선을 보였다. 반면 동기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 이 영역에서 성평등이 악화하여 각각 8.5점과 3.0점 성평등이 감소했고, 강원도(-0.8점), 부산광역시(-0.5점), 경상남도(-0.3점), 대구광역시(-0.1점) 등의 지역에서 성평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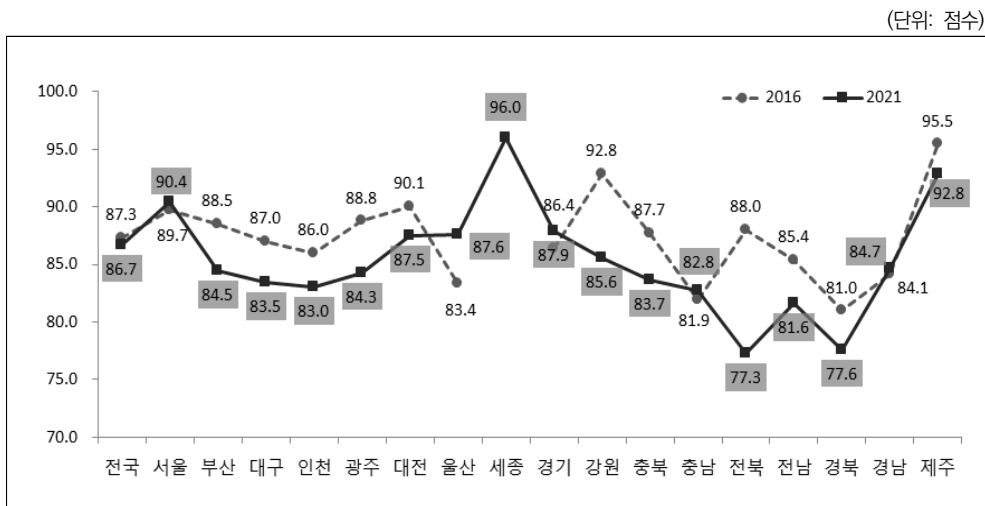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모든 시도에서 8개의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분야이다. 2021년 기준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92.8점), 서울특별시(90.4점), 경기도(87.9점), 울산광역시(87.6점)가 상위권에 위치한다. 반면, 전라북도(77.3점)가 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았고, 경상북도(77.6점), 전라남도(81.6점), 충청남도(82.8점) 등의 지역이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2016년도와 비교하여 울산광역시의 복지 분야 성평등 개선이 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1.5점), 충청남도(0.9점), 서울특별시(0.7점), 경상남도(0.6점) 지역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에, 이외 지역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라북도는 2016년 대비 10.7점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며, 강원도(-7.2점), 광주광역시(-4.5점), 부산광역시(-4.0점), 충청북도(-4.0점) 등에서 4점 이상의 성평등 수준 하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1.0점 개선되며, 이외 지역은 복지분야의 성평등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라북도는 전년 대비 8.3점의 감소를 보이며,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도 4.0점 이상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7]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Ⅲ-9〉 복지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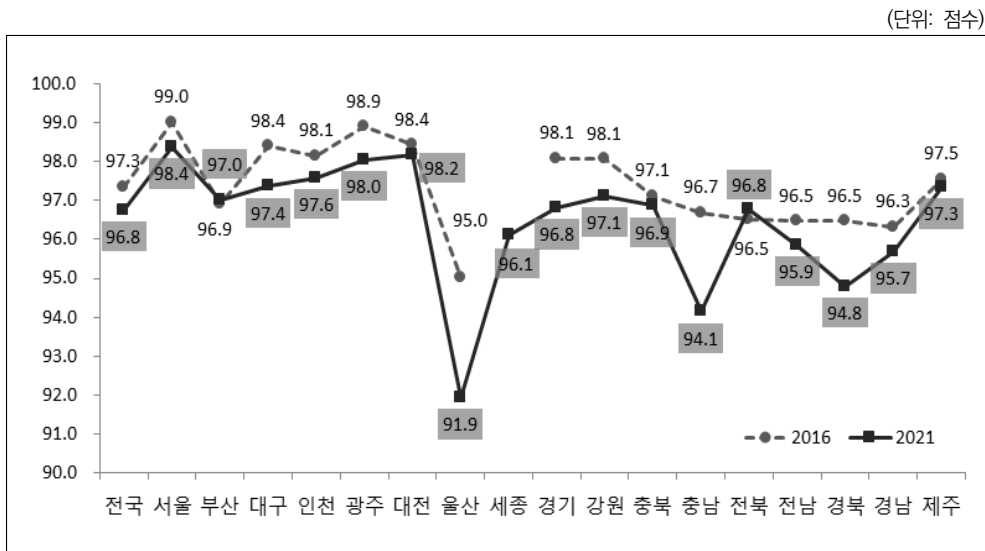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89.7	4	90.8	5	90.7	3	90.8	4	90.6	3	90.4	3	-0.2	0.7
부산	88.5	6	90.2	7	89.5	5	89.0	7	87.9	7	84.5	9	-3.4	-4.0
대구	87.0	9	88.9	9	88.2	8	87.9	8	87.0	10	83.5	12	-3.5	-3.5
인천	86.0	11	87.6	11	87.5	10	87.4	11	85.9	13	83.0	13	-2.9	-3.0
광주	88.8	5	90.8	4	89.0	6	89.2	6	87.3	9	84.3	10	-3.0	-4.5
대전	90.1	3	91.3	3	90.5	4	89.8	5	88.9	5	87.5	6	-1.4	-2.6
울산	83.4	14	85.4	14	87.2	11	87.1	12	87.8	8	87.6	5	-0.2	4.2
세종	-	-	-	-	-	-	92.9	2	95.0	2	96.0	1	1.0	-
경기	86.4	10	87.5	12	87.7	9	87.9	9	88.2	6	87.9	4	-0.3	1.5
강원	92.8	2	94.9	2	93.3	2	91.7	3	89.7	4	85.6	7	-4.1	-7.2
충북	87.7	8	89.0	8	87.2	12	86.6	13	86.2	12	83.7	11	-2.5	-4.0
충남	81.9	15	85.0	15	84.9	15	85.1	16	84.9	16	82.8	14	-2.1	0.9
전북	88.0	7	90.7	6	89.0	7	87.8	10	85.6	14	77.3	17	-8.3	-10.7
전남	85.4	12	88.1	10	86.7	13	86.3	15	85.5	15	81.6	15	-3.9	-3.8
경북	81.0	16	83.0	16	82.5	16	82.6	17	82.3	17	77.6	16	-4.7	-3.4
경남	84.1	13	86.5	13	86.5	14	86.6	14	86.9	11	84.7	8	-2.2	0.6
제주	95.5	1	96.1	1	95.8	1	95.8	1	95.2	1	92.8	2	-2.4	-2.7

## 2) 보건 분야

보건 분야는 8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평등을 보이며,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세 지역을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95.0점 이상의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2021년 기준 이 분야에서 서울특별시가 98.4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98.2점), 광주광역시(98.0점), 대구광역시(97.4점) 등이 상위권에 위치한다. 보건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91.9점이며 충청남도(94.1점), 경상북도(94.8점), 경상남도(95.7점)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건 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성평등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전라북도(0.3점)와 부산광역시(0.1점)이며, 이외 지역은 모두 성평등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7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는 2016년 대비 3.1점 감소하여 가장 크게 성평등 수준이 낮아졌고, 충청남도(-2.6점), 경상북도(-1.7점), 대구광역시(-1.0점), 강원도(-1.0점)에서 1점 이상 성평등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지역보다 낮아진 지역이 더 많게 나타난다. 2020년 대비 보건 분야 성평등 개선 지역은 충청북도(0.7점), 서울특별시(0.6점), 전라남도(0.6점), 강원도(0.3점), 광주광역시(0.2점) 등이며, 성평등이 악화한 지역은 경상북도(-1.4점) 등 11개 지역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에는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의 변화가 없었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8]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Ⅲ-10〉 보건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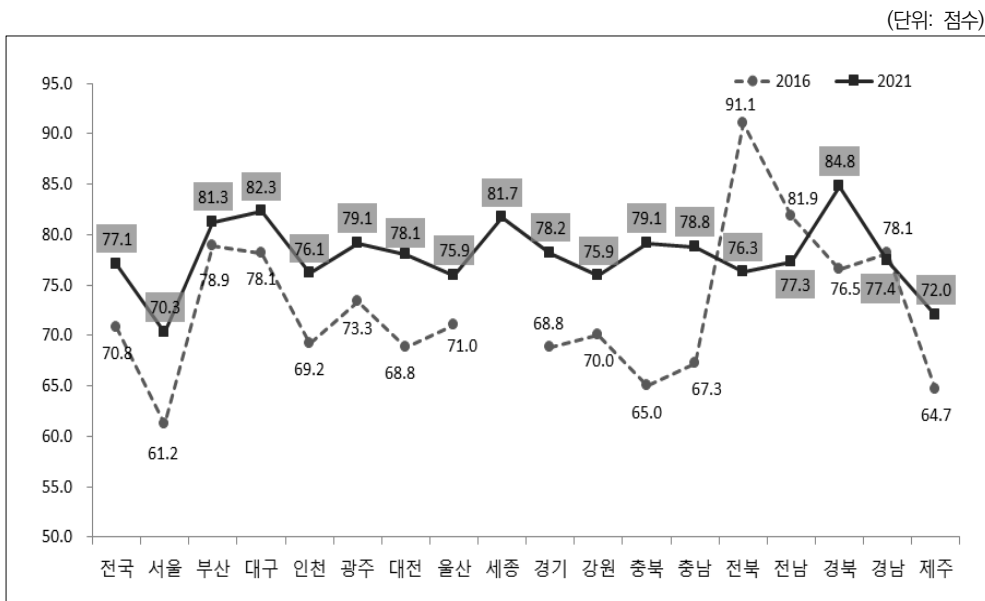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99.0	1	98.2	2	98.9	2	97.5	7	97.8	5	98.4	1	0.6	-0.6
부산	96.9	10	97.7	6	98.1	6	97.5	8	97.2	9	97.0	8	-0.2	0.1
대구	98.4	4	98.0	4	97.8	9	97.0	9	97.9	4	97.4	5	-0.5	-1.0
인천	98.1	5	97.7	7	98.3	3	97.6	6	97.6	7	97.6	4	0.0	-0.5
광주	98.9	2	98.0	5	97.9	7	98.3	3	97.8	6	98.0	3	0.2	-0.9
대전	98.4	3	98.8	1	98.1	5	98.5	2	98.9	1	98.2	2	-0.7	-0.2
울산	95.0	16	95.2	16	95.5	16	94.1	17	93.4	17	91.9	17	-1.5	-3.1
세종	-	-	-	-	-	-	96.6	10	96.5	11	96.1	12	-0.4	-
경기	98.1	6	98.0	3	98.2	4	97.6	5	97.3	8	96.8	10	-0.5	-1.3
강원	98.1	7	97.6	8	96.9	11	95.6	15	96.8	10	97.1	7	0.3	-1.0
충북	97.1	9	96.8	13	97.7	10	95.8	14	96.2	12	96.9	9	0.7	-0.2
충남	96.7	11	96.6	14	96.7	13	95.9	12	95.3	15	94.1	16	-1.2	-2.6
전북	96.5	12	97.5	10	97.8	8	97.9	4	98.1	3	96.8	11	-1.3	0.3
전남	96.5	14	97.5	9	96.3	14	96.3	11	95.3	16	95.9	13	0.6	-0.6
경북	96.5	13	97.1	12	96.8	12	95.9	13	96.2	13	94.8	15	-1.4	-1.7
경남	96.3	15	96.4	15	96.1	15	95.0	16	95.9	14	95.7	14	-0.2	-0.6
제주	97.5	8	97.4	11	99.2	1	98.5	1	98.5	2	97.3	6	-1.2	-0.2

### 3) 안전 분야

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도별 차이가 크고 증감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2021년 기준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경상북도(84.8점)이며, 대구광역시(82.3점), 세종특별자치시(81.7점), 부산광역시(81.3점) 광주광역시(79.1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안전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70.3점)이며, 제주특별자치도(72.0점), 강원도(75.9점), 울산광역시(75.9점)가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안전 분야에서의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2016년도와 비교하여 충청북도가 14.1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충청남도(11.5점), 경기도(9.4점), 대전광역시(9.3), 서울특별시(9.1점) 지역은 9점 이상의 높은 개선을 보였다. 반면에 전라북도는 2016년 대비 14.8점 성평등 수준이 떨어지며, 전라남도(-4.6점), 경상남도(-0.7점) 등에서는 안전 분야 성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는 2016년 14위에서 2021년 6위로 상승하며, 경기도는 12위에서 8위로, 대전광역시는 11위에서 9위로 순위 상승이 나타나지만, 전라북도는 2016년 1위에서 2021년 12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한다. 한편 2020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충청북도로 4.2점 상승하였고 그 외 경상북도(2.6점)와 전라남도(2.2점)에서 2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전 분야 성평등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9]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Ⅲ-11〉 안전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61.2	16	60.4	16	63.2	16	65.5	17	69.3	17	70.3	17	1.0	9.1
부산	78.9	3	75.6	4	77.2	3	80.4	2	82.5	2	81.3	4	-1.2	2.4
대구	78.1	4	78.2	3	76.9	4	80.2	3	83.9	1	82.3	2	-1.6	4.2
인천	69.2	10	68.5	12	70.7	10	73.0	12	76.0	12	76.1	13	0.1	6.9
광주	73.3	7	67.1	15	64.9	15	72.4	13	77.9	7	79.1	5	1.2	5.8
대전	68.8	11	67.3	14	67.3	14	72.0	14	76.4	10	78.1	9	1.7	9.3
울산	71.0	8	72.9	6	74.0	7	76.2	7	78.0	6	75.9	14	-2.1	4.9
세종	-	-	-	-	-	-	83.6	1	81.2	4	81.7	3	0.5	-
경기	68.8	12	69.7	9	71.3	8	74.0	11	76.3	11	78.2	8	1.9	9.4
강원	70.0	9	71.4	8	71.0	9	71.5	15	74.4	15	75.9	15	1.5	5.9
충북	65.0	14	69.2	10	74.4	6	75.4	8	74.9	14	79.1	6	4.2	14.1
충남	67.3	13	69.0	11	69.6	13	75.0	9	79.6	5	78.8	7	-0.8	11.5
전북	91.1	1	85.5	1	80.7	2	78.0	4	77.5	9	76.3	12	-1.2	-14.8
전남	81.9	2	81.5	2	80.9	1	77.9	5	75.1	13	77.3	11	2.2	-4.6
경북	76.5	6	74.8	5	74.4	5	77.7	6	82.2	3	84.8	1	2.6	8.3
경남	78.1	5	72.6	7	70.6	11	74.8	10	77.8	8	77.4	10	-0.4	-0.7
제주	64.7	15	68.3	13	69.8	12	71.1	16	74.2	16	72.0	16	-2.2	7.3

#### 다. 성평등 의식·문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은 부산광역시(78.8점)가 가장 앞서며, 울산광역시(78.0점), 제주특별자치도(77.5점), 서울특별시(76.9점), 경기도(76.1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광주광역시(70.1점)이며 인천광역시(73.4점), 충청남도(73.5점), 전라남도(74.3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2016년도와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5.8점 개선되었으며, 경상북도(5.3점), 부산광역시(5.1점) 등의 지역에서 성평등 개선이

5점 이상으로 높았다.

2020년도와 비교하면 부산광역시가 3.4점으로 가장 높은 개선을 보였고, 대전광역시가 1.3점의 상승하여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 전라북도(1.2점)와 세종특별자치시(1.1점)에서도 1점 이상 개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년 대비 울산광역시는 2.9점 하락하였고, 광주광역시(-1.8점), 충청남도(-1.7점), 경상북도(-1.1점) 등에서 1점 이상 성평등 점수가 하락하였다.

〈표 III-12〉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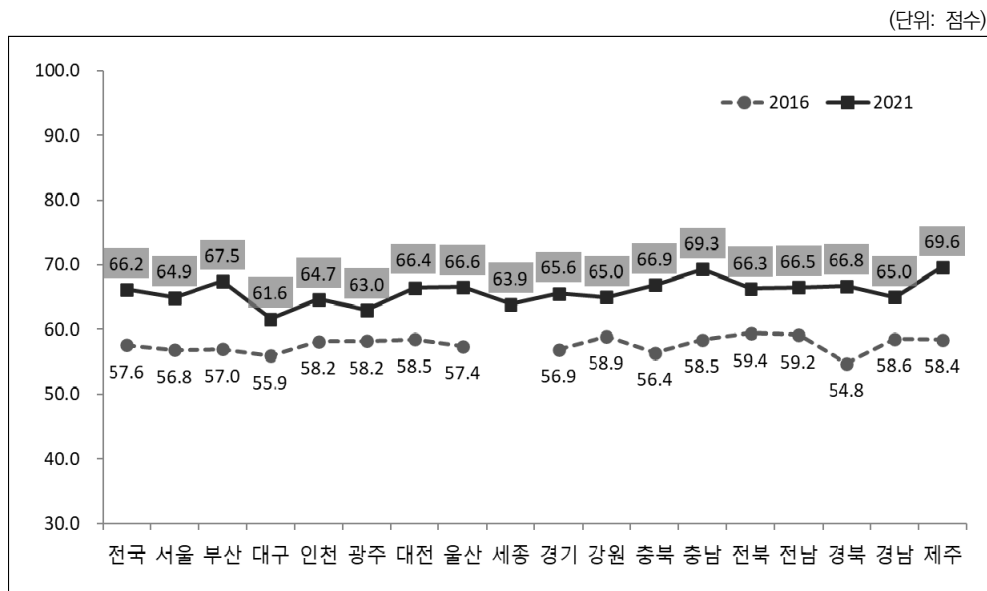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72.2	7	73.5	7	75.0	4	75.4	8	76.3	5	76.9	4	0.6	4.7
부산	73.7	3	74.3	4	74.7	6	74.0	11	75.4	8	78.8	1	3.4	5.1
대구	71.8	9	74.0	5	75.5	3	74.5	10	74.6	11	74.7	12	0.1	2.9
인천	74.2	2	73.0	9	73.2	12	73.9	12	73.5	16	73.4	16	-0.1	-0.8
광주	72.7	6	73.1	8	73.0	13	73.7	13	71.9	17	70.1	17	-1.8	-2.6
대전	74.6	1	74.6	3	73.3	11	74.7	9	73.6	15	74.9	10	1.3	0.3
울산	73.5	4	76.1	1	78.4	1	78.5	1	80.9	1	78.0	2	-2.9	4.5
세종	-	-	-	-	-	-	72.7	15	74.6	10	75.7	6	1.1	-
경기	73.4	5	73.9	6	74.9	5	75.6	7	75.7	7	76.1	5	0.4	2.7
강원	71.2	12	71.3	15	72.0	15	72.5	16	73.9	13	74.6	13	0.7	3.4
충북	71.2	13	72.6	11	74.7	7	76.9	4	75.9	6	75.1	9	-0.8	3.9
충남	70.8	15	72.1	14	73.9	10	76.2	6	75.2	9	73.5	15	-1.7	2.7
전북	72.1	8	72.2	13	70.5	16	71.4	17	73.7	14	74.9	11	1.2	2.8
전남	70.9	14	71.1	16	72.7	14	73.5	14	74.0	12	74.3	14	0.3	3.4
경북	70.0	16	72.5	12	74.5	8	76.3	5	76.4	3	75.3	8	-1.1	5.3
경남	71.2	11	75.9	2	74.5	9	77.5	3	76.3	4	75.5	7	-0.8	4.3
제주	71.7	10	72.9	10	75.9	2	78.1	2	77.9	2	77.5	3	-0.4	5.8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분야

가족 분야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8개 영역 중 7번째로 성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성평등 개선은 큰 편이다. 전반적으로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도지역이 특·광역시에 비해 높았다. 2021년 기준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69.6점)이며 충청남도(69.3점), 부산광역시(67.5점), 충청북도(66.9점), 경상북도(66.8점)가 성평등 상위권 지역이며, 대구광역시(61.6점), 광주광역시(63.0점), 세종특별자치시(63.9점), 부산광역시(67.5점)가 하위권에 위치한다.

2016년과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성평등 점수의 개선을 보였으며, 특히 경상북도가 12.0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11.2점), 충청남도(10.8점), 충청북도(10.5점), 부산광역시(10.5점)에서 10점 이상 높은 개선이 보였다. 한편, 2020년과 비교하여도 대부분 지역이 개선되는데 전년 대비 부산광역시가 5.5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대전광역시(5.4점), 충청북도(3.9점) 등에서 개선 수준이 높았다. 반면, 울산광역시(-4.4점)와 경상남도(-1.7점)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III-13〉 가족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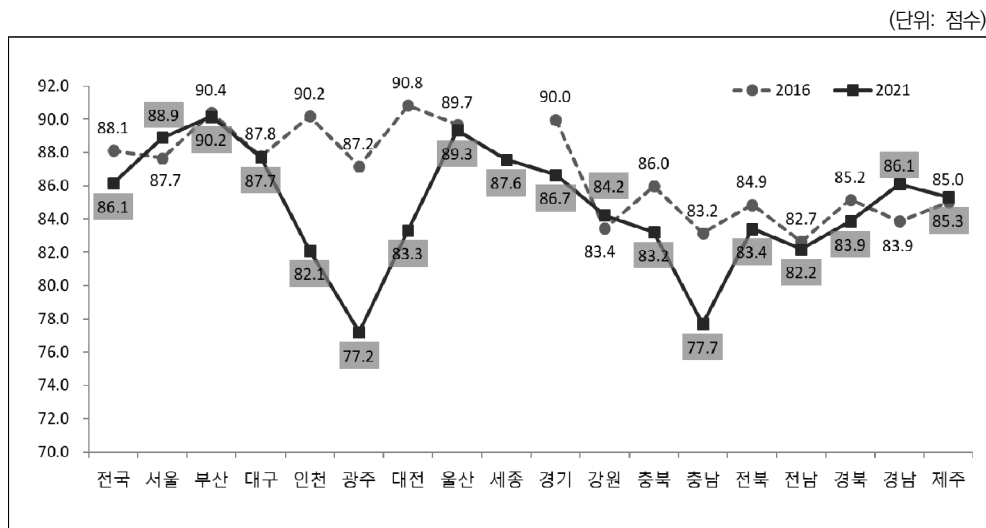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56.8	13	58.3	11	61.0	8	61.7	12	63.0	11	64.9	13	1.9	8.1
부산	57.0	11	57.9	14	59.9	11	62.4	11	62.0	14	67.5	3	5.5	10.5
대구	55.9	15	58.1	12	60.6	10	58.2	17	60.2	17	61.6	17	1.4	5.7
인천	58.2	9	56.6	16	57.6	15	60.1	16	62.4	13	64.7	14	2.3	6.5
광주	58.2	8	57.5	15	58.2	14	60.7	14	62.9	12	63.0	16	0.1	4.8
대전	58.5	5	58.6	10	56.5	16	61.5	13	61.0	15	66.4	8	5.4	7.9
울산	57.4	10	60.4	3	65.8	1	66.5	3	71.0	1	66.6	6	-4.4	9.2
세종	-	-	-	-	-	-	60.5	15	61.0	16	63.9	15	2.9	-
경기	56.9	12	58.1	13	60.7	9	62.6	10	64.0	9	65.6	10	1.6	8.7
강원	58.9	3	59.5	6	61.2	7	62.8	8	64.1	8	65.0	11	0.9	6.1
충북	56.4	14	59.1	8	59.7	12	63.6	7	63.0	10	66.9	4	3.9	10.5
충남	58.5	6	59.6	5	62.2	5	65.6	4	68.8	2	69.3	2	0.5	10.8
전북	59.4	1	59.7	4	58.5	13	62.7	9	66.1	6	66.3	9	0.2	6.9
전남	59.2	2	61.5	2	63.8	4	64.9	6	65.5	7	66.5	7	1.0	7.3
경북	54.8	16	58.9	9	62.2	6	64.9	5	66.8	4	66.8	5	0.0	12.0
경남	58.6	4	70.5	1	65.3	2	67.8	2	66.7	5	65.0	12	-1.7	6.4
제주	58.4	7	59.5	7	64.9	3	68.5	1	68.4	3	69.6	1	1.2	11.2

## 2) 문화·정보 분야

문화·정보 분야는 시도 간 격차가 높은 분야이다.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90.2점이며, 울산광역시(89.3점), 서울특별시(88.9점), 대구광역시(87.7점), 세종특별자치도(87.6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77.2점)이고, 충청남도(77.7점), 인천광역시(82.1점), 전라남도(82.2점)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13.0점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2016년 대비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시도가 더 많다. 2016년 대비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경상남도로 2.2점 향상되었고 서울특별시(1.2점), 강원도(0.8점), 제주특별자치도(0.3점)에서 소폭 개선되었다. 반면, 광주광역시(10.0점 하락했고 인천광역시(-8.1점), 대전광역시(-7.5점), 충청남도(-5.5점) 등에서는 5점 이상의 성평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 분야 성평등 수준이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전라북도로 2.0점 향상되었고 부산광역시(1.5점), 강원도(0.6점), 경상남도(0.2점)에서 소폭 개선되었다. 반면, 충청북도의 성평등 수준은 전년 대비 -5.6점 하락했고, 충청남도(-4.0점), 광주광역시(-3.6점), 대전광역시(-2.9점), 인천광역시(-2.5점), 경상북도(-2.1점), 제주특별자치도(-2.0점) 등의 하락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표 Ⅲ-14〉 문화·정보 분야의 지역별 수준 변화 비교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20년 대비	2016년 대비
서울	87.7	7	88.8	7	89.0	7	89.1	4	89.6	2	88.9	3	-0.7	1.2
부산	90.4	2	90.6	2	89.4	5	85.7	13	88.7	5	90.2	1	1.5	-0.2
대구	87.8	6	90.0	4	90.4	2	90.7	1	88.9	3	87.7	4	-1.2	-0.1
인천	90.2	3	89.3	6	88.7	8	87.7	8	84.6	12	82.1	15	-2.5	-8.1
광주	87.2	8	88.7	8	87.9	9	86.7	12	80.8	17	77.2	17	-3.6	-10.0
대전	90.8	1	90.6	3	90.2	3	87.8	7	86.2	9	83.3	12	-2.9	-7.5
울산	89.7	5	91.8	1	91.1	1	90.4	2	90.8	1	89.3	2	-1.5	-0.4
세종	-	-	-	-	-	-	85.0	14	88.2	6	87.6	5	-0.6	-
경기	90.0	4	89.8	5	89.1	6	88.6	5	87.5	7	86.7	6	-0.8	-3.3
강원	83.4	14	83.0	14	82.8	14	82.2	15	83.6	13	84.2	9	0.6	0.8
충북	86.0	9	86.2	10	89.6	4	90.2	3	88.8	4	83.2	13	-5.6	-2.8
충남	83.2	15	84.6	13	85.6	12	86.8	11	81.7	15	77.7	16	-4.0	-5.5
전북	84.9	12	84.6	12	82.6	15	80.1	17	81.4	16	83.4	11	2.0	-1.5
전남	82.7	16	80.8	16	81.5	16	82.1	16	82.4	14	82.2	14	-0.2	-0.5
경북	85.2	10	86.2	11	86.9	11	87.7	9	86.0	10	83.9	10	-2.1	-1.3
경남	83.9	13	81.3	15	83.6	13	87.2	10	85.9	11	86.1	7	0.2	2.2
제주	85.0	11	86.2	9	86.9	10	87.8	6	87.3	8	85.3	8	-2.0	0.3

### 3. 지표별 성평등 수준 비교

지표별 지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는 성비로 측정된 값으로 비교하며, 비교 기준 연도는 2021년이다. 여기서 성비는 일부 지표에 대해 대상 집단의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며, 여성 수준이 남성 수준보다 높으면 완전 성평등 수준인 100점으로 제한하였다.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지역별 비교는 다음과 같다.

#### 가. 경제활동 분야 지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로 구성 되어 경제활동 참여 수준, 근로조건, 안정성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1위는 제주특별자치도(79.7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활동 분야를 구성하는 세 지표 중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성별 임금격차 성비에서 1위를 보이며,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84.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도(81.9점), 서울특별시(77.0점), 전라남도(76.8점), 충청북도(75.4점) 순으로 높다. 반면에 울산광역시(66.6점), 경상북도(69.6점), 세종특별자치시(69.9점), 경기도(70.5점)는 이 지표의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의 경우 1순위인 제주특별자치도와 17순위인 울산광역시의 격차는 17.9점으로 비교적 높다.

성별 임금격차 성비는 모든 지역이 70.0점 이하로 낮은 편이며, 제주특별자치도(68.8점) 다음으로 서울특별시(67.9점), 대구광역시(66.7점), 전라북도(66.7점), 부산광역시(66.0점) 등이 높았고, 전라남도(55.1점), 울산광역시(56.3점), 경상북도(58.7점), 경상남도(62.5점)에서 낮았다.

상용근로자 성비는 서울특별시(89.1점)가 가장 높으며, 대전광역시(87.0점), 부산광역시(86.4점), 충청북도(86.0점), 세종특별자치도(85.8점) 순으로 높았다. 상용근로자 성비가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78.1점), 전라남도(78.7점), 울산광역시(79.4점), 경상북도(81.4점)이며, 1순위 지역과 17순위 지역의 격차는 11.0점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경제활동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성비		상용근로자 성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77.0	3	67.9	2	89.1	1
부산	73.3	9	66.0	5	86.4	3
대구	71.7	13	66.7	3	83.4	12
인천	72.5	11	64.7	8	85.2	9
광주	74.6	7	63.3	12	85.0	11
대전	74.1	8	65.0	7	87.0	2
울산	66.6	17	56.3	16	79.4	15
세종	69.9	15	63.3	11	85.8	5
경기	70.5	14	63.6	9	85.0	10
강원	81.9	2	65.5	6	85.6	7
충북	75.4	5	63.5	10	86.0	4
충남	72.2	12	63.2	13	82.5	13
전북	75.3	6	66.7	4	85.5	8
전남	76.8	4	55.1	17	78.7	16
경북	69.6	16	58.7	15	81.4	14
경남	72.6	10	62.5	14	78.1	17
제주	84.5	1	68.8	1	85.7	6

## 나. 의사결정 분야 지표

의사결정 분야는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정치, 행정, 민간의 대표성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1위는 대전광역시(50.7점)이다. 대전광역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위(51.0점), 관리자 비율 성비 2위(38.7점), 지자체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2위(76.0점)로 높은 순위를 보이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가 다소 낮은 8위(37.2점)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대전광역시가 51.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49.6점), 경기도(47.1점), 서울특별시(44.3점), 울산광역시(42.4점) 순으로 성평등이 높았다. 이 지표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20.9점이며, 전라남도(21.4점), 전라북도(22.6점), 경상남도(25.0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역인 대전광역시와 가장 낮은 지역 경상북도의 격차는 30.1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부산광역시가 51.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50.2점), 제주특별자치도(45.7점), 광주광역시(43.0점), 서울특별시(41.3점) 순으로 높았고, 충청남도(20.9점), 경기도(25.7점), 경상북도(26.1점), 전라남도(27.9점)의 지역이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1순위인 부산광역시와 17순위 충청남도의 격차는 30.3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Ⅲ-16〉 의사결정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44.3	4	41.3	5	22.2	10	74.9	3
부산	38.6	6	51.2	1	24.9	9	63.2	12
대구	35.5	8	41.1	6	31.3	6	70.7	7
인천	37.0	7	36.5	9	21.9	11	79.5	1
광주	49.6	2	43.0	4	35.1	4	62.8	14
대전	51.0	1	37.2	8	38.7	2	76.0	2
울산	42.4	5	50.2	2	33.8	5	64.8	10
세종	28.0	10	37.5	7	0.0*	17	71.0	5
경기	47.1	3	25.7	16	21.1	13	69.0	9
강원	25.8	13	36.1	10	26.1	8	53.3	17
충북	26.6	11	36.0	11	14.6	15	74.4	4
충남	31.1	9	20.9	17	20.0	14	70.0	8
전북	22.6	15	29.9	13	36.0	3	57.2	16
전남	21.4	16	27.9	14	14.2	16	62.8	13
경북	20.9	17	26.1	15	21.5	12	60.1	15
경남	25.0	14	30.1	12	46.2	1	64.1	11
제주	26.1	12	45.7	3	28.8	7	70.7	6

주: \* 세종특별자치도는 여성 관리자가 백명 단위에서 잡히지 못해 통계적으로 0.0의 값을 가지게 됨

관리자 비율 성비는 경상남도가 46.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38.7점), 전라북도(36.0점), 광주광역시(35.1점), 울산광역시(33.8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관리자 비율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도(0.0점<sup>11)</sup>)이며, 충청남도(14.2점), 충청북도(14.6점), 충청남도(20.0점)가 이 지표의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1위 지역과 17위 지역의 성평등 수준 격차는 46.2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는 인천광역시(79.5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76.0점), 서울특별시(74.9점), 충청북도(74.4점), 세종특별자치시(71.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53.3점)이며 전라북도(57.2점), 경상북도(60.1점), 광주광역시(62.8점) 순으로 낮았다. 1위 지역인 인천광역시와 17위 지역인 강원도의 성평등 격차는 26.2점으로 역시 20점 이상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 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

교육·직업 훈련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로 교육에서의 기회 평등을 측정하고 있다.

교육·직업 훈련 분야 지표 중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가 전 지역 100.0점이므로 평균교육연수 성비 1순위인 서울특별시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다.

평균교육연수 성비는 서울특별시가 94.7점으로 1위이며, 세종특별자치시(94.4점), 경기도(93.7점), 인천광역시(93.5점), 울산광역시(93.4점) 순으로 높다. 반면에 전라남도(85.0점), 경상북도(86.8점), 전라북도(87.8점), 강원도(87.9점)는 평균교육연수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해당 지표는 1위와 17위간 성비 차이는 9.7점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1) 세종특별자치도는 여성 관리자가 백명 단위에서 관리자로 통계가 잡히지 못해 0.0의 값을 가짐

〈표 Ⅲ-17〉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평균교육연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94.7	1	100.0	1
부산	91.9	8	100.0	1
대구	91.9	7	100.0	1
인천	93.5	4	100.0	1
광주	92.3	6	100.0	1
대전	91.4	9	100.0	1
울산	93.4	5	100.0	1
세종	94.4	2	100.0	1
경기	93.7	3	100.0	1
강원	87.9	14	100.0	1
충북	89.4	12	100.0	1
충남	88.5	13	100.0	1
전북	87.8	15	100.0	1
전남	85.0	17	100.0	1
경북	86.8	16	100.0	1
경남	89.5	11	100.0	1
제주	90.9	10	100.0	1

라. 복지 분야 지표

복지 분야 성평등 지표는 공적연금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하여 빈곤과 미래 소득 보장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복지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96.0점)이다. 복지 분야 지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적연금 가입자 지표가 97.1점으로 7위, 기초생활수급자 지표는 95.0점으로 1위를 차지한다.

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두 100.0점으로 완전성평등 상태에 도달했고, 대구광역시가 98.2점으로 상위권에

포함된다. 반면, 충청남도가 이 지표 성비가 가장 낮아 82.9점이었고 경상북도(83.8점), 경기도(85.6점), 서울특별시(87.0점) 등의 지역이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93.8점), 경기도(90.3점), 울산광역시(86.9점), 제주특별자치도(85.7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라북도(54.6점), 광주광역시(68.5점), 대구광역시(68.7점), 강원도(71.1점)가 기초생활수급자 성비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전반적으로 성평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코로나19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되고, 더욱이 이 증가에서 여성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이다.

〈표 III-18〉 복지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87.0	14	93.8	2
부산	97.7	6	71.2	13
대구	98.2	5	68.7	15
인천	90.3	11	75.7	10
광주	100.0	1	68.5	16
대전	93.1	8	82.0	7
울산	88.3	13	86.9	4
세종	97.1	7	95.0	1
경기	85.6	15	90.3	3
강원	100.0	1	71.1	14
충북	91.2	10	76.1	9
충남	82.9	17	82.6	6
전북	100.0	1	54.6	17
전남	91.4	9	71.8	11
경북	83.8	16	71.5	12
경남	88.9	12	80.4	8
제주	100.0	1	85.7	5

## 마. 보건 분야 지표

보건 분야 성평등 지표는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수준과 관리, 정신 건강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보건 분야 지표는 모든 지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고 지역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보건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98.4점)이다. 서울특별시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6위, 건강검진수검률 성비에서 1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7위를 보이며, 지표들이 완전성평등 수준이거나 가까운 수준을 보인다.

지표별로 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는 지역 대부분이 완전성평등 수준에 가까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98.4점)이며 대전광역시(97.9점), 광주광역시(97.7점), 경기도(97.5점), 제주특별자치도(97.4점)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전라남도(95.9점), 충청남도(96.0점), 강원도(96.0점), 전라북도(96.3점) 등에 다소 낮기는 했으나 지역 격차는 크지 않다.

건강검진수검률 성비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점으로 1순위이며 광주광역시(99.0점), 대전광역시(98.9점), 전라북도(97.8점) 순으로 높았다. 지역 중 울산광역시가 86.2점으로 가장 낮았고 충청남도(88.9점), 세종특별자치시(90.4점), 경상남도(91.5점)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위권에 속하나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비를 보인다.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9.6점으로 1위로 나타났고, 인천광역시(99.3점), 충청북도(99.1점), 강원도(98.7점), 경상남도(98.6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표의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92.3점)이며, 제주특별자치도(94.6점), 경상북도(95.8점), 전라북도(96.2점) 등에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나,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지역 간 성별 격차가 크지 않고 모든 지역이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Ⅲ-19〉 보건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sup>12)</sup> 성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97.3	6	100.0	1	97.8	7
부산	97.0	11	96.9	7	97.2	13
대구	97.1	9	97.5	6	97.5	11
인천	97.2	8	96.2	9	99.3	2
광주	97.7	3	99.0	3	97.5	10
대전	97.9	2	98.9	4	97.6	8
울산	97.2	7	86.2	17	92.3	17
세종	98.4	1	90.4	15	99.6	1
경기	97.5	4	94.8	11	98.1	6
강원	96.0	15	96.7	8	98.7	4
충북	96.6	12	95.0	10	99.1	3
충남	96.0	16	88.9	16	97.5	9
전북	96.3	14	97.8	5	96.2	14
전남	95.9	17	94.4	12	97.3	12
경북	96.5	13	92.2	13	95.8	15
경남	97.0	10	91.5	14	98.6	5
제주	97.4	5	100.0	1	94.6	16

## 바. 안전 분야 지표

안전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로 측정된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포함하며, 사건 발생에 따른 불안감이 매우 높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로, 이들 범죄피해자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또한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안전에 대한 주관적 생각으로 범죄, 질병, 개인정보유출, 식량 안보, 먹거리, 위생 문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국가안보 문제 등에 대한 안전 인식에 대해 성 격차를 측정한다.

12) 지표산정에는 스트레스 비인지율을 사용하였다.

안전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84.8점)로 사회 안전도 식 성비 지표에서는 1위, 강력범죄피해자 성비에서는 2위이다.

〈표 Ⅲ-20〉 안전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사회 안전도 인식 성비		강력범죄피해자 성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75.0	14	65.6	16
부산	86.7	2	75.8	12
대구	84.0	3	80.6	4
인천	79.7	7	72.6	15
광주	81.5	6	76.8	10
대전	82.5	4	73.6	14
울산	76.2	13	75.7	13
세종	76.6	12	86.7	1
경기	77.4	10	79.0	6
강원	73.6	15	78.2	8
충북	82.0	5	76.2	11
충남	79.2	8	78.4	7
전북	72.6	17	80.0	5
전남	77.3	11	77.2	9
경북	87.8	1	81.8	2
경남	73.0	16	81.7	3
제주	78.7	9	65.4	17

지표별로 보면, 사회 안전도 인식 성비는 경상북도가 8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86.7점), 대구광역시(84.0점), 대전광역시(82.5점), 충청북도(82.0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전라북도는 72.6점으로 사회 안전도 인식 성비가 가장 낮았고 경상남도(73.0점), 강원도(73.6점), 서울특별시(75.0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86.7점으로 가장 높다. 경상북도(81.8점),

경상남도(81.7점), 대구광역시(80.6점), 전라북도(80.0점)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았다. 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65.4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65.6점), 인천광역시(72.6점), 대전광역시(73.6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 중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사회 안전도 인식 성비와 강력범죄피해자 성비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된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두 지표의 성비가 모두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 사. 가족 분야 지표

가족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로 구성되어, 가족 내 성평등한 관계와 의식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한다.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69.6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사노동시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 관련된 다른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6.4점으로 1위를 보이며, 전라북도(42.9점), 부산광역시(41.2점), 대전광역시(37.0점), 충청남도(36.9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지표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26.2점)이며 인천광역시(29.5점), 세종특별자치도(32.6점), 전라남도(31.2점), 경상북도(31.3점) 순으로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산광역시가 98.7점으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97.5점), 충청북도(96.7점), 전라남도(96.3점), 광주광역시(95.9점)가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반면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은 90.6점이었고 경상남도(91.3점), 세종특별자치시(92.7점), 서울특별시(92.8점)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저 출생 사회로 접어들면서, 남아선호 사상이 현저히 감소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6개 지역에서 완전성평등 상태인 100.0점을 보인다. 지역 중 울산광역시가 83.6점으로 유일하게 80점대를 보이며, 이외 지역은 모두 90점 이상으로 성 격차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육아휴직 성비는 울산광역시가 61.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며, 충청남도(48.2점), 경상남도(44.5점), 경상북도(42.9점) 지역 등이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21.9점이었으며, 광주광역시(22.9점), 전라북도(28.5점), 부산광역시(29.9점) 등에서 30점 미만의 성평등을 보였다. 육아휴직 성비는 모든 지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나 1순위 지역과 17순위 지역 격차는 39.1점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표 Ⅲ-21〉 가족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 성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36.7	6	92.8	14	94.9	14	35.3	9
부산	41.2	3	98.7	1	100.0	1	29.9	14
대구	35.1	10	90.6	17	98.9	7	21.9	17
인천	29.5	16	92.8	13	100.0	1	36.4	6
광주	33.2	11	95.9	5	100.0	1	22.9	16
대전	37.0	4	95.8	6	100.0	1	32.9	12
울산	26.2	17	95.6	7	83.6	17	61.0	1
세종	32.6	12	92.7	15	95.9	12	34.4	11
경기	35.5	8	94.2	9	97.4	11	35.2	10
강원	36.4	7	93.4	11	97.5	10	32.6	13
충북	35.3	9	96.7	3	100.0	1	35.7	7
충남	36.9	5	93.7	10	98.4	9	48.2	2
전북	42.9	2	95.2	8	98.8	8	28.5	15
전남	31.2	15	96.3	4	100.0	1	38.5	5
경북	31.3	14	97.5	2	95.3	13	42.9	4
경남	31.8	13	91.3	16	92.3	16	44.5	3
제주	56.4	1	92.9	12	93.9	15	35.3	8

### 아. 문화·정보 분야 지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지표는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 여가와 정보에서의 성 격차를 측정한다.

문화·정보 분야의 1순위 지역은 부산광역시(90.2점)로, 부산광역시는 여가시간 성비에서 5위, 여가만족도 1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에서 3위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80.5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대구광역시(74.9점), 울산광역시(74.4점), 전라남도(73.6점), 부산광역시(72.8점)가 상위권에 있다. 이 지표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63.8점)이며 인천광역시(64.0점), 대전광역시(64.5점), 광주광역시(65.3점)에서 하위권 순위를 보인다.

여가만족도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100.0점으로 완전평등한 수준을 보이며, 광주광역시(68.5점), 충청남도(74.0점), 전라남도(83.1점), 제주특별자치도(85.1점)가 하위권에 해당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울산광역시가 98.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광주광역시(97.8점), 부산광역시(97.7점), 대구광역시(96.9점), 서울특별시(96.5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라남도(89.9점), 제주특별자치도(90.3점), 강원도(90.6점), 전라북도(93.3점)에서 성비가 다소 낮았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전라남도만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90.0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1위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와 17위 지역인 전라남도의 격차가 8.1점으로 크지 않다.

〈표 III-22〉 문화·정보 분야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2021년 기준)

(단위: 점수, 순위)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성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70.2	8	100.0	1	96.5	5
부산	72.8	5	100.0	1	97.7	3
대구	74.9	2	91.4	8	96.9	4
인천	64.0	16	87.2	10	95.2	12
광주	65.3	14	68.5	17	97.8	2
대전	64.5	15	90.2	9	95.2	11
울산	74.4	3	95.6	6	98.0	1
세종	66.8	12	100.0	1	95.9	7
경기	66.9	11	96.8	4	96.3	6
강원	68.7	9	93.4	7	90.6	15
충북	67.7	10	86.1	11	95.8	8
충남	63.8	17	74.0	16	95.3	10
전북	71.5	6	85.5	13	93.3	14
전남	73.6	4	83.1	15	89.9	17
경북	71.1	7	85.5	12	95.0	13
경남	66.4	13	96.2	5	95.7	9
제주	80.5	1	85.1	14	90.3	16

# IV

##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개선 방향

1. 서울특별시	65
2. 부산광역시	71
3. 대구광역시	77
4. 인천광역시	83
5. 광주광역시	89
6. 대전광역시	95
7. 울산광역시	101
8. 세종특별자치시	107
9. 경기도	113
10. 강원도	119
11. 충청북도	125
12. 충청남도	131
13. 전라북도	137
14. 전라남도	143
15. 경상북도	149
16. 경상남도	155
17. 제주특별자치도	161



## 1. 서울특별시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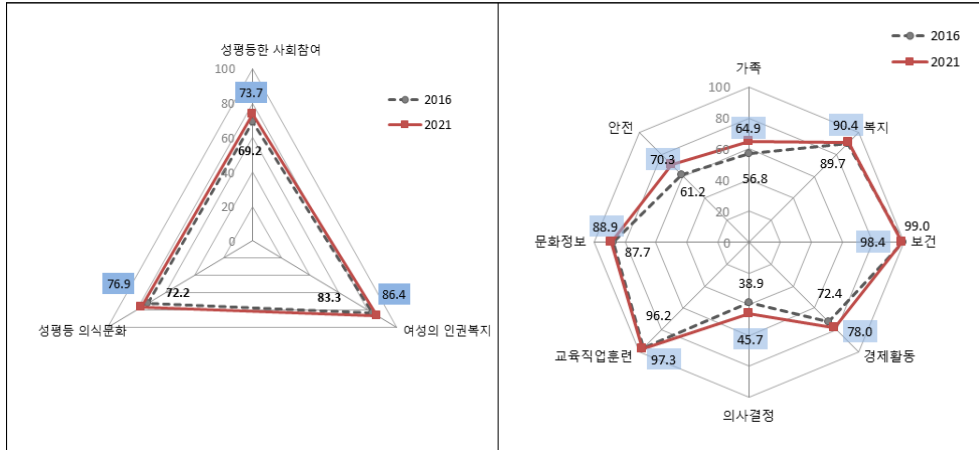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종합순위도 상위권이다. 2018년 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가 2019년 다시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21년 73.7점으로 2위이다. 이 영역은 2016년 69.2점을 기록한 이후 2017년 70.1점, 2018년 71.5점, 2019년 71.8점, 2020년 73.0점, 2021년 73.7점으로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점수와 달리 순위에는 변동이 있다. 2016년~2017년 1위에서 2018년 2위, 2019년 3위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 다시 1위를 하였고 2021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2위가 되었다.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 비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21년 9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2019년 17위에서 2020년 15위, 2021년 9위로 개선되어 왔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21년에 76.9점, 4위이다. 2016년 72.2점에서 2021년 76.9점으로 점수가 상승하였다.

〈표 IV-1〉 서울특별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중상위권	69.2	1	83.3	13	72.2	7
2017	중상위권	70.1	1	83.1	16	73.5	7
2018	상위권	71.5	2	84.3	14	75.0	4
2019	중상위권	71.8	3	84.6	17	75.4	8
2020	상위권	73.0	1	85.9	15	76.3	5
2021	상위권	73.7	2	86.4	9	76.9	4
2020년 대비 증감	동일	0.7	-1	0.5	6	0.6	1
2016년 대비 증감	1단계 상승	4.5	-1	3.1	4	4.7	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1] 서울특별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된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1위, 의사결정 분야는 4위, 경제활동 분야 2위로 해당 영역 모든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6년 3위에서 2017년 6위까지 하락했으나 2020년에는 2위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 역시 2위를 기록했다. 점수는 전년 대비 0.9점 상승하였다. 지표 중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6년 6위에서 개선되어 2018년 3위가 되었으나 2019년 4위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2020년 이후 다시 3위로 진입하였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16년 3위에서 2018년 6위, 2019년 7위로 하락하였다가 2020년 3위, 2021년 2위로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2019년 10위로 중하위권까지 하락했으나 2020년 이후 크게 개선되어 2020년 2위, 2021년 1위로 상승했다. 세 지표 모두 2020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성별 임금 격차 및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지표는 순위 역시 상승하였다.

의사결정 분야는 2021년 45.7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점수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순위는 그대로이다. 의사결정 분야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표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4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5위, 관리자 비율 성비 10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3위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의 순위는 2020년과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은 한 단계 하락했다.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관리자 비율 성비를 제외한 세 가지 지표의 순위가 낮아졌는데

특히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16년 1위였던 반면 2021년 5위로 하락했으며 점수 역시 1.9점 낮아졌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평균교육연수 성비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두 가지 지표 모두 1위로 2016년 이후 변동 없이 항상 1위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세 가지 분야 중 안전 분야의 순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복지 분야가 3위, 보건 분야가 1위로 상위권인 반면, 안전 분야는 17위로 가장 낮았다. 복지 분야는 지표 간 순위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2021년 기준 공적연금가입자 성비가 14위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2위로 순위가 높다.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2016년 9위에서 그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지속적으로 1~2위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 분야는 2020년 대비 0.6점 상승한 98.4점으로 순위가 5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2016~2018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위로 하락하였다 다시 2020년 5위, 2021년 1위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지표별 변화를 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와 건강검진수검률 성비 지표는 전년 대비 동일한 순위를 보이는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2019년, 2020년 16위로 하위권이었으나 2021년 7위로 개선되었다.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지표의 개선이 보건 분야의 순위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안전 분야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16위를 하였고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17위를 하여 지속적인 하위권이다. 두 지표 모두 하위권으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가 14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가 지표가 16위이다. 두 지표 모두 2016년 이후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분야의 경우 2016년 13위에서 2018년 8위로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21년 13위를 기록하였다. 지표별로는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6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가 14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14위, 육아휴직자 성비가 9위이며, 2020년 대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의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7위였으나 2021년 3위로 상위권에 위치한다. 지표별로는 여가시간 성비가 8위, 여가만족도 성비가 1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가 5위로 2020년과 모두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여가만족도 성비가 2016년 6위에서 2021년 1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IV-2〉 서울특별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2.4	3	72.7	6	73.7	5	74.5	5	77.1	2	78.0	2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3.1	6	74.1	6	75.2	3	75.7	4	76.7	3	77.0	3
성별 임금격차	62.6	3	63.0	3	63.8	6	64.4	7	66.1	3	67.9	2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81.3	6	80.8	7	82.0	7	83.3	10	88.3	2	89.1	1
○ 의사결정	38.9	2	41.2	1	44.1	4	44.1	3	44.9	4	45.7	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35.0	3	34.9	3	44.6	4	44.4	4	44.3	4	44.3	4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43.2	1	42.8	1	43.5	1	44.1	4	38.4	5	41.3	5
관리자 비율 성비	13.7	10	17.6	10	17.7	14	15.3	12	22.2	10	22.2	10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64.0	2	69.6	1	70.5	2	72.6	2	74.7	2	74.9	3
○ 교육·직업훈련	96.2	1	96.4	1	96.6	1	96.9	1	97.1	1	97.3	1
평균교육연수 성비	92.4	1	92.8	1	93.3	1	93.8	1	94.2	1	94.7	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9.7	4	90.8	5	90.7	3	90.8	4	90.6	3	90.4	3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3.5	9	84.9	9	85.5	10	86.2	12	86.2	13	87.0	14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5.8	2	96.6	1	95.8	1	95.4	2	95.1	2	93.8	2
○ 보건	99.0	1	98.2	2	98.9	2	97.5	7	97.8	5	98.4	1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3	4	97.6	3	97.8	6	97.3	6	97.3	6	97.3	6
건강검진수검률 성비	99.7	2	99.6	2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성비	100.0	1	97.4	14	98.9	8	95.1	16	96.1	16	97.8	7
○ 안전	61.2	16	60.4	16	63.2	16	65.5	17	69.3	17	70.3	1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8.0	15	61.6	16	63.8	14	68.6	16	72.6	16	75.0	14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4.5	16	59.3	16	62.7	16	62.3	17	66.1	16	65.6	16
○ 가족	56.8	13	58.3	11	61.0	8	61.7	12	63.0	11	64.9	13
가사노동시간 성비	27.7	12	29.4	10	31.2	7	33.0	6	34.8	6	36.7	6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91.1	14	91.3	14	91.4	11	88.9	14	86.5	16	92.8	14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99.1	7	98.4	10	100.0	1	100.0	1	100.0	1	94.9	14
육아휴직자 성비	9.3	5	13.9	7	21.2	8	25.1	13	30.7	11	35.3	9
○ 문화·정보	87.7	7	88.8	7	89.0	7	89.1	4	89.6	2	88.9	3
여가시간 성비	76.1	7	75.0	7	73.9	7	72.7	9	71.5	8	70.2	8
여가만족도 성비	92.3	6	95.7	8	97.2	8	98.6	5	100.0	1	100.0	1
인터넷 이용률 성비	94.6	7	95.5	6	96.0	6	95.8	8	97.1	5	96.5	5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종합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영역별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는 상위권인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는 중상위권으로 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의사 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 가족 분야 중하위권, 안전 분야는 하위권에 위치했다. 특히 안전 분야는 2016년 이후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서울특별시는 2016년~2017년 중상위권, 2018년 상위권, 2019년 중상위권에서 2020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2016년 대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순위는 1위에서 2위로 하락하였으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순위는 상승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이고, 안전 분야가 하위 권이다.

23개 지표 중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등 12개의 지표가 상위권인 반면 공적연금가입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 법)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등 5개의 지표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서울특별시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상위권의 등급을 보인 것은 경제활동, 의사 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분야의 높은 성평등 수준이 2021년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 내 스트레스인지율 성비 지표의 순위가 9단계 상승함에 따라 보건 분야의 순위 역시 크게 상승한 점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개선은 지속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들(기초생활수급자, 강력 범죄(홍악법)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역시 하락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2021년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관리자 비율 지표 역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표이다.

〈표 IV-3〉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문화·정보
		하위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하위		공적연금가입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기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분야의 높은 성평등 수준이 2021년에도 유지됨. 보건 분야 내 스트레스인자율이 9단계 상승하여 보건 분야가 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하여 상위권에 위치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li>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li> <li>○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li> </ul>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2. 부산광역시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부산광역시 종합순위는 상위권이다. 2016년 상위권에서 2017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세 영역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5위를 유지하였으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20년 89.2점, 4위에서 2021년 87.6점, 5위로 점수 및 순위 모두 하락하였다.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는 2020년 8위에서 2021년 1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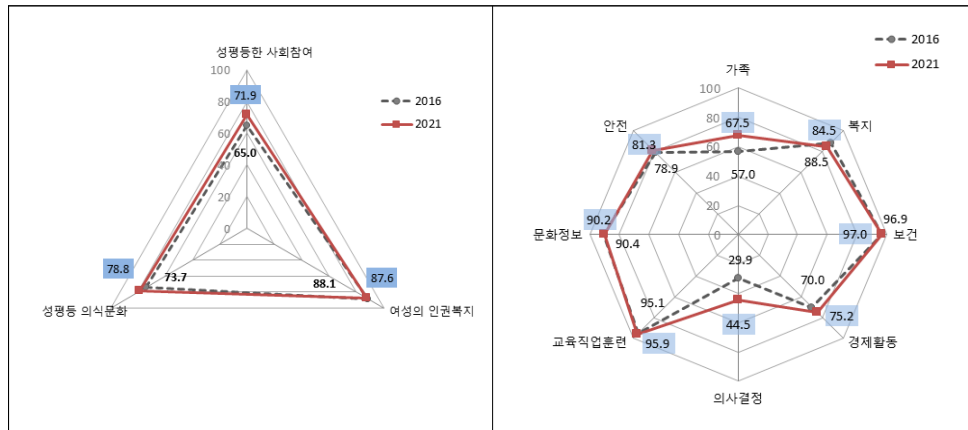
〈표 IV-4〉 부산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상위권	65.0	6	88.1	2	73.7	3
2017	중상위권	65.8	10	87.8	5	74.3	4
2018	상위권	69.5	5	88.3	2	74.7	6
2019	상위권	71.0	4	88.9	2	74.0	11
2020	상위권	71.5	5	89.2	4	75.4	8
2021	상위권	71.9	5	87.6	5	78.8	1
2020년 대비 증감	동일	0.4	-	-1.6	-1	3.4	7
2016년 대비 증감	1단계 상승	6.9	1	-0.5	-3	5.1	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21년 모두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20년 상위권이었던 반면 2021년 중상위권으로 순위가 세 단계 하락하였다. 각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20년 73.8점에서 2021년 73.3점으로 낮아져 순위 역시 8위에서 9위로 하락한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2020년 8위에서 2021년 5위로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2020년과 동일하게 3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IV-2] 부산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의사결정 분야는 2019년 4위, 2020년 5위에서 2021년 6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지표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은 2020년 11위, 2021년 12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7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은 4위였던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대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크게 개선된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지표는 순위가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20년 대비 점수 및 순위가 동일하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표는 38.6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순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6위에 위치한다. 관리자 비율 성비 지표 역시 24.9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순위 또한 9위로 전년과 동일하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8위로 2019년 이후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지표별로 보아도 2019년 이후 평균교육연수 성비 지표는 8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1위로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표 IV-5〉 부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0.0	8	70.5	9	71.5	11	74.4	6	75.7	3	75.2	6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0.4	9	70.2	10	71.1	11	74.7	5	73.8	8	73.3	9
성별 임금격차	61.8	6	62.1	6	61.7	11	63.1	10	65.0	8	66.0	5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7.6	10	79.2	10	81.8	8	85.4	6	88.2	3	86.4	3
○ 의사결정	29.9	6	31.6	8	41.6	6	43.1	4	43.2	5	44.5	6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5.1	7	25.1	7	38.7	6	38.6	6	38.6	6	38.6	6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7.7	7	33.1	5	37.8	4	49.5	1	44.9	1	51.2	1
관리자 비율 성비	13.5	11	10.9	13	27.5	6	18.8	11	24.9	9	24.9	9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53.5	4	57.2	7	62.6	9	65.5	10	64.3	11	63.2	12
○ 교육·직업훈련	95.1	6	95.2	6	95.4	7	95.6	8	95.8	8	95.9	8
평균교육연수 성비	90.1	6	90.5	6	90.8	7	91.2	8	91.5	8	91.9	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8.5	6	90.2	7	89.5	5	89.0	7	87.9	7	84.5	9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7.9	7	90.3	7	92.0	6	93.8	6	95.5	6	97.7	6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0	12	90.1	12	87.0	12	84.2	13	80.3	13	71.2	13
○ 보건	96.9	10	97.7	6	98.1	6	97.5	8	97.2	9	97.0	8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2	8	97.4	7	97.9	4	97.0	11	97.0	11	97.0	11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6.7	12	96.5	12	97.2	10	96.6	8	96.7	8	96.9	7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96.8	13	99.2	5	99.2	6	98.9	8	97.9	11	97.2	13
○ 안전	78.9	3	75.6	4	77.2	3	80.4	2	82.5	2	81.3	4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80.3	3	79.6	3	79.1	3	85.0	1	88.9	1	86.7	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7.6	6	71.6	11	75.4	9	75.8	11	76.1	12	75.8	12
○ 가족	57.0	11	57.9	14	59.9	11	62.4	11	62.0	14	67.5	3
가사노동시간 성비	30.9	4	32.7	2	34.7	2	36.8	3	38.9	3	41.2	3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5.4	7	92.0	13	88.5	13	91.3	11	93.8	8	98.7	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5.4	14	97.1	13	100.0	1	100.0	1	88.5	16	100.0	1
육아휴직자 성비	6.3	14	10.0	13	16.4	12	21.3	14	26.9	15	29.9	14
○ 문화·정보	90.4	2	90.6	2	89.4	5	85.7	13	88.7	5	90.2	1
여가시간 성비	75.5	10	75.0	8	74.5	6	74.0	4	73.4	4	72.8	5
여가만족도 성비	100.0	1	100.0	1	98.0	5	90.0	12	96.9	7	100.0	1
인터넷 이용률 성비	95.7	3	96.9	2	95.8	7	93.0	13	95.9	7	97.7	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1년 복지 분야는 9위, 보건 분야는 8위, 안전 분야는 4위를 기록하였다. 복지 분야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6위로 2018년 이후 6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성비는 전년과 동일한 13위이다.

보건 분야 지표를 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20년과 동일하게 11위이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전년도 8위에서 2021년 7위로 순위가 높아졌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는 2020년 11위에서 2021년 13위로 하락하였다.

안전 분야는 4위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지표 간 순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2위인 반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12위이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분야의 경우 2020년 14위에서 2021년 3위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문화·정보 분야 역시 2020년 5위에서 2021년 1위로 개선되었다. 지표별로 보면,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3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가 1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1위, 육아휴직자 성비가 14위이며, 2020년 대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및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2021년 1위로 상위권에 위치한다. 2019년 13위에서 크게 상승했으며, 지표별로는 여가시간 성비가 5위, 여가만족도 성비가 1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가 3위이다.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6년 1위였으나 2019년 12위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2021년 다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6년 3위에서 2019년 13위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다시 3위를 기록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해 보면, 2018년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으로 상승한 이후 2021년까지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5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1위로 세 영역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부산광역시는 2016년 상위권, 2017년 중상위권을 기록한 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이 5위,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5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 1위로 세 영역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이며, 하위권인 분야는 없다.

23개 지표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 11개 지표가 상위권이며, 하위권 지표는 육아휴직자 지표 1개이다.

부산광역시는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안전 분야의 순위는 소폭 하락 하였으나, 가족 분야가 전년 대비 11단계 상승하고(가족관계 만족도 지표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 문화·정보 분야 역시 1위로 상승함(여가만족도 지표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가 향상)에 따라 성평등 종합등급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은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여가시간 성비 등 8개 지표에 대해서는 하락 원인에 대한 진단과 진단에 기반한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표 IV-6〉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안전, 가족, 문화·정보
		하위	-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5급 이상 공무원,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가족 분야 내 가족관계 만족도와 셋째 아 이상 출생비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가족 분야가 전년도 대비 11단계 상승함. 문화·정보 분야 내 여가만족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의 향상에 따라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함.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안전 분야가 소폭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가사노동시간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육아휴직자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성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3. 대구광역시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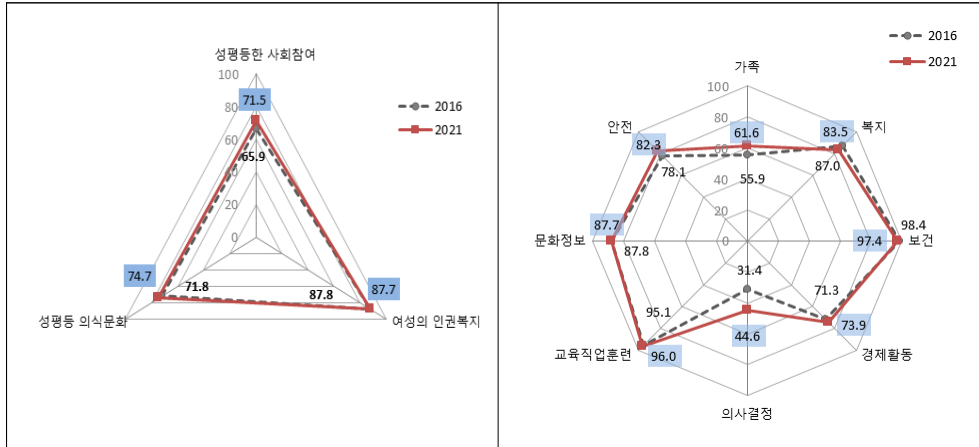
대구광역시는 2021년 종합순위에서 중상위권으로, 2017년 이후 줄곧 상위권을 유지 하였으나 2021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는 2021년 71.5점으로 7위이다. 이 영역은 2016년 65.9점에서 2019년 71.0점으로 상승 했으나 2020년 70.4점으로 하락하여 7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71.5점으로 상승하였 으나 순위에 변동은 없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6년 이후 점수 변동 폭은 크지 않으며, 2021년 3위로 2020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6년 9위에서 2018년 3위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2021년 12로 중하위권에 위치하였다.

〈표 IV-7〉 대구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중상위권	65.9	4	87.8	4	71.8	9
2017	상위권	67.7	4	88.4	3	74.0	5
2018	상위권	69.5	6	87.6	5	75.5	3
2019	상위권	71.0	5	88.4	4	74.5	10
2020	상위권	70.4	7	89.6	2	74.6	11
2021	중상위권	71.5	7	87.7	3	74.7	12
2020년 대비 증감	동일	1.1	-	-1.9	-1	0.1	-1
2016년 대비 증감	1단계 하락	5.6	-3	-0.1	1	2.9	-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3] 대구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10위, 의사결정 분야는 5위,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7위이다. 먼저 경제활동 분야 순위는 2019년 3위에서 2020년 11위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2021년 10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를 보면 성별 임금격차는 3위인데 반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가 13위,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가 12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의사결정 분야는 2020년 6위에서 2021년 5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광역 및 기초 의원 비율 성비가 8위, 관리자 비율 성비가 6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이 7위로 세 지표는 전년 대비 순위변동이 없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20년 7위에서 2021년 6위로 상승하였으며, 점수 역시 33.2점에서 41.1점으로 상승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6년~2018년까지는 5위, 2019년 이후에는 계속하여 7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표를 보면, 평균교육연수 성비 지표 역시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2016~2018년: 5위, 2019~2021년: 7위). 반면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성비는 2016년 이후 계속 1위인데, 대구광역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도에서 해당 지표가 1위인 점을 고려할 때 결국 해당 분야의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평균교육연수 성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에서 복지 분야는 2016년 9위에서 2018년 8위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 10위, 2021년 12위로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2016년 6위에서 2018년 5위로 상승했고 2021년에도 5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2016년 이후 계속해서 하위권에 속하며, 2019년 이후 15위에

머물고 있다.

보건 분야는 2016년 4위에서 2018년 9위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2020년 4위로 상승, 2021년 다시 5위로 하락하였다. 보건 분야 지표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의 경우 2016년 1위였으나 2017년 5위, 2019년 9위로 하락한 뒤 2021년에도 변동없이 9위에 머무르고 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6위이고,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2020년 9위에서 2021년 11위로 하락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 지표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가 전년 대비 변함없는 점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지표가 보건 분야 순위 하락의 요인으로 보인다.

안전 분야는 2021년 2위로 2016년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2021년 3위로 2020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다.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20년과 동일하게 4위에 위치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분야 간 순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가족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17위로 최하위이나 문화·정보 분야는 4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가족 분야는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육아휴직자 성비가 17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가사노동 시간 성비 지표는 10위로 2020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역시 2020년 1위에서 2021년 7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2021년 4위로 2020년 3위에서 한 단계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위로 2018년 이후 순위가 동일하다. 여가만족도 성비는 8위로 2020년과 동일하며,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21년 4위로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하였다.

대구광역시 2017년 상위권에 진입한 이후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2021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7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9년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20년 11위에서 2021년 12위로 2020년과 마찬가지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표 IV-8〉 대구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1.3	7	73.9	2	74.3	3	74.6	3	73.1	11	73.9	10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1.2	7	74.2	5	74.7	5	72.0	11	69.8	15	71.7	13
성별 임금격차	61.0	7	63.5	2	64.0	4	65.9	3	65.1	7	66.7	3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81.6	4	84.1	2	84.3	4	85.8	3	84.5	7	83.4	12
○ 의사결정	31.4	5	33.8	6	38.8	8	42.7	5	42.1	6	44.6	5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30.5	5	30.5	5	35.6	8	35.5	8	35.5	8	35.5	8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0.5	5	29.9	7	31.2	8	39.6	7	33.2	7	41.1	6
관리자 비율 성비	18.2	6	20.9	9	24.6	10	26.4	5	31.3	6	31.3	6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46.2	10	53.7	10	63.7	6	69.2	5	68.5	7	70.7	7
○ 교육·직업훈련	95.1	5	95.3	5	95.5	5	95.6	7	95.8	7	96.0	7
평균교육연수 성비	90.2	5	90.6	5	90.9	5	91.3	7	91.6	7	91.9	7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7.0	9	88.9	9	88.2	8	87.9	8	87.0	10	83.5	12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8.1	6	90.6	6	92.6	5	94.9	5	96.6	5	98.2	5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5.8	15	87.1	15	83.8	14	81.0	15	77.3	15	68.7	15
○ 보건	98.4	4	98.0	4	97.8	9	97.0	9	97.9	4	97.4	5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7	1	97.5	5	97.8	5	97.1	9	97.1	9	97.1	9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4	7	97.1	10	97.7	6	97.1	6	97.5	6	97.5	6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100.0	1	99.5	4	97.7	11	96.9	12	99.1	9	97.5	11
○ 안전	78.1	4	78.2	3	76.9	4	80.2	3	83.9	1	82.3	2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5.9	4	76.4	4	77.0	4	83.5	2	86.9	2	84.0	3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80.4	4	79.9	4	76.8	7	76.9	9	80.8	4	80.6	4
○ 가족	55.9	15	58.1	12	60.6	10	58.2	17	60.2	17	61.6	17
가사노동시간 성비	29.8	6	30.8	6	31.8	6	32.9	7	34.0	8	35.1	10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2.9	10	95.4	5	98.5	2	92.5	8	87.3	15	90.6	17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5.9	13	98.0	11	100.0	1	92.7	16	100.0	1	98.9	7
육아휴직자 성비	5.1	15	8.2	15	11.9	16	15.0	17	19.6	17	21.9	17
○ 문화·정보	87.8	6	90.0	4	90.4	2	90.7	1	88.9	3	87.7	4
여가시간 성비	76.4	6	76.1	5	75.9	2	75.6	2	75.2	2	74.9	2
여가만족도 성비	91.1	7	97.3	6	97.2	7	97.2	7	94.4	8	91.4	8
인터넷 이용률 성비	95.7	2	96.5	3	98.1	1	99.3	1	97.1	6	96.9	4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대구광역시는 2016년 중상위권에서 2017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후 상위권을 유지해 오다 2021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 2016년과 비교하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순위가 하락한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승하였다. 2021년 기준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이고, 가족 분야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23개 지표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등 7개의 지표가 상위권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등 3개의 지표는 하위권이다.

대구광역시는 2020년 상위권에서 2021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복지,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수준이 소폭이고, 나머지 분야의 지표가 전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중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개선은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가족 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개선이 요구되는 지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육아휴직자 지표이며, 그 외 전년 대비 하락을 보인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지표에 대한 원인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표 IV-9〉 대구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보건, 안전, 문화·정보
		하위	가족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하위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복지,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분야의 지표가 전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중상위권을 차지함. 의사결정,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하는 반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족 분야가 하위권에 머무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li>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육아휴직자</li> <li>○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li> </ul>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4. 인천광역시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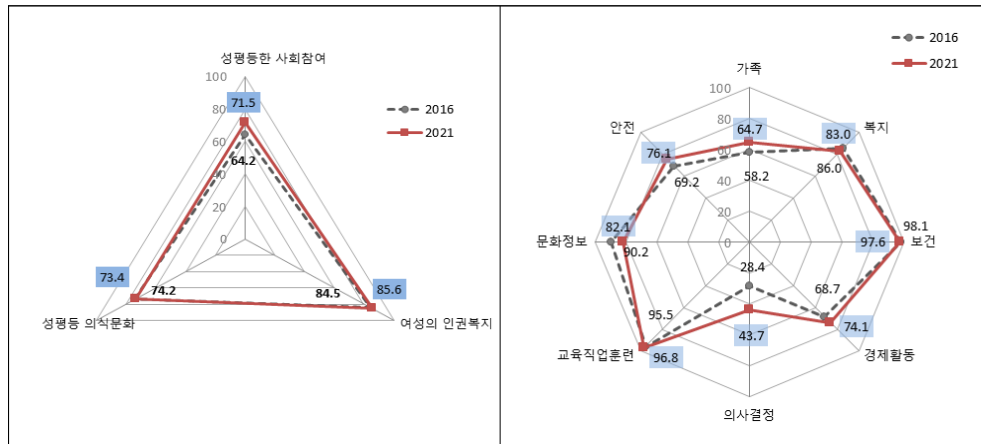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 종합순위에서도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2016년 중하위권, 2017년 중상위권, 2018년 중하위권, 2019년 중상위권, 2020년 중하위권, 2021년 중하위권으로 종합순위에 지속적으로 변동이 있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21년 71.5점으로 6위이다. 전년 대비 순위는 동일하나, 2016년 64.2점에서 2021년 71.5점으로 점수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는 전년 대비 동일하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20년과 동일하게 13위에 위치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6년 2위로 순위가 매우 높았으나 2017년 9위로 하락한 이후 2018년과 2019년 12위, 2020년과 2021년 16위로 2021년 현재 하위권에 있다.

〈표 IV-10〉 인천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중하위권	64.2	9	84.5	11	74.2	2
2017	중상위권	67.5	5	84.6	13	73.0	9
2018	중하위권	69.0	8	85.5	10	73.2	12
2019	중상위권	70.3	6	86.0	11	73.9	12
2020	중하위권	70.8	6	86.5	13	73.5	16
2021	중하위권	71.5	6	85.6	13	73.4	16
2020년 대비 증감	동일	0.7	-	-0.9	-	-0.1	-
2016년 대비 증감	동일	7.3	3	1.1	-2	-0.8	-1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4] 인천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20년 6위에서 2021년 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지표는 2020년 73.7점, 10위에서 2021년 72.5점, 11위로 점수 및 순위 모두 하락하였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 역시 2020년 65.6점, 5위에서 2021년 64.7점, 8위로 점수 및 순위 모두 하락하였다. 반면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2020년 83.4점, 10위에서 2021년 85.2점, 9위로 점수 및 순위 모두 상승하였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6년 9위, 2017년 5위, 2018년 9위였으나 2019년 이후 계속해서 7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표를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역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7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리자 비율 성비 역시 2020년과 동일하게 11위에 위치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은 2016년 5위, 2017년 2위에서 2018년 1위로 상승하여 2021년까지 계속해서 1위에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20년 11위에서 2021년 9위로 상승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4위에 위치하고 있다. 두 개 지표 모두 상위권으로 평균교육연수 성비는 4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100.0점으로 1위이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21년 13위로 중하위권에 해당하며, 해당 영역의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복지 및 안전 분야는 13위로 중하위권에, 보건 분야는 4위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복지 분야는 2016년 11위에서 2021년 13위로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별로는 공적연금가입자 성비가 2016년 10위에서 2021년 11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2016년 7위에서 2021년 10위로 세 단계 하락하였다.

보건 분야는 2020년 중상위권에서 2021년 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8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9위로 2017년 이후 순위가 동일하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연도별로 편차가 큰 지표로 2016년 1위를 하였으나 2017년 13위로 하락한 뒤, 2018년 다시 1위로 상승하였다가 2019년 6위, 2020년 7위로 다시 하락하였으며, 2021년 2위로 크게 상승하여 보건 분야 순위 상승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안전 분야는 2020년 12위에서 2021년 13위로 하락하였다. 지표별로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20년과 동일하게 7위이나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7년 이후로 계속 15위에 머무르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21년 가족 분야가 14위, 문화·정보 분야가 15위로 두 분야 모두 하위권이다. 가족 분야는 2016년 9위였으나 2017년 16위로 하락한 뒤 2018년 15위, 2019년 16위, 2020년 13위, 2021년 14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16위)가 하위권이고,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13위)가 중하위권이고, 육아휴직자 성비(6위)가 중상위권,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1위)가 상위권이다.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지표는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로 2016년 1위, 2017년 12위, 2018년 1위, 2019년과 2020년 13위, 2021년 1위로 변동이 크며 전년 대비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2016년 상위권이었으나 2017년~2019년 중상위권, 2020년 중하위권, 2021년 하위권으로 하락하였으며, 점수 역시 2016년 90.2점에서 2021년 82.1점으로 낮아졌다. 세 지표 모두 2016년 대비 순위가 하락했는데,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2016년 11위였으나 2021년 16위가 되었다. 여가만족도 성비는 완전 성평등 수준인 100.0점으로 2016년 1위였으나 2021년 87.2점으로 10위가 되었으며,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6년 5위에서 2021년 12위로 하락하였다.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하면, 2016년 이후 종합순위에서 중상위권과 중하위권으로 오르내리다 2021년에는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는 중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한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과 보건 분야만이 상위권이고 경제활동, 의사결정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복지와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 가족 및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에 위치한다.

〈표 IV-11〉 인천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8.7	12	70.7	8	73.2	6	74.5	4	74.3	6	74.1	9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9.8	10	69.8	12	72.6	8	74.1	7	73.7	10	72.5	11
성별 임금격차	60.8	8	61.5	7	63.8	7	65.0	5	65.6	5	64.7	8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5.5	13	80.8	8	83.2	6	84.4	8	83.4	10	85.2	9
○ 의사결정	28.4	9	36.1	5	37.9	9	40.2	7	41.6	7	43.7	7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1.8	10	21.8	10	37.0	7	37.0	7	37.0	7	37.0	7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7.9	6	30.1	6	29.7	9	35.6	9	30.0	11	36.5	9
관리자 비율 성비	11.0	13	26.6	4	12.2	16	12.0	14	21.9	11	21.9	11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53.0	5	65.7	2	72.6	1	76.3	1	77.4	1	79.5	1
○ 교육·직업훈련	95.5	4	95.8	4	96.0	4	96.3	5	96.5	4	96.8	4
평균교육연수 성비	91.1	4	91.5	4	92.0	4	92.5	5	93.0	4	93.5	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6.0	11	87.6	11	87.5	10	87.4	11	85.9	13	83.0	13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1.3	10	83.9	11	86.6	8	88.7	9	89.2	10	90.3	11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0.7	7	91.4	10	88.4	8	86.1	9	82.6	11	75.7	10
○ 보건	98.1	5	97.7	7	98.3	3	97.6	6	97.6	7	97.6	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3	6	97.6	4	97.5	8	97.2	8	97.2	8	97.2	8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1	10	97.3	9	97.4	9	96.2	9	96.3	9	96.2	9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100.0	1	98.1	13	100.0	1	99.3	6	99.3	7	99.3	2
○ 안전	69.2	10	68.5	12	70.7	10	73.0	12	76.0	12	76.1	13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1.2	7	72.1	5	72.6	6	77.0	7	79.4	7	79.7	7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격차	67.2	14	65.0	15	68.7	15	69.0	15	72.6	15	72.6	15
○ 가족	58.2	9	56.6	16	57.6	15	60.1	16	62.4	13	64.7	14
가사노동시간 성비	26.6	15	27.2	16	27.8	15	28.4	16	29.0	16	29.5	16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8.4	4	92.3	11	86.6	14	88.6	15	90.5	12	92.8	13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97.1	12	100.0	1	98.0	13	95.9	13	100.0	1
육아휴직자 성비	7.8	12	9.8	14	16.2	13	25.4	12	34.3	7	36.4	6
○ 문화·정보	90.2	3	89.3	6	88.7	8	87.7	8	84.6	12	82.1	15
여가시간 성비	75.4	11	73.4	13	71.3	14	69.0	15	66.6	16	64.0	16
여가만족도 성비	100.0	1	100.0	1	100.0	1	98.4	6	93.0	9	87.2	10
인터넷 이용률 성비	95.1	5	94.6	10	94.9	10	95.8	10	94.2	13	95.2	1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인천광역시는 2021년 중하위권이다. 2020년 역시 중하위권에 위치했으며, 2021년 기준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인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2016년과 비교하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순위가 개선되었으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순위가 하락하였다. 특히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6년 2위에서 2021년 16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 훈련, 보건 분야가 상위권에 해당하고 가족, 문화·정보 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한다.

성평등 지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등 5개의 지표가 상위권이며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등 3개의 지표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종합 등급은 중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경제활동,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의 순위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2020년과 마찬가지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게 되었다. 보건 분야는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지표가 크게 개선되어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은 성평등 순위가 하위권인 가족 및 문화·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지표에 대한 집중 관리 역시 요구된다. 또한 전년 대비 하락을 보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등 6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 IV-12〉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상위권 →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보건
		하위	가족, 문화·정보
	지표	상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하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경제활동,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가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보건 분야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 되어 중하위권에 위치함. 교육·직업훈련, 보건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5. 광주광역시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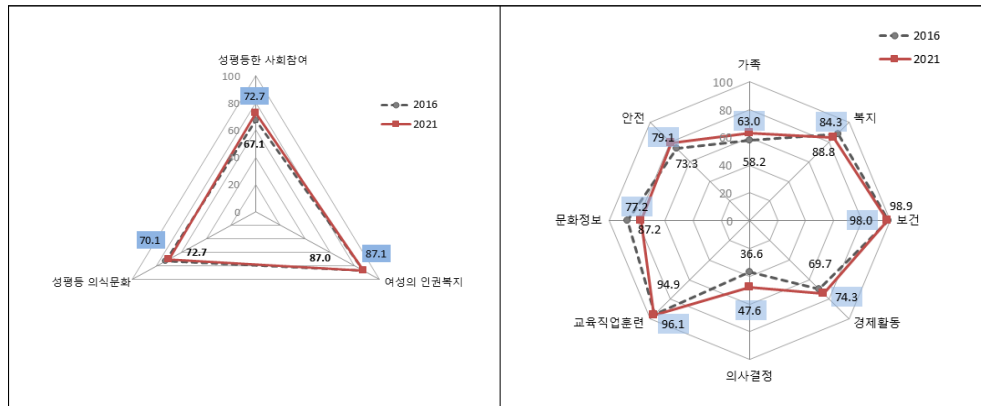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는 2016년 상위권에서 2017년 중상위권,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뒤 2019년 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가 2020년 다시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여 2021년 역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6년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4위에서 2021년 3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21년 7위로 2020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다. 2016년 5위에서 2018년 15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9년 8위, 2020년 6위로 다시 상승하였다가 2021년 7위에 위치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20년과 동일하게 17위이다. 2016년(6위) 대비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표 IV-13〉 광주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상위권	67.1	3	87.0	5	72.7	6
2017	중상위권	68.9	2	85.3	8	73.1	8
2018	중하위권	70.6	4	83.9	15	73.0	13
2019	상위권	75.7	1	86.7	8	73.7	13
2020	중상위권	72.1	4	87.7	6	71.9	17
2021	중상위권	72.7	3	87.1	7	70.1	17
2020년 대비 증감	동일	0.6	1	-0.6	-1	-1.8	-
2016년 대비 증감	1단계 하락	5.6	-	0.1	-2	-2.6	-1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5] 광주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광주광역시의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6년부터 꾸준히 상위권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다. 2016년 3위에서 2017년 2위로 상승하였다가 2018년 4위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 다시 1위로 상승, 2020년 4위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3위로 상승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8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2020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하였다.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분야이다. 지표별로는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가 7위, 성별 임금격차가 12위, 상용근로자비율 성비가 11위이다.

의사결정 분야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역시 3위를 차지한 분야이다. 지표별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가 2020년과 동일하게 2위였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표 및 관리자 비율 성비 지표 역시 2020년과 동일하게 4위를 기록했다. 세 지표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지표는 2020년 12위에서 2021년 14위로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6년 이후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완전 성평등한 상태인 100.0점으로 2016년 이후 계속해서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교육연수 성비는 2021년 순위가 6위로 2020년과 동일하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전년 대비 순위가 1단계 하락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복지 분야는 2020년 9위에서 2021년 10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보건의 분야는 2020년 6위에서 2021년 3위로, 안전 분야는 2020년 7위에서 2021년 5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복지 분야는 2016년 88.8점으로 5위에 위치하였으나 2020년 87.3점, 9위로 점수 및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는 84.3점, 10위로 2020년 대비 더 하락하였다. 복지 분야를 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2016년~2017년 14위에서 2018년 15위, 2019년 이후 16위로 순위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보건 분야는 2016년 상위권에서 2017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 상위권으로 다시 상승하였다가 2020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21년 3위로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 지표를 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7년 10위에서 2019년 3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한 뒤 2021년까지 3위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2016년 3위에서 2018년 4위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 다시 3위로 상승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두 지표가 상위권인데 반해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지난해에 이어 10위에 위치하고 있다.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지표는 2016년 100.0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12위, 2018년 14위로 순위가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2019년 7위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 다시 14위로 하락하였다.

안전 분야는 2021년 5위로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하였다. 지표별로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2020년 9위에서 2021년 6위로 순위가 상승했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20년과 동일하게 10위를 기록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가족 분야는 2016년 대비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2016년 8위였으나 2017년 15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2020년 12위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 16위로 네 단계 하락하여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지표를 보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및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상위권인 반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중하위권, 육아 휴직자 성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6년 5위에서 2018년 15위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0년 3위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두 단계 하락한 5위를 기록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20년 10위였으나 2021년 1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20년 12위에서 2021년 11위로 한 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6년 이후 계속해서 하위권에 속한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6년 8위에서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과 2021년 모두 17위를 기록했다. 여가만족도 성비 지표의 순위 역시 낮는데, 2020년 16위에서 2021년 17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여가시간 성비 역시 하위권으로 2020년 67.7점, 13위에서 2021년 65.3점, 14위로 점수 및 순위 모두 하락하였다. 반면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20년 11위에서 2021년 2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점수 역시 94.7점에서 97.8점으로 상승하였다.

〈표 IV-14〉 광주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9.7	9	70.5	10	71.5	12	72.5	12	73.7	10	74.3	8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9.6	11	73.2	7	74.2	6	74.1	6	75.8	5	74.6	7
성별 임금격차	61.9	5	61.1	9	61.8	9	63.3	9	63.3	10	63.3	12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7.5	12	77.1	13	78.6	12	80.2	14	81.9	12	85.0	11
○ 의사결정	36.6	3	41.1	2	44.8	3	58.8	1	46.8	3	47.6	3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41.7	1	41.8	1	49.3	2	49.3	2	49.4	2	49.6	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6.1	2	40.2	2	41.5	2	46.7	3	40.5	4	43.0	4
관리자 비율 성비	19.6	4	24.9	5	25.5	8	79.1	1	35.1	4	35.1	4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48.8	8	57.6	6	63.0	7	60.0	12	62.2	12	62.8	14
○ 교육·직업훈련	94.9	7	95.2	7	95.4	6	95.7	6	95.9	6	96.1	6
평균교육연수 성비	89.9	7	90.4	7	90.8	6	91.3	6	91.8	6	92.3	6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8.8	5	90.8	4	89.0	6	89.2	6	87.3	9	84.3	10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1.4	4	93.2	4	95.2	4	97.7	4	98.8	4	100.0	1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6.2	14	88.3	14	82.8	15	80.7	16	75.8	16	68.5	16
○ 보건	98.9	2	98.0	5	97.9	7	98.3	3	97.8	6	98.0	3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5	3	97.0	10	97.4	9	97.7	3	97.7	3	97.7	3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9.1	3	98.9	3	99.2	4	98.1	3	98.8	3	99.0	3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100.0	1	98.1	12	97.2	14	99.2	7	96.8	14	97.5	10
○ 안전	73.3	7	67.1	15	64.9	15	72.4	13	77.9	7	79.1	5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2.9	5	63.3	13	58.8	15	72.3	13	78.8	9	81.5	6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격차	73.7	13	70.8	13	70.9	12	72.6	13	76.9	10	76.8	10
○ 가족	58.2	8	57.5	15	58.2	14	60.7	14	62.9	12	63.0	16
가사노동시간 성비	29.7	7	30.4	8	31.1	9	31.8	12	32.5	12	33.2	11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8.1	5	92.1	12	86.1	15	91.5	10	96.9	3	95.9	5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98.5	10	100.0	1
육아휴직자 성비	5.0	16	7.5	16	15.5	14	19.6	16	23.9	16	22.9	16
○ 문화·정보	87.2	8	88.7	8	87.9	9	86.7	12	80.8	17	77.2	17
여가시간 성비	76.1	9	74.1	10	72.1	13	69.9	13	67.7	13	65.3	14
여가만족도 성비	89.9	8	96.5	7	95.3	9	94.3	10	80.0	16	68.5	17
인터넷 이용률 성비	95.5	4	95.4	7	96.2	5	95.8	9	94.7	11	97.8	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광주광역시시는 2016년 상위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중상위권,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하였다가 2019년 상위권에 재진입하여 2020년 이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해온 영역으로 2021년 3위를 기록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6년 5위에서 2017년 8위, 2018년 15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9년 8위, 2020년 6위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2021년 7위에 위치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6년 이후 순위가 크게 하락하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7위를 기록하였다.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광주광역시시는 2018년 중하위권에서 2019년 상위권으로 진입, 2020년 이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는 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2016년 대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순위는 3위로 동일한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순위는 하락했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보건, 안전 분야는 상위권이고, 가족,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이다.

성평등 지표 중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인터넷 이용률 등 10개의 지표가 상위권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등 5개의 지표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전체적으로 셋째 아 이상 출생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가족 분야가 4단계 하락하여 문화·정보 분야와 더불어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분야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시의 성평등 종합 등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시의 성평등 개선은 성평등 순위가 낮은 가족, 문화·정보 분야를 점검하고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지표(경제활동참가율,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육아휴직자 지표의 경우 성평등 수준 30점 미만인 지표에도 해당되므로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표 IV-15〉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보건, 안전
		하위	가족, 문화·정보
	지표	상위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공적연금 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인터넷 이용률
하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셋째 아 이상 출생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상위권을 차지하나, 가족 분야가 4단계 하락하여 문화·정보 분야와 더불어 하위권에 위치함.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소폭 상승하나, 나머지 분야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li>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육아휴직자</li> <li>○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기초생활수급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li> </ul>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6. 대전광역시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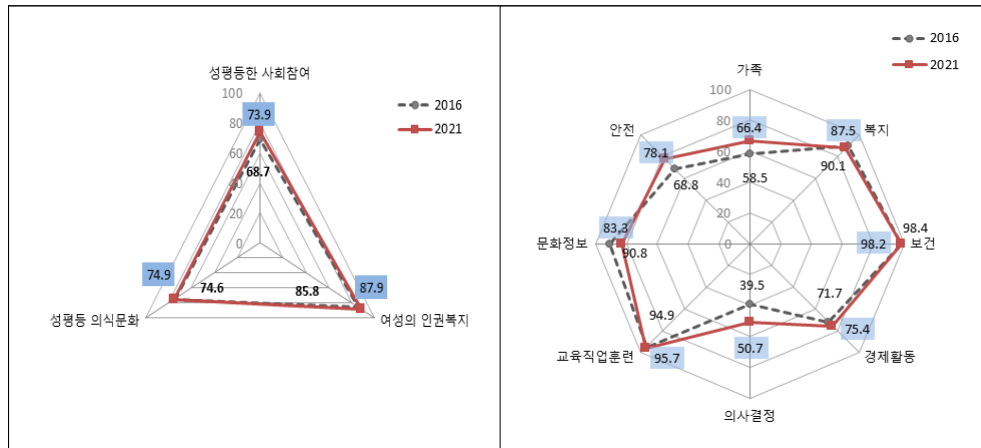
대전광역시는 2021년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이다. 2018년 중상위권을 제외하면,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6년 2위, 2017년~2018년 3위, 2019년~2020년 2위에서 2021년 1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6년 대비 순위가 크게 상승한 영역이다. 2016년 9위에서 2018년 11위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9년 7위, 2020년 5위, 2021년 2위로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순위가 하락하였는데, 2016년 1위, 2017년 3위로 상위권에 속하였으나 2018년 11위, 2020년 15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2021년 10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표 IV-16〉 대전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상위권	68.7	2	85.8	9	74.6	1
2017	상위권	68.4	3	85.8	7	74.6	3
2018	중상위권	70.9	3	85.3	11	73.3	11
2019	상위권	72.5	2	86.8	7	74.7	9
2020	상위권	72.9	2	88.1	5	73.6	15
2021	상위권	73.9	1	87.9	2	74.9	10
2020년 대비	동일	1.0	1	-0.2	3	1.3	5
2016년 대비	동일	5.2	1	2.1	7	0.3	-9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6] 대전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수준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 속하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 중에서 2021년에는 의사결정 분야가 1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활동 분야 역시 5위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20년과 동일하게 9위로 중상위권에 머물렀다.

경제활동 분야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5위에 위치하며, 경제활동 분야를 세부 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는 2021년 8위로 2020년 7위와 비교하여 한 단계 상승하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2020년 2위에서 2021년 7위로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2020년 6위에서 2021년 2위로 상승해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

의사결정 분야는 2021년 1위로 2020년과 순위가 동일하다. 2016년 1위에서 2018년 5위까지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2019년 2위로 상승, 2020년 이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표별로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8년 이후 계속해서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21년 8위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역시 2021년 2위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관리자 비율 성비는 2위로 2020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20년과 동일하게 9위로 중상위권이다. 2019년 이후 계속해서 9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평균교육연수 성비 또한 2019년 이후 동일하게 9위이다. 반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완전 평등 수준인 100.0점으로 1위에 위치하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을 보면 복지 분야는 2021년 6위, 보건 분야는 2위, 안전 분야는 9위이다. 복지 분야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상위권에 위치하였으나 2021년 순위가 하락하여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으며, 보건 분야 역시 2020년 대비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안전 분야는 2020년 76.4점, 10위에서 2021년 78.1점, 9위로 상승하였다.

복지 분야의 지표를 보면 2021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지표는 전년과 동일하게 8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한 단계 상승하여 7위에 위치한다.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2016년 5위에서 2018년 7위, 2020년 8위로 순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보건 분야는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및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상위권인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중상위권이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및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20년과 동일하게 각각 2위와 4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2020년 1위에서 2021년 8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안전 분야는 2021년 78.1점, 9위로 2020년(76.4점, 10위) 대비 점수 및 순위가 상승하였다. 안전 분야는 2016년 11위에서 2017년 14위로 하락하여 2019년까지 14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10위로 순위가 상승, 2021년 9위에 위치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20년 8위에서 2021년 4위로 상승하였으며,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의 순위는 2020년과 동일한 14위로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 분야가 8위로 중상위권이고 문화·정보 분야는 12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가족 분야는 2020년 15위에서 8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한 반면 문화·정보 분야는 2020년 9위에서 2021년 12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가족 분야를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20년 13위로 중하위권이었으나 2021년 6위로 상승, 중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6년 9위에서 2019년 17위까지 순위가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202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지표이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역시 전년 대비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2020년 17위에서 2021년 1위로 상승하였다. 반면 육아휴직자 성비는 2020년 대비 하락하여 12위에 위치한다.

문화·정보 분야는 2020년 9위 중상위권에서 2021년 12위로 중하위권으로 하락하였는데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의 순위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20년 2위에서 2021년 11위로 하락하였으며, 여가시간 성비는 2021년 15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9위이다.

〈표 IV-17〉 대전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1.7	6	73.1	4	74.4	2	74.2	7	74.9	5	75.4	5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3.1	5	71.7	8	73.3	7	72.3	10	73.9	7	74.1	8
성별 임금격차	58.9	11	62.4	5	63.8	5	64.8	6	66.2	2	65.0	7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83.1	2	85.1	1	86.1	2	85.6	5	84.6	6	87.0	2
○ 의사결정	39.5	1	37.2	4	43.0	5	47.9	2	48.3	1	50.7	1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40.7	2	40.8	2	50.7	1	50.7	1	50.9	1	51.0	1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3.9	4	34.1	4	33.6	6	35.4	10	31.2	9	37.2	8
관리자 비율 성비	18.9	5	8.9	15	19.7	13	32.9	3	38.7	2	38.7	2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64.5	1	64.9	3	68.2	3	72.4	3	72.5	3	76.0	2
○ 교육·직업훈련	94.9	8	95.1	8	95.2	8	95.4	9	95.6	9	95.7	9
평균교육연수 성비	89.8	8	90.1	8	90.5	8	90.8	9	91.1	9	91.4	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0.1	3	91.3	3	90.5	4	89.8	5	88.9	5	87.5	6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9.4	5	90.9	5	91.4	7	91.2	7	91.6	8	93.1	8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0.7	8	91.7	9	89.6	7	88.4	8	86.2	8	82.0	7
○ 보건	98.4	3	98.8	1	98.1	5	98.5	2	98.9	1	98.2	2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7	2	98.0	2	98.2	1	97.9	2	97.9	2	97.9	2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8.3	5	98.4	5	98.8	5	97.7	5	98.6	4	98.9	4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99.3	8	100.0	1	97.3	13	100.0	1	100.0	1	97.6	8
○ 안전	68.8	11	67.3	14	67.3	14	72.0	14	76.4	10	78.1	9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1.3	13	63.1	14	64.3	13	73.3	10	79.0	8	82.5	4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6.4	10	71.5	12	70.3	13	70.7	14	73.8	14	73.6	14
○ 가족	58.5	5	58.6	10	56.5	16	61.5	13	61.0	15	66.4	8
가사노동시간 성비	31.6	2	32.6	3	33.7	4	34.7	4	35.9	4	37.0	4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4.4	9	89.7	16	85.4	16	87.1	17	88.9	13	95.8	6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9.0	8	100.0	1	88.0	16	97.9	14	88.2	17	100.0	1
육아휴직자 성비	8.8	10	12.3	10	19.0	11	26.3	10	31.2	10	32.9	12
○ 문화·정보	90.8	1	90.6	3	90.2	3	87.8	7	86.2	9	83.3	12
여가시간 성비	78.3	2	75.9	6	73.3	9	70.6	12	67.7	14	64.5	15
여가만족도 성비	99.5	3	100.0	1	100.0	1	94.9	8	92.5	10	90.2	9
인터넷 이용률 성비	94.7	6	96.0	4	97.2	3	97.8	3	98.5	2	95.2	1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대전광역시 2016년 이후 2018년(중상위권)을 제외하고 성평등 수준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2021년 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에 속하며,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에 속한다. 분야별로는 경제 활동, 의사결정, 보건 분야가 상위권이고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가족 분야가 중상위권, 문화·정보는 중하위권이다.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대전광역시 2017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하다 2018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지만 2019년 상위권으로 재진입하였고 2021년에도 상위권에 속한다.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

2016년과 비교하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순위가 상승하였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순위가 하락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 분야가 상위권이고, 하위권인 분야는 없다.

성평등 지표 중 상위권 지표는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검진 수검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등 10개의 지표이며, 하위권 지표는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등 2개 지표이다.

전체적으로 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순위 하락이 있었으나 보건 분야는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의 대폭적인 개선과 더불어 대체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하락을 보인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 7개 지표에 대한 하락 원인 점검과 개선방안 도출이 요구되며, 성평등 수준이 50점 미만으로 낮은 지표 역시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V-18〉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
		하위	-
	지표	상위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하위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여가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복지와 보건 분야가 전년도 대비 한 단계 하락하나 보건은 상위권을 차지하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대폭 상승과 더불어 대체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함.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9단계 낮아져 큰 하락을 보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여가 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7. 울산광역시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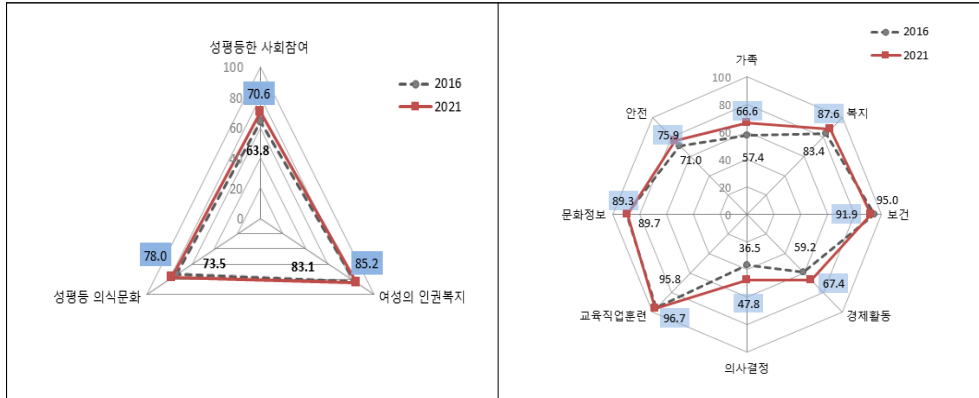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는 2021년 종합순위에서 중상위권이다. 종합순위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6년 하위권에서 2017년 중하위권, 2018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가 2019년 중하위권으로 다시 한 단계 하락하였다. 2020년 다시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여 2021년에도 변동없이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20년과 동일하게 8위를 기록하였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20년 14위에서 2021년 15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역시 2020년 1위에서 2021년 2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다.

〈표 IV-19〉 울산광역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하위권	63.8	10	83.1	15	73.5	4
2017	중하위권	66.4	7	84.5	14	76.1	1
2018	중상위권	68.5	9	85.6	9	78.4	1
2019	중하위권	67.0	13	85.8	13	78.5	1
2020	중상위권	69.9	8	86.4	14	80.9	1
2021	중상위권	70.6	8	85.2	15	78.0	2
2020년 대비	동일	0.7	-3	0.4	-	1.1	4
2016년 대비	1단계 상승	6.8	-4	0.3	-	3.0	9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7] 울산광역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6년 10위에서 2017년 7위로 상승하였다가 2018년 9위, 2019년 13위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20년 다시 8위로 상승하여 2021년 역시 8위를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2016년 이후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모두 하위권에 속한다. 2021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7위, 성별임금격차 16위,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15위이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6년 4위, 2017년 3위, 2018년 2위로 개선되었으나 2019년에 8위로 하락하였고 2020년에 다시 2위로 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 2021년 역시 2위에 위치하며,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등 3개 지표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8년 이후 계속해서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17년 이후 점차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어 2019년 이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16년 1위에서 2019년 15위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0년 5위로 상승, 2021년 역시 5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은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하여 10위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 분야로 평균교육연수 성비가 5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가 1위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2016년 이후 완전 성평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으로 2018년 9위에서 2019년 13위, 2020년 14위, 2021년 15위로 지속적으로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2016년 14위에서 2018년 11위, 2020년 8위, 2021년 5위로 순위가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2020년 14위에서 한 단계 상승하여 2021년에 13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역시 2020년 5위에서 2021년 4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반면 보건 분야 및 안전 분야는 2021년 각각 17위와 14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건 분야는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7위에 해당하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6년~2018년 16위에서 2019년 이후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2021년 17위로 2018년 1위에서 크게 하락하였다.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20년 6위에서 2021년 13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반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20년과 동일하게 13위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성평등 수준이 높은 영역으로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1위를 차지한 이후 2020년까지 줄곧 1위를 유지하였으며, 2021년 한 단계 하락하여 2위를 기록했다.

가족 분야는 2016년 10위에서 2017년 이후 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나 2021년 6위로 하락하여 중상위권에 위치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9년 이후 1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역시 2021년 17위를 기록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6년 1위, 2017년 8위, 2018년 1위, 2019년 17위, 2020년 1위, 2021년 17위로 순위변동이 큰 지표이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전년 대비 세 단계 하락한 7위에 위치하며, 육아휴직자 성비는 계속해서 상위권으로 2020년에 이어 1위를 기록하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7년 1위로 상위권이 된 이후 2021년까지 상위권에 속한다. 2021년 순위는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2위이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7년 이후 계속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7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다 2021년 6위로 하락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9년 7위에서 2020년 4위, 2021년 1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온 지표이다.

〈표 IV-20〉 울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59.2	16	63.3	16	63.2	16	65.9	17	66.2	17	67.4	17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59.1	16	62.5	16	64.5	16	65.5	17	63.2	17	66.6	17
성별 임금격차	50.1	16	52.2	15	50.0	16	53.6	17	57.2	16	56.3	16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68.3	16	75.3	16	75.1	16	78.6	16	78.3	17	79.4	15
○ 의사결정	36.5	4	39.9	3	46.1	2	38.9	8	47.1	2	47.8	2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9.6	6	29.6	6	42.1	5	42.1	5	42.3	5	42.4	5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5.2	8	28.9	9	36.5	5	47.1	2	43.7	2	50.2	2
관리자 비율 성비	42.6	1	40.6	1	38.7	2	0.0	15	33.8	5	33.8	5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48.7	9	60.4	5	66.9	4	66.3	8	68.4	8	64.8	10
○ 교육·직업훈련	95.8	2	96.0	2	96.2	2	96.3	4	96.5	4	96.7	5
평균교육연수 성비	91.7	2	92.0	2	92.4	2	92.7	4	93.0	4	93.4	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3.4	14	85.4	14	87.2	11	87.1	12	87.8	8	87.6	5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0.6	16	74.4	16	80.3	14	81.7	15	85.4	14	88.3	13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6.2	1	96.3	2	94.2	3	92.6	4	90.1	5	86.9	4
○ 보건	95.0	16	95.2	16	95.5	16	94.1	17	93.4	17	91.9	17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2	7	98.4	1	98.2	2	97.2	7	97.2	7	97.2	7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88.1	16	88.9	16	88.4	16	87.4	17	86.4	17	86.2	17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99.7	6	98.4	9	100.0	1	97.7	10	96.8	15	92.3	17
○ 안전	71.0	8	72.9	6	74.0	7	76.2	7	78.0	6	75.9	14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4.6	9	68.0	7	69.7	7	76.2	8	80.1	6	76.2	13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7.5	7	77.7	6	78.4	4	76.2	10	76.0	13	75.7	13
○ 가족	57.4	10	60.4	3	65.8	1	66.5	3	71.0	1	66.6	6
가사노동시간 성비	27.5	13	27.2	15	27.0	16	26.7	17	26.5	17	26.2	17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0.3	16	93.5	8	96.6	4	96.6	2	96.7	4	95.6	7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99.0	8	100.0	1	92.2	17	100.0	1	83.6	17
육아휴직자 성비	11.9	3	21.8	2	39.5	2	50.4	2	60.9	1	61.0	1
○ 문화·정보	89.7	5	91.8	1	91.1	1	90.4	2	90.8	1	89.3	2
여가시간 성비	76.7	5	76.3	3	75.9	3	75.4	3	74.9	3	74.4	3
여가만족도 성비	94.3	5	100.0	1	100.0	1	100.0	1	100.0	1	95.6	6
인터넷 이용률 성비	98.1	1	99.1	1	97.3	2	95.9	7	97.4	4	98.0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하면, 2019년 중하위권에서 2020년 이후 중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70.6점, 8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15위로 전년과 동일하게 하위권에 위치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으나 2위로 여전히 상위권이다. 8개 분야 중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 가족 분야가 중상위권,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가 하위권으로 분야간 편차가 큰 편이다.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울산광역시는 2016년 하위권에서 2017년~2019년 중하위권, 2020년~2021년 중상위권으로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으로 영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2016년 대비 순위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10위에서 8위로 상승한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15위로 동일하며,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4위에서 2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이고,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가 하위권이다.

성평등 지표 중에서는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성비,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인터넷이용률 등 9개의 지표가 상위권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등 7개의 지표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울산광역시는 복지 분야는 소폭 상승한 반면 교육·직업훈련,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는 소폭 하락함에 따라 성평등 종합등급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은 성평등 순위가 낮은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가사노동시간 지표와 2021년 크게 하락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에 대한 관리 역시 요구된다. 또한 전년 대비 하락을 보인 성별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등의 지표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IV-21〉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하위권 → 2020년 중상위권 → 2021 중상위권	
	분야	상위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하위	경제활동, 보건, 안전
	지표	상위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인터넷이용률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복지 분야의 소폭 상승과 더불어 교육·직업훈련,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에서의 소폭 하락과 함께 성평등 종합등급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다만 가족 분야 내 셋째 아 출생성비가 대폭적으로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li>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가사노동시간</li> <li>○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li> </ul>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8. 세종특별자치시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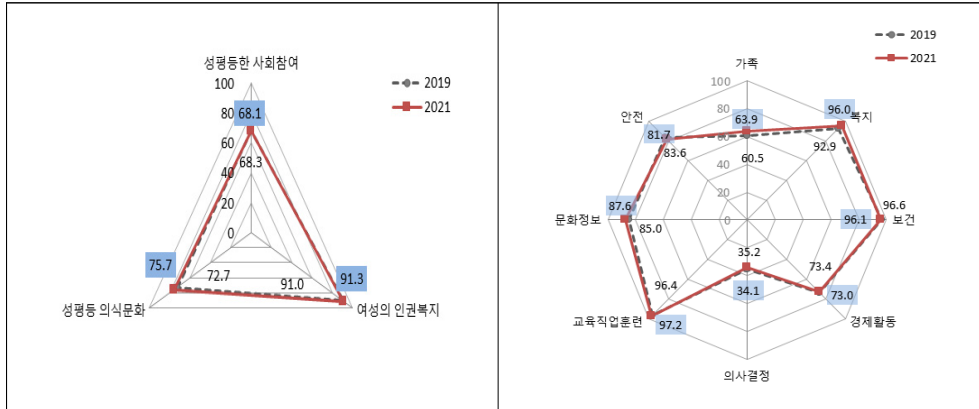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년 종합순위에서 중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종합순위의 변동을 보면, 2019년 중상위권, 2020년 중상위권에서 2021년 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전년 대비 세 단계 하락한 14위를 기록,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9년 이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9년 15위에서 2020년 10위, 2021년 6위로 성평등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영역이다.

〈표 IV-2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9	중상위권	68.3	10	91.0	1	72.7	15
2020	중상위권	68.0	11	90.9	1	74.6	10
2021	상위권	68.1	14	91.3	1	75.7	6
2020년 대비	동일	0.1	3.0	0.4	0.0	1.1	-4.0
2019년 대비	동일	-0.2	4.0	0.3	0.0	3.0	-9.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V-8]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제활동 분야는 2021년 12위로 2020년 7위에서 하락하였다. 경제활동 분야에 속하는 세 지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였는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20년 13위에서 2021년 15위로 하락하였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2020년 9위에서 2021년 11위로 하락하였다.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역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다.

의사결정 분야는 15위로 2020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10위이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여 2021년 7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17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은 5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9년 이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교육연수 성비 지표는 2019년 이후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완전 평등 수준인 100.0점으로 1위에 위치하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을 보면 2021년 복지 분야는 1위, 보건 분야는 12위, 안전 분야는 3위로 분야별 편차가 큰 편이다. 복지 분야는 계속하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2019년~2020년 2위, 2021년 1위이다. 복지 분야의 지표를 보면 2021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지표는 전년과 동일하게 7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1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분야는 2020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여 12위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및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지표는 2019년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15위로 하위권이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및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지표가 모두 1위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가 보건 분야의 낮은 순위의 요인으로 보인다.

안전 분야는 2019년 1위에서 2020년 4위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한 단계 상승하여 3위를 기록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20년 10위에서 2021년 12위로 하락하였으나,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의 순위는 2019년 이후 동일하게 1위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 분야가 15위로 하위권이고 문화·정보 분야는 5위로 상위권에 위치한다. 가족 분야는 2019년 15위, 2020년 16위, 2021년 15위로 모두 하위권에 속한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12위이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20년 1위에서 2021년 12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20년 17위에서 두 단계 상승하여 2021년 1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 성비는 11위에 위치한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9년 14위에서 2020년 6위, 2021년 5위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분야이다. 지표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 지표가 2019년 17위에서 2021년 12위로 개선되었으며, 여가만족도 성비 지표가 2019년 13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다. 반면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2020년 1위에서 2021년 7위로 하락,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하면, 2019년~2020년 중상위권에서 2021년 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68.1점, 14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9년 이후 1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9년 72.7점, 15위에서 2021년 75.7점, 6위로 점수 및 순위가 상승하였다.

〈표 IV-23〉 세종특별자치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3.4	10	74.1	7	73.0	12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0.3	14	70.2	13	69.9	15
성별 임금격차	65.1	4	64.3	9	63.3	11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84.7	7	87.9	4	85.8	5
○ 의사결정	35.2	11	33.0	15	34.1	15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7.9	10	27.9	10	28.0	10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43.5	5	33.8	6	37.5	7
관리자 비율 성비	0.0	15	0.0	17	0.0	17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69.5	4	70.4	5	71.0	5
○ 교육·직업훈련	96.4	2	96.8	2	97.2	2
평균교육연수 성비	92.8	2	93.6	2	94.4	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2.9	2	95.0	2	96.0	1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9.6	8	94.6	7	97.1	7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6.1	1	95.3	1	95.0	1
○ 보건	96.6	10	96.5	11	96.1	12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8.4	1	98.4	1	98.4	1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1.5	16	91.2	15	90.4	15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100.0	1	100.0	1	99.6	1
○ 안전	83.6	1	81.2	4	81.7	3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7.9	6	76.2	10	76.6	1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89.3	1	86.1	1	86.7	1
○ 가족	60.5	15	61.0	16	63.9	15
가사노동시간 성비	32.6	8	32.6	11	32.6	12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87.9	16	84.0	17	92.7	15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4.9	15	100.0	1	95.9	12
육아휴직자 성비	26.4	9	27.4	14	34.4	11
○ 문화·정보	85.0	14	88.2	6	87.6	5
여가시간 성비	66.8	17	66.8	15	66.8	12
여가만족도 성비	89.9	13	98.0	5	100.0	1
인터넷 이용률 성비	98.5	2	99.7	1	95.9	7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중상위권에서 2021년 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14위로 하위권인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1위로 상위권에 위치한다.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은 6위로 중상위권에 속해 영역 간 순위 차이가 큰 편이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에 속하는 분야이며, 의사결정, 가족 분야는 하위권에 속한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건강관련 삶의 질,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여가만족도 등 총 9개 지표가 상위권에 속하였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자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가족관계 만족도 등 4개 지표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전년 대비 종합등급이 상승한 이유는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소폭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결정 분야와 가족 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분야의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 지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이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 등 8개 지표에 대해서는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선 전략이 요구된다.

〈표 IV-24〉 세종특별자치시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상위권 →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문화·정보
		하위	의사결정, 가족
	지표	상위	상용근로자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여가만족도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가족관계 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소폭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모두 상위권을 차지함. 경제활동 분야 내 모든 지표가 소폭 감소하여 해당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고, 셋째 아 이상 출생비 지표가 11단계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li> <li>○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관리자 비율</li> <li>○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인터넷 이용률</li> </ul>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9. 경기도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경기도 종합순위는 중상위권이다. 2016년과 2017년 중하위권이었으나 2018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여 2021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이 9위로 중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 각각 4위와 5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6년 84.4점, 12위에서 2021년 87.6점, 4위로 꾸준히 점수 및 순위가 상승한 영역이다. 성평등한 사회 참여 및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6년 이후 점수는 개선되어 왔으나 순위에 있어서는 변동을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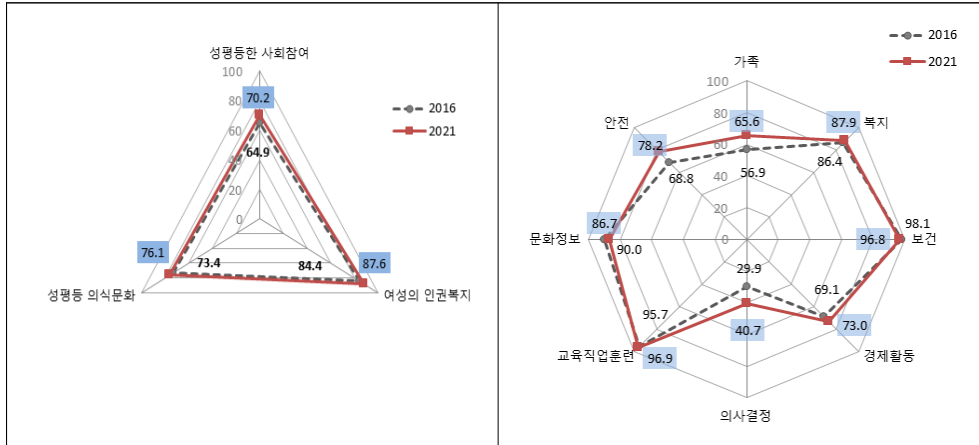
〈표 IV-25〉 경기도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중하위권	64.9	7	84.4	12	73.4	5
2017	중하위권	65.8	9	85.1	10	73.9	6
2018	중상위권	69.3	7	85.8	8	74.9	5
2019	중상위권	69.8	7	86.5	9	75.6	7
2020	중상위권	69.4	9	87.3	7	75.7	7
2021	중상위권	70.2	9	87.6	4	76.1	5
2020년 대비	동일	0.8	-	0.3	3	0.4	2
2016년 대비	1단계 상승	5.3	-2	3.2	8	2.7	-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된 경제 활동 분야는 11위, 의사결정 분야는 10위,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3위이다. 교육·직업 훈련 분야가 2016년 이후 3위를 유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 분야 및 의사결정 분야는 2020년에 이어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IV-9] 경기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경제활동 분야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20년 16위에서 두 단계 상승하여 2021년 14위를 차지하였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9위에 위치하였다.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등락 폭이 큰 지표로 2016년 8위에서 2017년 3위, 2018년 1위까지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2019년 9위로 하락, 2020년 다시 5위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 10위로 다섯 단계 하락하였다.

의사결정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하여 16위로 하위권에 있으며, 관리자 비율 성비는 13위로 중하위권이다.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16년 12위에서 2019년 6위까지 개선되었으나 2020년 다시 13위로 하락한 후 2021년 역시 13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은 9위로 중상위권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한 분야로 2016년 이후 계속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100점으로 2016년 이래 완전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교육연수 성비 또한 2016년 이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교육연수 성비는 순위는 동일하지만 점수는 매년 향상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꾸준히 개선되어 2021년 4위로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복지 분야는 2017년 이래 조금씩 상승하여 2021년 4위를 달성하였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순위는 하락하였으나 점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소폭 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2~3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는 2017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어 왔는데, 2017년 12위에서 2018년 9위, 2020년 6위, 2021년 4위이다. 지표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3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6위, 관리자 비율 성비 13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9위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및 관리자 비율 성비의 순위는 2020년과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은 한 단계 상승했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20년 14위에서 2021년 16위로 두 단계 하락했으며, 2016년과 비교해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를 제외한 세 가지 지표 모두 순위가 낮아졌다.

보건 분야는 2021년 10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2017년 3위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는 2019년 이후 4위를 유지하여 상위권에 위치하며,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역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위로 상위권에 위치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 모두 6위로 중상위권으로 하락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21년 11위로 중하위권이다.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개선되어 8위에 위치한다. 구성 지표인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20년 73.8점, 13위에서 2021년 77.4점, 10위로 점수 및 순위가 상승하였다.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9년 이후 6위에 위치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6년 73.4점, 2017년 73.9점, 2018년 74.9점, 2019년 75.6점, 2020년 75.7점, 2021년 76.1점으로 지속적으로 점수가 개선되어 왔으나 순위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21년 순위는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5위이다.

가족 분야의 경우 2017년 13위에서 2018년 9위로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다시 등락을 반복하다 2021년 10위를 기록하였다. 지표별로는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8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가 9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11위, 육아휴직자 성비가 10위이며,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표이다.

문화·정보 분야는 2020년 7위였으나 2021년 6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지표별로는 여가시간 성비가 11위, 여가만족도 성비가 4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가 6위로 각각 중하위권, 상위권,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여가시간 성비는 2018년 이후 11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7년 1위에서 2019년 4위, 2020년 6위로 하락하다 2021년 두 단계 상승하였다.

〈표 IV-26〉 경기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9.1	10	70.8	7	72.3	8	72.4	13	72.3	13	73.0	1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8.9	13	68.9	13	69.2	14	70.5	13	69.0	16	70.5	14
성별 임금격차	58.9	12	60.8	10	61.7	10	62.7	11	63.1	11	63.6	9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9.6	8	82.7	3	86.2	1	84.1	9	84.9	5	85.0	10
○ 의사결정	29.9	7	30.6	10	39.4	7	40.6	6	39.1	10	40.7	10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31.7	4	31.8	4	46.8	3	46.8	3	47.0	3	47.1	3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4.1	9	24.3	11	24.7	12	25.2	14	22.4	14	25.7	16
관리자 비율 성비	12.6	12	10.6	14	24.9	9	24.7	6	21.1	13	21.1	13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51.2	6	55.8	9	61.4	10	65.8	9	66.0	10	69.0	9
○ 교육·직업훈련	95.7	3	95.9	3	96.1	3	96.4	3	96.6	3	96.9	3
평균교육연수 성비	91.3	3	91.8	3	92.3	3	92.8	3	93.2	3	93.7	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6.4	10	87.5	12	87.7	9	87.9	9	88.2	6	87.9	4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7.3	12	79.2	12	81.1	13	82.5	14	84.0	15	85.6	15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5.4	3	95.8	3	94.4	2	93.3	3	92.5	3	90.3	3
○ 보건	98.1	6	98.0	3	98.2	4	97.6	5	97.3	8	96.8	10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3	5	97.4	6	97.6	7	97.5	4	97.5	4	97.5	4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6.9	11	96.7	11	97.0	12	95.3	11	95.1	11	94.8	11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99.4	6	98.1	6
○ 안전	68.8	12	69.7	9	71.3	8	74.0	11	76.3	11	78.2	8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1.3	12	63.5	12	64.9	11	70.4	14	73.8	13	77.4	10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격차	76.3	11	76.0	8	77.7	5	77.5	6	78.8	6	79.0	6
○ 가족	56.9	12	58.1	13	60.7	9	62.6	10	64.0	9	65.6	10
가사노동시간 성비	27.8	11	29.4	11	30.9	10	32.4	10	34.0	9	35.5	8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2.6	12	92.9	10	93.2	7	92.0	9	90.9	10	94.2	9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8.0	9	96.4	14	98.6	10	100.0	1	99.7	9	97.4	11
육아휴직자 성비	9.2	6	13.6	8	20.2	10	25.9	11	31.4	8	35.2	10
○ 문화·정보	90.0	4	89.8	5	89.1	6	88.6	5	87.5	7	86.7	6
여가시간 성비	76.1	8	74.5	9	72.7	11	70.9	11	68.9	11	66.9	11
여가만족도 성비	99.5	4	100.0	1	100.0	1	98.7	4	97.8	6	96.8	4
인터넷 이용률 성비	94.4	8	94.9	9	94.6	11	96.1	6	95.8	8	96.3	6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순위가 상승하여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 및 복지 분야가 유일하다.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없으나 안전 및 문화·정보 분야를 제외한 경제활동, 의사 결정, 보건, 가족 분야가 모두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경기도는 2021년 종합등급 중상위권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2016년 대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순위는 7위에서 9위로 하락하였으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순위는 12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순위는 동일하다. 분야별로 교육·직업훈련, 복지 분야가 상위권이고, 하위권인 분야는 없다.

상위권에 포함된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평균교육연수 성비,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 여가만족도 지표로 총 6개이다. 반면 하위권에 속하는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적 연금가입자 성비 등 3개 지표이다.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 관계 만족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의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상용근로자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비, 육아휴직자 지표는 소폭 하락하여 종합등급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은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들(기초생활수급자, 건강점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30점 미만인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지표 역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표 IV-27〉 경기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상위권 → 2020년 중상위권 → 2021년 중상위권	
	분야	상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하위	-
	지표	상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여가만족도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의 개선과 더불어 상용근로자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셋째 아 이상 출생비, 육아휴직자 지표가 소폭 하락하여 종합등급이 중상위권에 위치함. 교육·직업훈련, 복지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셋째 아 이상 출생생비, 여가 시간, 여가만족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10. 강원도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강원도의 성평등 종합순위는 중하위권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중하위권이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강원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9.0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이다. 2020년 대비 1.2점 그리고 1단계 순위 상승하였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4.4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오히려 4단계 하락하였다. 한편, 2021년 강원도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6.2점, 10위로, 2020년 대비 0.8점, 1단계 하락하였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0.8점, 4단계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강원도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4.6점으로 13위다. 2020년 대비 0.7점 증가했으나 순위 변화는 없었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3.4점 증가했으나, 순위는 오히려 1단계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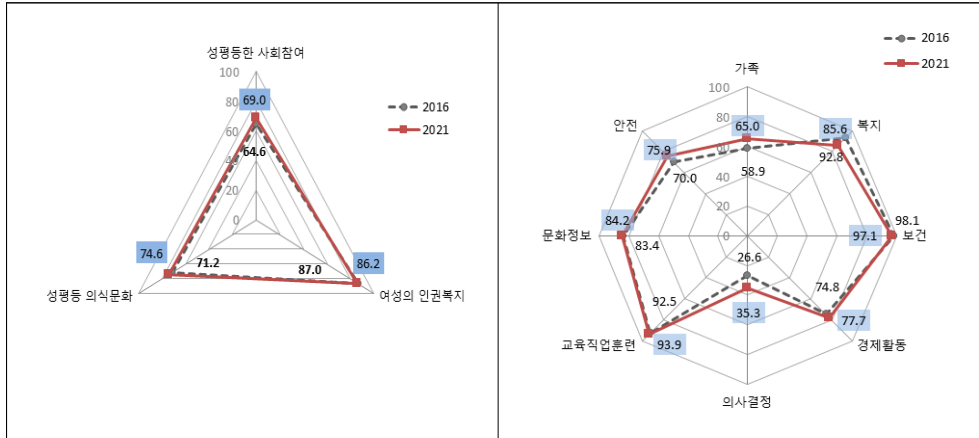
〈표 IV-28〉 강원도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중상위권	64.6	8	87.0	6	71.2	12
2017	중하위권	64.3	11	88.0	4	71.3	15
2018	중하위권	66.3	11	87.0	6	72.0	15
2019	중하위권	67.7	12	86.3	10	72.5	16
2020	중하위권	67.8	13	87.0	9	73.9	13
2021	중하위권	69.0	12	86.2	10	74.6	13
2020년 대비	동일	1.2	1	-0.8	-1	0.7	-
2016년 대비	1단계 하락	4.4	-4	-0.8	-4	3.4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강원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7.7점, 3위였다. 2020년 대비 2.3점, 1단계 순위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는 81.9점(2위), 성별 임금 격차는 65.5점(6위),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85.6점(7위)이었다. 2020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3.1점, 성별 임금 격차는 0.2점,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3.7점 상승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및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순위변동이 없었고,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13위에서 7위로 6단계 상승하였다.



[그림 IV-10] 강원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1년 강원도 의사결정 종합점수는 35.3점으로 14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는 0.8점 증가했으나, 순위는 오히려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5.8점(13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36.1점(10위), 관리자 비율 성비는 26.1점(8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53.3점(17위)이었다. 전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2개 지표는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점수는 4.4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8위에서 10위로 2단계 하락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의 경우 점수는 1.2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2021년 강원도 교육·직업 훈련 분야 종합점수는 93.9점, 순위는 14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는 0.2점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 교육연수 성비 점수는 87.9점(14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100.0점(1위)이다. 전년 대비 평균 교육연수 성비 점수는 0.6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의 경우 2021년 종합점수는 85.6점이고 순위는 7위였다. 2020년 대비 4.1점, 순위는 3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100.0점(1위),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71.1점(14위)이었다. 2020년과 비교,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점수 및 순위변동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8.3점 감소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보건의 경우 2021년 종합점수는 97.1점이고 순위는 7위였다. 2020년 대비 0.3점, 순위는 3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강원도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성비는 96.0점(15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96.7점(8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98.7점(4위)이었다. 2020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점수 및 순위변동이 없는 반면,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0.2점, 1단계 순위 하락했다. 한편,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1.2점, 8단계 순위 상승하였다.

안전의 경우 2021년 종합점수는 75.9점이고 순위는 15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는 1.5점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강원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73.6점(15위)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는 78.2점(8위)이었다. 2020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3.1점 증가했고 순위도 2단계 상승했다. 반면,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의 경우 0.1점 아주 소폭 감소했고 순위변동도 없었다.

가족의 경우 2021년 종합점수는 65.0점, 순위는 11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는 0.9점 증가했으나 순위는 3단계 떨어졌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강원도 가사노동 시간 성비는 36.4점(7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3.4점(11위),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는 97.5점(10위), 육아휴직자 성비는 32.6점(13위)이었다. 전년 대비,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1.0점(2단계 순위 하락),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7점(순위 동일), 육아휴직자 성비는 2.2점(1단계 순위 하락) 증가한 반면,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2.5점 감소(9단계 순위 하락)하였다. 상대적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순위가 9단계 크게 하락, 가족 분야 종합 순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1년 강원도 종합점수는 84.2점, 순위는 9위였다. 2020년 대비, 평균 점수는 0.6점 증가했고, 순위는 4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여가 시간 성비는 68.7점(9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93.4점(7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0.6점(15위)이다. 2020년 대비 여가 시간 성비는 1.4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1단계 상승했다. 여가만족도 성비는 4.9점 상승했고 순위는 5단계 상승했다. 한편,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1.6점, 1단계 하락하였다.

2021년 강원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로 17개 시도 중 3위였고,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안전으로 17개 시도 중 15위였다. 분야별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문화·정보(13위→9위), 보건(10위→7위), 경제활동(4위→3위)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가족(8위→11위), 복지(4위→7위), 의사결정(13위→14위) 분야는 순위가 하락하였다. 그리고 교육·직업훈련(14위) 그리고 안전(15위)은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강원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4.8	2	73.0	5	73.0	7	74.9	2	75.4	4	77.7	3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6.6	2	77.7	2	77.5	2	78.9	2	78.8	2	81.9	2
성별 임금격차	60.6	9	60.5	11	62.1	8	64.0	8	65.3	6	65.5	6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87.1	1	80.8	6	79.3	11	81.7	13	81.9	13	85.6	7
○ 의사결정	26.6	10	27.2	14	32.9	12	34.7	13	34.5	13	35.3	1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7.8	14	17.8	14	25.7	12	25.7	13	25.8	13	25.8	13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2.4	11	29.0	8	31.6	7	37.1	8	31.7	8	36.1	10
관리자 비율 성비	27.2	2	17.5	11	20.4	12	22.1	9	26.1	8	26.1	8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38.8	13	44.4	13	54.1	13	54.1	17	54.5	17	53.3	17
○ 교육·직업훈련	92.5	13	92.8	13	93.1	13	93.4	14	93.7	14	93.9	14
평균교육연수 성비	84.9	13	85.5	13	86.1	13	86.7	14	87.3	14	87.9	1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2.8	2	94.9	2	93.3	2	91.7	3	89.7	4	85.6	7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5.9	2	98.8	2	100.0	1	100.0	1	100.0	1	100.0	1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8	10	91.0	11	86.5	13	83.4	14	79.4	14	71.1	14
○ 보건	98.1	7	97.6	8	96.9	11	95.6	15	96.8	10	97.1	7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9	10	96.8	11	96.2	13	96.0	15	96.0	15	96.0	15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8	6	97.6	7	97.5	7	96.7	7	96.9	7	96.7	8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99.5	7	98.4	10	97.0	15	94.1	17	97.5	12	98.7	4
○ 안전	70.0	9	71.4	8	71.0	9	71.5	15	74.4	15	75.9	15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2.7	11	66.3	9	68.5	9	69.6	15	70.5	17	73.6	15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7.4	9	76.6	7	73.4	11	73.4	12	78.3	8	78.2	8
○ 가족	58.9	3	59.5	6	61.2	7	62.8	8	64.1	8	65.0	11
가사노동시간 성비	31.3	3	32.3	4	33.3	5	34.3	5	35.4	5	36.4	7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2.8	11	90.8	15	88.9	12	89.8	13	90.7	11	93.4	1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9.5	6	100.0	1	100.0	1	99.1	10	100.0	1	97.5	10
육아휴직자 성비	12.1	2	15.1	6	22.8	6	27.9	7	30.4	12	32.6	13
○ 문화·정보	83.4	14	83.0	14	82.8	14	82.2	15	83.6	13	84.2	9
여가시간 성비	74.8	13	73.7	12	72.6	12	71.4	10	70.1	10	68.7	9
여가만족도 성비	85.3	13	85.6	13	84.9	14	84.3	15	88.5	12	93.4	7
인터넷 이용률 성비	90.2	15	89.6	15	90.8	15	90.9	16	92.2	14	90.6	15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1년 강원도의 종합등급은 중하위권이였다. 2021년 기준 경제활동 분야는 상위권에 속하고 의사결정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안전 분야는 하위권에 속했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 가입자, 스트레스 인지율은 상위권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인터넷 이용률은 하위권에 속했다.

전년과 비교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여가 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은 순위가 하락함에 따라 중하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성평등 등급은 중하위권으로 2019년 이래 동일한 등급이다. 강원도는 8개 분야 중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안전 분야가 하위권으로 성평등 개선은 이들 분야의 개선을 위한 분석과 대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2021년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이었던 지표(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와 성평등 점수가 3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에 대한 점검과 성 격차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 대비 성평등이 낮아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등에 대해서 하락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IV-30〉 강원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하위권 →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하위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스트레스 인지율
		하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안전 분야가 하위권이며,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등의 지표에서 소폭 상승하나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인터넷 이용률,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등의 지표가 하락함에 따라 중하위권에 위치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11. 충청북도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충청북도 성평등 종합순위는 중하위권으로, 2020년 하위권에서 1단계 상승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1년 충청북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9.2점으로 10위였다. 2020년 대비 1.3점, 2단계 순위 상승했으며, 2016년 대비 6.0점, 1단계 상승했다. 둘째, 2021년 충청북도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6.5점으로 8위였다. 2020년 대비 0.7점, 8단계 순위 상승하였고 2016년 대비 3.2점, 6단계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충청북도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5.1점으로, 9위였다. 2020년 대비 0.8점, 3단계 순위 하락했다. 반면, 2016년과 대비해서는 3.9점, 4단계 순위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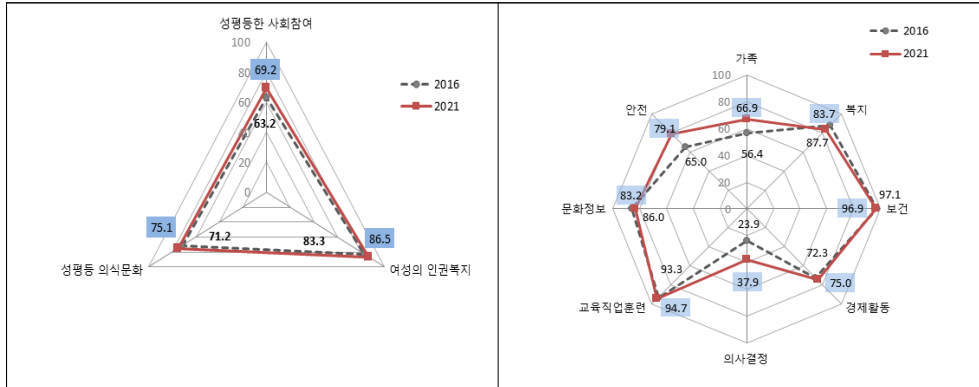
〈표 IV-31〉 충청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중하위권	63.2	11	83.3	14	71.2	13
2017	중하위권	66.2	8	85.0	11	72.6	11
2018	중상위권	68.2	10	86.4	7	74.7	7
2019	중하위권	68.4	9	85.9	12	76.9	4
2020	하위권	67.9	12	85.8	16	75.9	6
2021	중하위권	69.2	10	86.5	8	75.1	9
2020년 대비	1단계 상승	1.3	2	0.7	8	-0.8	-3
2016년 대비	1단계 상승	6.0	1	3.2	6	3.9	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충청북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5.0점으로 7위였다. 2020년 대비 1.2점, 2단계 순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는 75.4점(5위), 성별 임금 격차는 63.5점(10위),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86.0점(4위)이었다. 2020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0.4점, 성별 임금 격차는 1.5점,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1.6점 증가했고, 순위도 각각 1단계, 3단계, 4단계 상승했다.



[그림 IV-11] 충청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1년 충청북도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7.9점, 11위였다. 2020년 대비 성평등 점수는 2.4점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충청북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6.6점(11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36.0점(11위), 관리자 비율 성비는 14.6점(15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74.4점(4위)이었다. 전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0.1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5.6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3.7점 증가했고, 관리자 비율 성비는 점수 변동이 없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만 10위에서 11위로 1단계 하락했고, 그 외 지표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교육·직업 훈련 분야 2021년 종합점수는 94.7점, 12위였다. 2020년 대비 0.3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충청북도 평균 교육연수 성비 점수는 89.4점(12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0.5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 2021년 충청북도 점수는 83.7점, 순위는 11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는 2.5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1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충청북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91.2점, 10위였다. 전년 대비 점수는 1.5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한편, 2021년 충청북도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76.1점이고 9위로 전년 대비, 점수는 6.6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반대로 1단계 상승했다.

보건의 경우 2021년 충청북도 종합점수는 96.9점, 순위는 9위였다. 2020년 대비 0.7점, 3단계 상승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충청북도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성비는 96.6점(12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95.0점(10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99.1점(3위)이었다. 전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0.1점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0.3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2.2점 상승했고, 순위도 13위에서 3위로 크게 상승했다.

안전의 경우 2021년 종합점수는 79.1점, 6위였다. 2020년 대비 4.2점, 8단계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82.0점(5위),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는 76.2점(11위)이었다. 2020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8.6점 증가했고 순위도 14위에서 5위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의 경우 0.1점 아주 소폭 감소했고 순위변동은 없었다.

가족의 경우 2021년 종합점수는 66.9점, 순위는 4위였다. 2020년 대비, 3.9점, 6단계 순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35.3점(9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6.7점(3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100.0점(1위), 육아휴직자 성비는 35.7점(7위)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1.4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4점,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7.3점, 육아휴직자 성비는 4.5점 상승했다. 순위도 각각 1단계, 4단계, 13단계, 2단계 상승하였다. 상대적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 점수와 순위가 많이 증가했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1년 충청북도 종합점수는 83.2점, 순위는 13위였다. 2020년 대비, 5.6점 감소했고 순위는 9단계 하락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충청북도 여가 시간 성비는 67.7점(10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86.1점(11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5.8점(8위)이었다. 2020년 대비 여가 시간 성비는 2.6점, 여가만족도 성비는 12.0점,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1점 하락했고 순위도 각각 1단계, 7단계, 5단계 떨어졌다.

2021년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가족 분야로 17개 시도 중 4위였고,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문화·정보로 17개 시도 중 13위였다. 2020년과 대비, 경제활동(9위→7위), 복지(12위→11위), 보건(12위→9위), 안전(14위→6위), 가족 분야(10위→4위)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문화·정보(4위→13위)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의사결정(11위) 및 교육·직업 훈련(12위) 분야는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다.

〈표 IV-32〉 충청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2.3	4	73.5	3	74.2	4	74.0	8	73.8	9	75.0	7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5.2	3	74.6	4	71.7	9	73.6	8	75.0	6	75.4	5
성별 임금격차	62.8	1	64.4	1	64.7	3	61.9	12	62.0	13	63.5	10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8.8	9	81.4	5	86.1	3	86.5	1	84.4	8	86.0	4
○ 의사결정	23.9	12	31.6	7	36.5	10	37.1	9	35.5	11	37.9	11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0.8	11	20.9	11	26.2	11	26.3	11	26.5	11	26.6	11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3.6	10	26.8	10	29.3	10	31.5	11	30.4	10	36.0	11
관리자 비율 성비	0.0	15	22.4	7	28.0	5	22.3	8	14.6	15	14.6	15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51.1	7	56.4	8	62.7	8	68.2	7	70.7	4	74.4	4
○ 교육·직업훈련	93.3	11	93.6	11	93.9	11	94.2	12	94.4	12	94.7	12
평균교육연수 성비	86.6	11	87.2	11	87.8	11	88.3	12	88.9	12	89.4	1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7.7	8	89.0	8	87.2	12	86.6	13	86.2	12	83.7	11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3.7	8	85.4	8	86.5	9	87.4	10	89.7	9	91.2	10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1.8	5	92.7	6	87.8	9	85.7	11	82.7	10	76.1	9
○ 보건	97.1	9	96.8	13	97.7	10	95.8	14	96.2	12	96.9	9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9	9	96.7	12	97.0	11	96.5	12	96.5	12	96.6	12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4	8	97.3	8	97.2	11	95.2	12	95.3	10	95.0	10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97.0	12	96.3	15	98.8	9	95.7	15	96.9	13	99.1	3
○ 안전	65.0	14	69.2	10	74.4	6	75.4	8	74.9	14	79.1	6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2.5	16	63.9	11	73.1	5	73.3	11	73.4	14	82.0	5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격차	77.4	8	74.5	10	75.8	8	77.5	7	76.3	11	76.2	11
○ 가족	56.4	14	59.1	8	59.7	12	63.6	7	63.0	10	66.9	4
가사노동시간 성비	28.5	10	29.8	9	31.1	8	32.5	9	33.9	10	35.3	9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2.4	13	93.5	7	94.6	6	94.4	5	94.3	7	96.7	3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7.7	10	100.0	1	92.1	15	100.0	1	92.7	14	100.0	1
육아휴직자 성비	7.0	13	13.0	9	20.9	9	27.4	8	31.2	9	35.7	7
○ 문화·정보	86.0	9	86.2	10	89.6	4	90.2	3	88.8	4	83.2	13
여가시간 성비	79.5	1	77.3	2	75.1	4	72.8	8	70.3	9	67.7	10
여가만족도 성비	84.3	15	86.2	12	97.4	6	100.0	1	98.1	4	86.1	11
인터넷 이용률 성비	94.1	9	95.1	8	96.3	4	97.8	4	97.9	3	95.8	8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1년 충청북도 종합등급은 중하위권이였다. 2019년 중하위권에서 2020년에 하위권으로 하락했다가 2021년 다시 중하위권으로 상승하였다. 2021년 기준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가족뿐이었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없었다.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는 상위권에 속했으며, 관리자 비율은 하위권에 속했다.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분야가 순위 상승, 종합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지표별로는 특히, 셋째 아이 이상 출생비가 13단계 대폭 상승하였다.

충청북도는 2020년 이래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하위권에 포함된 분야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높지 못한 지표의 성비로 인해 성평등 수준이 높지 못하다. 이에 충청북도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자)와 3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지표 총 6개(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V-33〉 충청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하위권 → 2020년 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가족
		하위	-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하위	관리자 비율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종합점수에서 중하위권으로 재진입함. 셋째 아 이상 출생비가 대폭적으로 상승한 반면 문화·정보 분야 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지표가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12. 충청남도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충청남도 성평등 종합순위는 하위권으로, 2016년 이후 계속 하위권을 유지 중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1년 충청남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7.4점으로 15위이다. 2020년 대비 0.5점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2016년과 대비 5.8점, 2단계 하락했다. 둘째,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5.2점으로 14위였다. 2020년 대비 1.4점, 2단계 순위 하락했으나, 2016년과 대비해서는 3.2점, 2단계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충청남도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3.5점으로, 15위였다. 2020년 대비 1.7점, 6단계 하락했다. 2016년 대비해서는 점수는 2.7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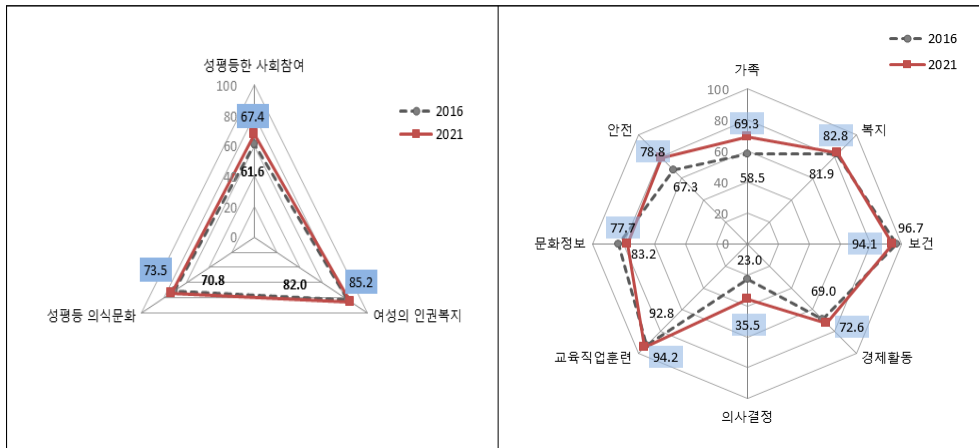
〈표 IV-34〉 충청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하위권	61.6	13	82.0	16	70.8	15
2017	하위권	63.1	14	83.5	15	72.1	14
2018	하위권	65.3	13	83.7	16	73.9	10
2019	하위권	66.5	14	85.3	16	76.2	6
2020	하위권	66.9	15	86.6	12	75.2	9
2021	하위권	67.4	15	85.2	14	73.5	15
2020년 대비	동일	0.5	-	-1.4	-2	-1.7	-6
2016년 대비	동일	5.8	-2	3.2	2	2.7	-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충청남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2.6점으로 13위였다. 2020년 대비 0.3점, 1단계 순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72.2점(12위), 성별 임금 격차는 63.2점(13위),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82.5점(13위)이었다. 2020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점수 변화는 없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0.1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1.0점, 4단계 하락했다.



[그림 IV-12] 충청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1년 충청남도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5.5점, 13위였다. 2020년 대비 1.6점, 1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31.1점(9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9점(17위),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0점(14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70.0점(8위)이었다. 2020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0.1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3.0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3.1점 증가했다. 한편, 관리자 비율 성비는 점수 변화가 없었다. 전년 대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만 9위에서 8위로 1단계 상승했고, 그 외 지표는 순위 변동이 없었다.

교육·직업 훈련 분야 2021년 충청남도 종합점수는 94.2점, 13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는 0.2점 소폭 증가했고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충청남도 평균 교육연수 성비 점수는 88.5점(13위),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성비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0.6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성비는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 2021년 충청남도 점수는 82.8점이고 순위는 14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는 2.1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오히려 2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충청남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82.9점(17위),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82.6점(6위)이었다. 2020년과 비교,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점수는 1.4점 상승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5.7점 하락했다. 순위는 두 분야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보건의 경우 2021년 충청남도 점수는 94.1점, 16위였다. 2020년 대비 1.2점, 1단계

순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96.0점(16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88.9점(16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97.5점(9위)이었다. 전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점수 및 순위변동이 없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1.0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2.5점, 8단계 크게 하락, 충청남도 보건 분야 하락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의 경우 2021년 점수는 78.8점이고 순위는 7위였다. 2020년 대비 0.8점, 2단계 순위가 하락하였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79.2점(8위),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는 78.4점(7위)이었다. 2020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1.5점, 3단계 하락했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0.1점 소폭 감소했으며 순위변동이 없었다.

가족의 경우 2021년 점수는 69.3점, 2위였다. 2020년 대비, 0.5점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는,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36.9점(5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3.7점(10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98.4점(9위), 육아휴직자 성비는 48.2점(2위)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4점, 육아휴직자 성비는 3.6점 상승했고 순위도 각각 2단계 그리고 1단계 상승했다.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2점,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1.6점 하락했고 순위도 각각 5단계, 8단계 하락했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1년 충청남도 점수는 77.7점, 순위는 16위였다. 2020년 대비, 4.0점 감소했고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충청남도 여가 시간 성비는 63.8점(17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74.0점(16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5.3점(10위)이다. 2020년 대비 여가시간 성비는 2.5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한편, 여가만족도 성비는 10.3점 하락했고 2단계 순위 하락했다. 반면,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0.7점 소폭 증가했고 순위는 2단계 상승했다.

2021년 충청남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가족 분야로 17개 시도 중 2위였다. 반면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보건 그리고 문화·정보 분야로 두 분야 모두 각각 17개 시도 중 16위였다. 2020년과 대비, 의사결정(14위→13위) 및 복지(16위→14위)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경제활동(12위→13위), 보건(15위→16위), 안전(5위→7위), 문화·정보(15위→16위) 분야는 하락했다. 교육·직업 훈련(13위) 그리고 가족(2위) 분야는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다.

〈표 IV-35〉 충청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9.0	11	68.8	13	72.1	10	71.9	14	72.9	12	72.6	13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6.6	15	67.9	14	71.1	10	71.9	12	72.2	11	72.2	12
성별 임금격차	59.7	10	61.1	8	61.7	12	61.3	13	63.1	12	63.2	13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80.8	7	77.5	12	83.6	5	82.6	11	83.5	9	82.5	13
○ 의사결정	23.0	14	27.3	13	30.3	15	33.8	15	33.9	14	35.5	13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8.3	12	18.4	12	30.7	9	30.7	9	31.0	9	31.1	9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5.8	16	16.2	16	19.0	16	19.1	17	17.9	17	20.9	17
관리자 비율 성비	17.7	7	28.6	3	15.7	15	23.3	7	20.0	14	20.0	14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40.0	12	46.0	12	55.9	11	62.2	11	66.9	9	70.0	8
○ 교육·직업훈련	92.8	12	93.1	12	93.4	12	93.7	13	94.0	13	94.2	13
평균교육연수 성비	85.5	12	86.1	12	86.7	12	87.3	13	87.9	13	88.5	1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1.9	15	85.0	15	84.9	15	85.1	16	84.9	16	82.8	14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4.6	14	76.7	14	78.4	15	80.3	16	81.5	17	82.9	17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2	11	93.4	5	91.4	6	90.0	6	88.3	6	82.6	6
○ 보건	96.7	11	96.6	14	96.7	13	95.9	12	95.3	15	94.1	16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3	13	96.4	14	96.2	15	96.0	16	96.0	16	96.0	16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4.8	14	94.5	14	94.3	14	91.8	14	89.9	16	88.9	16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98.9	10	99.0	6	99.5	5	100.0	1	100.0	1	97.5	9
○ 안전	67.3	13	69.0	11	69.6	13	75.0	9	79.6	5	78.8	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8.5	14	62.6	15	64.9	12	73.1	12	80.7	5	79.2	8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격차	76.0	12	75.3	9	74.3	10	76.9	8	78.5	7	78.4	7
○ 가족	58.5	6	59.6	5	62.2	5	65.6	4	68.8	2	69.3	2
가사노동시간 성비	26.3	16	28.1	13	30.1	12	32.2	11	34.5	7	36.9	5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5.7	6	94.0	6	92.4	8	94.1	7	95.9	5	93.7	10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100.0	1	100.0	1	98.9	11	100.0	1	98.4	9
육아휴직자 성비	11.8	4	16.2	5	26.3	4	37.1	3	44.6	3	48.2	2
○ 문화·정보	83.2	15	84.6	13	85.6	12	86.8	11	81.7	15	77.7	16
여가시간 성비	75.0	12	73.0	14	70.9	15	68.7	16	66.3	17	63.8	17
여가만족도 성비	83.4	16	86.8	11	90.9	11	94.5	9	84.3	14	74.0	16
인터넷 이용률 성비	91.1	14	93.9	12	95.1	8	97.4	5	94.6	12	95.3	1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1년 충청남도의 종합등급은 하위권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가족 분야가 유일했지만,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복지, 보건, 문화·정보 3개 분야였다.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자였다. 반면,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시간, 여가만족도로, 하위권에 속한 지표가 상위권에 속한 지표보다 더 많았다.

8개 분야 중 가족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하위권 혹은 중하위권이었다.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지표는 등급이 하락하여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충청남도의 성평등 종합등급은 2019년 이래 하위권으로 나타난다. 이에 성평등 개선은 8개 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표별로 보면, 2021년 기준 충청남도는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와 30점 미만 지표(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및 관리자 비율)에 대한 점검과 중장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 즉,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에 대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V-36〉 충청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하위권 →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분야	상위	가족
		하위	복지, 보건, 문화·정보
	지표	상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하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건강검진 수검률,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8개 분야 중 가족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하위권 혹은 중하위권이며, 경제 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지표가 전년 대비 하락하여 하위권에 위치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13. 전라북도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전라북도 종합순위는 하위권으로 2020년 중하위권에서 1단계 하락했다. 전라북도는 2016년 및 2017년 종합순위가 상위권이었으나, 2018년에 중하위권으로 하락하여 2020년까지 유지하다 2021년에 하위권으로 더 하락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1년 전라북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8.7점으로 13위였다. 2020년 대비 1.1점 상승했고, 순위도 1단계 상승했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5.8점, 상승했으나, 1단계 하락했다. 둘째,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3.4점으로 17개 시도 중 꼴등이었다. 2020년 대비 3.7점 하락했고 순위는 9단계 하락했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8.5점 하락했고, 16단계 크게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2021년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4.9점으로, 11위였다. 2020년 대비 1.2점, 3단계 상승했다. 2016년 대비해서는 점수는 2.8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3단계 하락했다.

〈표 IV-37〉 전라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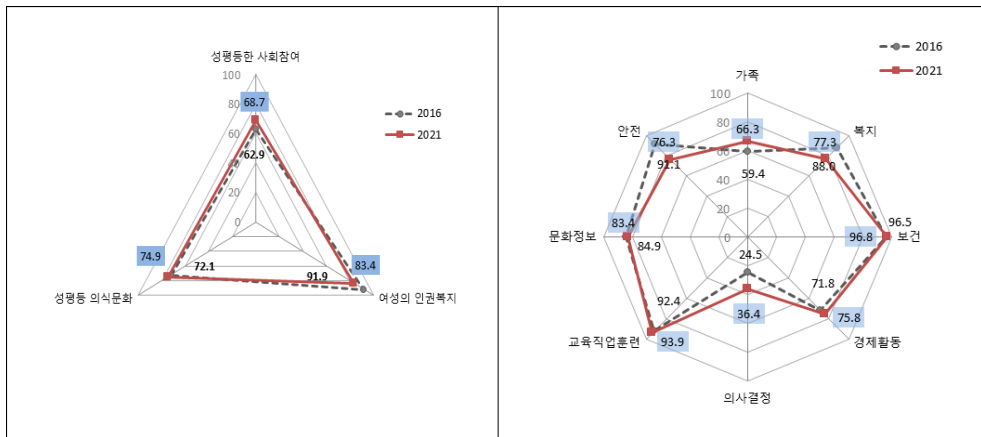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상위권	62.9	12	91.9	1	72.1	8
2017	상위권	64.3	12	91.2	1	72.2	13
2018	중하위권	66.2	12	89.2	1	70.5	16
2019	중하위권	67.9	11	87.9	5	71.4	17
2020	중하위권	67.6	14	87.1	8	73.7	14
2021	하위권	68.7	13	83.4	17	74.9	11
2020년 대비	1단계 하락	1.1	1	-3.7	-9	1.2	3
2016년 대비	3단계 하락	5.8	-1	-8.5	-16	2.8	-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전라북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5.8점으로 4위였다. 2020년 대비 1.8점, 4단계 순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전라남도 2021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75.3점(6위), 성별 임금 격차는 66.7점(4위),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85.5점(8위)이었다.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1.5점, 성별 임금 격차는

0.9점,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3.1점 상승했다. 순위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각각 3단계 상승한 반면, 성별 임금 격차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그림 IV-13] 전라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1년 전라북도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6.4점, 12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는 1.2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라북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2.6점(15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9.9점(13위), 관리자 비율 성비는 36.0점(3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57.2점(16위)이었다. 2020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0.1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4.0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0.7점 증가했고, 관리자 비율 성비는 점수 변화가 없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12위에서 13위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15위에서 16위로 하락했고, 그 외 지표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교육·직업 훈련 분야 2021년 전라북도 종합점수는 93.9점, 15위였다. 2020년 대비 0.3점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라북도 평균 교육연수 성비 점수는 87.8점(15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모든 시도가 100.0점으로 변별력이 없다. 전년 대비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0.6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 2021년 전라북도 점수는 77.3점으로 17개 시도 중 꼴등이었다. 2020년 대비 8.3점, 3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라북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100.0점으로 1위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성비가 54.6점으로 17위 꼴등이었다.

2020년과 비교,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점수 및 순위변동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16.6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2021년 전라북도 보건 분야 종합점수는 96.8점, 11위였다. 2020년 대비 1.3점, 8단계 순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라북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96.3점(14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97.8점(5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96.2점(14위)이었다. 전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점수 및 순위 변동 모두 없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0.2점 소폭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3.8점 하락했고, 순위도 1위에서 14위로 크게 하락했다.

2021년 전라북도 안전 종합점수는 76.3점, 12위였다. 2020년 대비 1.2점, 3단계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라북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72.6점(17위)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는 80.0점(5위)이었다. 2020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2.2점, 6단계 하락했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0.2점 소폭 감소했으며 순위변동은 없었다.

가족의 경우 2021년 점수는 66.3점, 순위는 9위였다. 2020년 대비, 0.2점 소폭 상승했으나, 3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전라북도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42.9점(2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5.2점(8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98.8점(8위), 육아휴직자 성비는 28.5점(15위)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3.0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6점, 6단계 하락했다. 반면,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0.7점, 3단계 상승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 성비는 0.1점, 2단계 하락했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1년 전라북도 종합점수는 83.4점, 11위였다. 2020년 대비, 2.0점, 순위는 5단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라북도 여가시간 성비는 71.5점(6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85.5점(13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3.3점(14위)였다. 2020년 대비 여가시간 성비는 0.8점 소폭 감소했으나 순위는 1단계 상승했다. 한편, 여가만족도 성비는 5.6점,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1.4점 증가했고 순위도 각각 4단계, 1단계 상승했다.

2021년 전라북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로, 17개 시도 중 4위였다. 반면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복지 분야로 17개 시도 중 17위였다. 2020년 대비, 경제활동(8위→4위) 및 문화·정보(16위→11위)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복지(14위→17위), 보건(3위→11위), 안전(9위→12위), 가족(6위→9위)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그리고 의사결정(12위) 및 교육·직업훈련(15위) 분야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표 IV-38〉 전라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1.8	5	70.0	11	72.1	9	73.9	9	74.0	8	75.8	4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1.0	8	70.5	9	70.2	13	72.7	9	73.8	9	75.3	6
성별 임금격차	62.7	2	60.5	12	66.1	2	66.9	2	65.8	4	66.7	4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81.6	5	79.1	11	80.2	10	81.9	12	82.4	11	85.5	8
○ 의사결정	24.5	11	30.1	11	33.3	11	36.4	10	35.2	12	36.4	12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8.3	13	18.3	13	22.5	14	22.4	15	22.5	15	22.6	15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9.8	12	20.6	12	24.9	11	28.4	12	25.9	12	29.9	13
관리자 비율 성비	25.6	3	37.7	2	33.4	3	40.2	2	36.0	3	36.0	3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34.4	15	43.7	15	52.5	14	54.7	15	56.5	15	57.2	16
○ 교육·직업훈련	92.4	14	92.7	14	93.0	14	93.3	15	93.6	15	93.9	15
평균교육연수 성비	84.9	14	85.5	14	86.1	14	86.6	15	87.2	15	87.8	1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8.0	7	90.7	6	89.0	7	87.8	10	85.6	14	77.3	17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3.4	3	96.1	3	97.6	3	99.1	3	100.0	1	100.0	1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2.7	16	85.3	16	80.4	16	76.5	17	71.2	17	54.6	17
○ 보건	96.5	12	97.5	10	97.8	8	97.9	4	98.1	3	96.8	11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5.7	16	95.7	16	96.2	14	96.3	14	96.3	14	96.3	14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9.1	4	98.8	4	99.3	3	97.9	4	98.0	5	97.8	5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94.7	16	98.1	11	97.8	10	99.5	5	100.0	1	96.2	14
○ 안전	91.1	1	85.5	1	80.7	2	78.0	4	77.5	9	76.3	12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100.0	1	89.6	1	82.9	2	78.2	4	74.8	11	72.6	17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82.2	3	81.4	2	78.5	3	77.7	5	80.2	5	80.0	5
○ 가족	59.4	1	59.7	4	58.5	13	62.7	9	66.1	6	66.3	9
가사노동시간 성비	28.9	8	31.5	5	34.3	3	37.0	2	39.9	2	42.9	2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9.8	3	95.7	4	91.5	10	94.6	4	97.8	2	95.2	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00.0	1	100.0	1	94.1	14	98.4	12	98.1	11	98.8	8
육아휴직자 성비	8.9	9	11.6	12	14.1	15	20.9	15	28.6	13	28.5	15
○ 문화·정보	84.9	12	84.6	12	82.6	15	80.1	17	81.4	16	83.4	11
여가시간 성비	74.5	14	74.0	11	73.5	8	72.9	7	72.3	7	71.5	6
여가만족도 성비	87.8	9	84.2	15	79.2	16	74.7	17	79.9	17	85.5	13
인터넷 이용률 성비	92.3	11	95.6	5	95.1	9	92.5	14	91.9	15	93.3	1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1년 전라북도 종합등급은 하위권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1개 분야 뿐이었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및 복지 2개 분야였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총 7개였고,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총 9개였다.

전년 대비 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비록 경제활동 및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순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복지, 보건, 안전 분야가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종합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 분야가 3위에서 11위로 크게 하락하여 종합등급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지표별로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정부위원 여성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6개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종합등급은 2021년 하위권으로 2020년 중하위권에서 1단계 하락했다. 분야 중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가 유일하며 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는 교육·직업훈련과 복지 분야이다. 특히, 하위권 분야 중 복지 분야는 중장기 계획하에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표별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관리자 비율 및 가사노동시간이고, 3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로, 해당 지표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표 IV-39〉 전라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중하위권 →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하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하위	교육·직업훈련, 복지
	지표	상위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하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자,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년 대비 보건 분야의 성평등 하락 폭이 크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 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지표의 하락에 따라 하위권에 위치함. 경제활동, 의사결정, 문화·정보 분야 등의 성평등 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복지, 보건, 안전 분야의 성평등 하락으로 하위권 밀려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14. 전라남도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전라남도 종합순위는 하위권으로, 2017년 이후 계속 하위권을 유지 중이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1년 전라남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4.7점으로 17개 시도 중 꼴등이었다. 2020년 대비 0.6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5.1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둘째, 2021년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4.9점으로 16위다. 2020년 대비 0.4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1단계 상승했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3.0점 하락했고, 순위는 13단계 크게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4.3점으로, 14위였다. 2020년 대비 0.3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2단계 하락했다. 2016년 대비 3.4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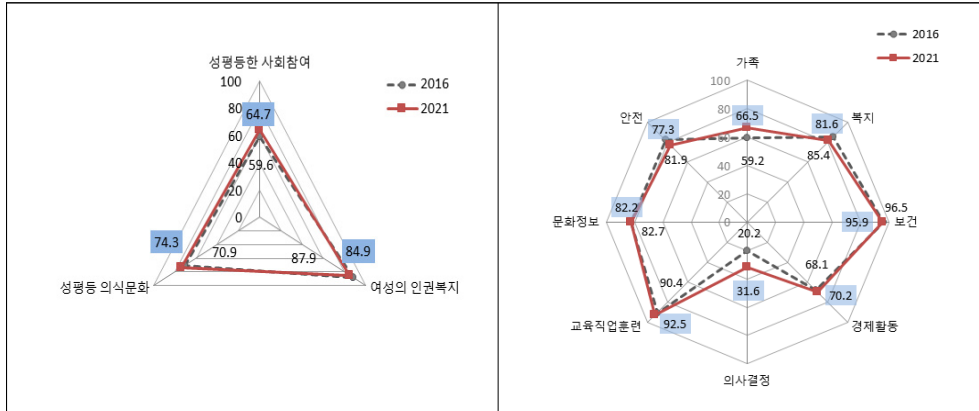
〈표 IV-40〉 전라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중하위권	59.6	16	87.9	3	70.9	14
2017	하위권	61.6	15	89.1	2	71.1	16
2018	하위권	63.7	15	87.9	4	72.7	14
2019	하위권	64.5	16	86.8	6	73.5	14
2020	하위권	64.1	17	85.3	17	74.0	12
2021	하위권	64.7	17	84.9	16	74.3	14
2020년 대비	동일	0.6	-	-0.4	1	0.3	-2
2016년 대비	1단계 하락	5.1	-1	-3.0	-13	3.4	-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전라남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0.2점으로 15위였다. 2020년 대비 0.1점 소폭 하락했고,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76.8점(4위), 성별 임금 격차는 55.1점(17위),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78.7점(16위)이었다.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0.9점, 성별 임금 격차는 1.3점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두 지표 모두 없었다. 반면,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2.3점 하락했고 2단계 하락했다.



[그림 IV-14] 전라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1년 전라남도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1.6점,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2020년 대비 1.8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1.4점(16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7.9점(14위), 관리자 비율 성비는 14.2점(16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62.8점(13위)이었다. 2020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0.1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6.1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0.8점 증가했고, 관리자 비율 성비는 점수 변화가 없었다. 5급이상 공무원 비율만 15위에서 1단계 상승했고, 그 외 지표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2021년 교육·직업 훈련 전라남도 종합점수는 92.5점으로 상당히 높았으나,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전년 대비 0.4점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평균 교육연수 성비 점수는 85.0점(17위),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모든 시도가 100.0점으로 변별력이 없다. 2020년 대비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0.8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 2021년 전라남도 점수는 81.6점이고 순위는 15위였다. 2020년 대비 3.9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라남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91.4점으로 9위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71.8점으로 11위다. 2020년과 비교,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3.5점 상승했고 2단계 순위 상승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11.2점 하락했고 2단계 순위 하락했다.

보건의 경우 2021년 전라남도 종합점수는 95.9점, 13위였다. 2020년 대비 0.6점,

3단계 상승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라남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95.9점(17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94.4점(12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97.3점(12위)이었다. 전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점수 및 순위변동이 없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0.5점 소폭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2.2점 증가했고 17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2021년 안전 종합점수는 77.3점, 11위였다. 2020년 대비 2.2점, 2단계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77.3점(11위),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는 77.2점(9위)이었다. 2020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4.5점, 4단계 상승했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0.3점 소폭 감소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2021년 전라남도 가족 종합점수는 66.5점, 7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는 1.0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31.2점(15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6.3점(4위),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는 100.0점(1위), 육아휴직자 성비는 38.5점(5위)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0.1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1.3점, 육아휴직 성비는 2.4점 상승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는 점수 변화가 없었다. 2020년 대비,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단계 하락,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단계 상승, 육아휴직 성비는 1단계 상승,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순위가 동일했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1년 전라남도 종합점수는 82.2점, 14위였다. 2020년 대비, 0.2점 소폭 하락했으며 순위는 동일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여가시간 성비는 73.6점(4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83.1점(15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89.9점(17위)이다. 2020년 대비 여가시간 성비는 0.2점 상승했고 1단계 순위 상승했다. 여가만족도 성비는 0.2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한편,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1.0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2021년 전라남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가족 분야로, 17개 시도 중 7위였다. 반면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및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두 분야 모두 17개 시도 중 17위였다. 2020년과 대비, 보건(16위→13위) 및 안전(13위→11위)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그 외 분야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표 IV-41〉 전라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8.1	13	69.3	12	69.3	13	72.5	11	70.3	15	70.2	15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4.4	4	75.4	3	75.1	4	75.7	3	75.9	4	76.8	4
성별 임금격차	52.5	15	51.8	16	54.5	15	56.1	16	53.8	17	55.1	17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7.6	11	80.7	9	78.4	13	85.8	4	81.0	14	78.7	16
○ 의사결정	20.2	16	24.5	15	30.4	14	29.3	17	29.8	17	31.6	17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5.3	15	15.3	15	21.1	15	21.1	16	21.3	16	21.4	16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7.9	14	17.8	15	21.1	14	24.1	16	21.8	15	27.9	14
관리자 비율 성비	15.4	9	20.9	8	27.3	7	13.1	13	14.2	16	14.2	16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32.4	16	44.0	14	52.3	15	58.8	14	62.0	13	62.8	13
○ 교육·직업훈련	90.4	16	90.9	16	91.3	16	91.7	17	92.1	17	92.5	17
평균교육연수 성비	80.9	16	81.7	16	82.5	16	83.4	17	84.2	17	85.0	17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5.4	12	88.1	10	86.7	13	86.3	15	85.5	15	81.6	15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0.8	11	84.1	10	85.5	11	86.9	11	87.9	11	91.4	9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9	9	92.2	7	87.8	10	85.8	10	83.0	9	71.8	11
○ 보건	96.5	14	97.5	9	96.3	14	96.3	11	95.3	16	95.9	13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5.9	15	96.2	15	95.6	16	95.9	17	95.9	17	95.9	17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4	9	97.6	6	97.5	8	96.0	10	94.9	12	94.4	12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96.1	15	98.7	7	95.8	16	96.8	13	95.1	17	97.3	12
○ 안전	81.9	2	81.5	2	80.9	1	77.9	5	75.1	13	77.3	11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84.7	2	84.6	2	84.6	1	77.9	5	72.8	15	77.3	11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격차	79.0	5	78.4	5	77.2	6	77.9	4	77.5	9	77.2	9
○ 가족	59.2	2	61.5	2	63.8	4	64.9	6	65.5	7	66.5	7
가사노동시간 성비	30.3	5	30.5	7	30.7	11	30.9	13	31.1	13	31.2	15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100.0	1	98.3	2	96.4	5	95.7	3	95.0	6	96.3	4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7.6	1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육아휴직자 성비	8.7	11	17.0	4	28.2	3	32.8	4	36.1	6	38.5	5
○ 문화·정보	82.7	16	80.8	16	81.5	16	82.1	16	82.4	14	82.2	14
여가시간 성비	72.8	16	73.0	15	73.1	10	73.3	6	73.4	5	73.6	4
여가만족도 성비	85.5	12	85.5	14	84.1	15	82.8	16	82.9	15	83.1	15
인터넷 이용률 성비	89.6	16	84.0	16	87.3	16	90.1	17	90.9	17	89.9	17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1년 전라남도 종합등급은 하위권이다.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없었으며,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총 5개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분야가 해당하였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총 6개 지표인 반면,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평균 교육년수,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가사노동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총 10개 지표였다.

전년 대비 23개 지표 중 공적연금가입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시간 지표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그 외 지표 대부분은 전년과 같거나 하락하였다.

전라남도는 2019년 이래 종합등급이 하위권이다. 분야 중 상위권은 없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하위권으로 구분된다. 이에 성평등 개선은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표별로는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와 30점 미만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에 집중적 점검과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지표로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인터넷 이용률에 대하여 하락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V-42〉 전라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하위권 →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분야	상위	-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하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평균교육연수,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가사노동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8개 분야 중 안전, 가족, 보건을 제외한 5개 분야가 모두 하위권이며, 전체 23개 지표 중 10개 지표가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종합등급 또한 하위권에 위치함. 공적연금가입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시간 지표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나 이외의 지표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수준을 가짐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인터넷 이용률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15. 경상북도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경상북도 종합순위는 하위권으로, 2016년 이래 계속 하위권을 유지 중이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1년 경상북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5.1점으로 16위이다. 2020년 대비 0.9점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2016년 대비해 5.4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둘째, 2021년 경상북도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5.7점으로 12위다. 2020년 대비 1.2점, 2단계 하락했다. 2016년과 대비1.0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2단계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경상북도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5.3점으로, 8위였다. 2020년 대비 1.1점, 5단계 하락했다. 반면, 2016년 대비해서는 5.3점, 8단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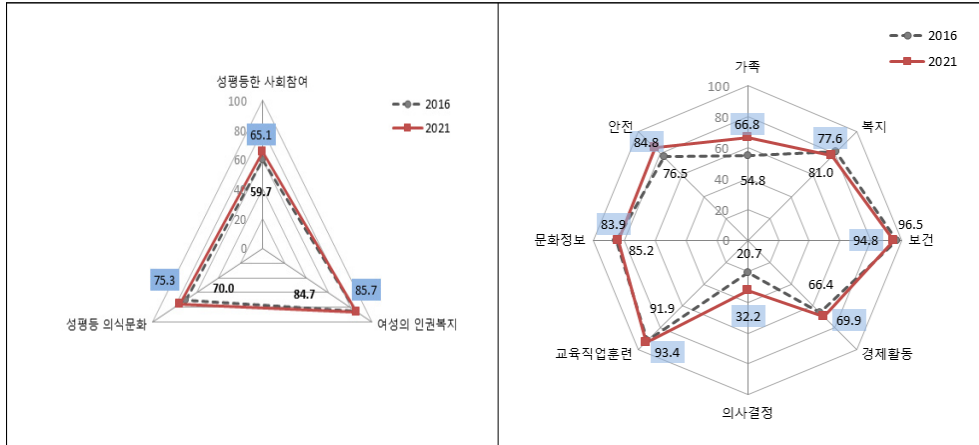
〈표 IV-43〉 경상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하위권	59.7	15	84.7	10	70.0	16
2017	하위권	61.1	16	85.0	12	72.5	12
2018	하위권	63.4	16	84.6	12	74.5	8
2019	하위권	63.6	17	85.4	15	76.3	5
2020	하위권	64.2	16	86.9	10	76.4	3
2021	하위권	65.1	16	85.7	12	75.3	8
2020년 대비	동일	0.9	-	-1.2	-2	-1.1	-5
2016년 대비	동일	5.4	-1	1.0	-2	5.3	8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경상북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69.9점으로 16위였다. 2020년 대비 0.2점 소폭 하락했고,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경상북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69.6점(16위), 성별 임금 격차는 58.7점(15위),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81.4점(14위)이었다.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0.5점 하락했고 순위는 2단계 하락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0.7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반면,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1.8점 상승했고 순위도 1단계 상승했다.



[그림 IV-15] 경상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1년 경상북도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32.2점으로 16위였다. 2020년 대비 2.2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경상북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9점(17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6.1점(15위), 관리자 비율 성비는 21.5점(12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60.1점(15위)이었다. 2020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0.1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4.4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4.2점 증가했으나, 관리자 비율 성비는 점수 변동이 없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모두 각각 16위에서 15위로 1단계 상승했고, 그 외 지표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교육·직업 훈련 분야 2021년 경상북도 종합점수는 93.4점, 16위였다. 2020년 대비 0.3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경상북도 평균 교육연수 성비 점수는 86.8점(16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모든 시도가 100.0점으로 변별력이 없다. 전년 대비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0.6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 2021년 경상북도 점수는 77.6점, 16위였다. 2020년 대비 4.7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1단계 상승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1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83.8점(16위),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71.5점(12위)이었다. 2020년과 비교,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1.6점 상승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10.8점 크게 하락했다.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모두 전년 대비 순위변동은 없었다.

2021년 경상북도 보건 분야 종합점수는 94.8점, 15위였다. 2020년 대비 1.4점, 2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96.5점(13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92.2점(13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95.8점(15위)이었다. 2020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점수 및 순위변동 모두 없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0.4점 소폭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3.8점 하락했고, 순위도 5위에서 15위로 크게 하락했다.

안전의 경우 2021년 점수는 84.8점, 1위였다. 2020년 대비 2.6점, 2단계 순위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87.8점(1위),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는 81.8점(2위)이었다. 2020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5.2점, 3단계 상승했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0.1점 소폭 감소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가족의 경우 2021년 종합점수는 66.8점, 5위였다. 2020년 대비, 점수 변동은 없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31.3점(14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7.5점(2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95.3점(13위), 육아휴직자 성비는 42.9점(4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0.6점, 1단계 상승하였다.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5점, 1단계 하락했고,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도 0.9점, 1단계 하락했다. 한편, 육아휴직자 성비는 점수는 2.7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1년 경상북도 종합점수는 83.9점, 10위였다. 2020년 대비, 2.1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여가시간 성비는 71.1점(7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85.5점(12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5.0점(13위)였다. 2020년 대비 여가시간 성비는 1.5점, 여가만족도 성비는 4.3점,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0.7점 하락했다. 순위도 각각 1단계, 1단계, 4단계 하락하였다.

2021년 경상북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안전 분야로 17개 시도 중 1위였다. 반면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4개 분야로 모두 각각 17개 시도 중 16위였다. 2020년 대비, 복지(17위→16위) 및 안전(3위→1위) 분야는 순위 상승한 반면, 보건(13위→15위) 및 가족(4위→5위)은 순위가 하락했다. 경제활동(16위), 의사결정(16위), 교육·직업훈련(16위), 문화·정보(10위)는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표 IV-44〉 경상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6.4	14	68.0	14	68.8	14	68.5	16	69.7	16	69.9	16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9.2	12	69.8	11	70.2	12	70.2	15	70.1	14	69.6	16
성별 임금격차	55.1	14	57.1	14	58.0	14	58.0	15	59.4	15	58.7	15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5.0	14	77.1	14	78.1	14	77.2	17	79.6	15	81.4	14
○ 의사결정	20.7	15	23.2	16	28.8	16	29.6	16	30.0	16	32.2	16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2.4	16	12.4	16	20.7	16	20.7	17	20.8	17	20.9	17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8.8	13	20.6	13	23.9	13	24.2	15	21.7	16	26.1	15
관리자 비율 성비	16.6	8	16.3	12	20.6	11	19.2	10	21.5	12	21.5	12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35.2	14	43.6	16	50.0	16	54.2	16	55.9	16	60.1	15
○ 교육·직업훈련	91.9	15	92.2	15	92.5	15	92.8	16	93.1	16	93.4	16
평균교육연수 성비	83.8	15	84.4	15	85.0	15	85.6	16	86.2	16	86.8	16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1.0	16	83.0	16	82.5	16	82.6	17	82.3	17	77.6	16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3.6	15	76.3	15	78.0	16	80.0	17	82.2	16	83.8	16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8.4	13	89.7	13	87.0	11	85.2	12	82.3	12	71.5	12
○ 보건	96.5	13	97.1	12	96.8	12	95.9	13	96.2	13	94.8	15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7	11	96.5	13	96.6	12	96.5	13	96.5	13	96.5	13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4.9	13	94.7	13	94.9	13	93.9	13	92.6	13	92.2	13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97.8	11	100.0	1	99.1	7	97.4	11	99.6	5	95.8	15
○ 안전	76.5	6	74.8	5	74.4	5	77.7	6	82.2	3	84.8	1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9.7	8	68.3	6	67.3	10	76.0	9	82.6	4	87.8	1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격차	83.4	2	81.4	1	81.5	2	79.3	3	81.9	2	81.8	2
○ 가족	54.8	16	58.9	9	62.2	6	64.9	5	66.8	4	66.8	5
가사노동시간 성비	28.6	9	29.1	12	29.7	13	30.2	14	30.7	15	31.3	14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1.1	14	96.4	3	100.0	1	100.0	1	100.0	1	97.5	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0.2	15	92.9	15	94.5	13	100.0	1	96.2	12	95.3	13
육아휴직자 성비	9.1	7	17.2	3	24.5	5	29.2	6	40.2	4	42.9	4
○ 문화·정보	85.2	10	86.2	11	86.9	11	87.7	9	86.0	10	83.9	10
여가시간 성비	77.2	3	76.2	4	75.1	5	73.9	5	72.6	6	71.1	7
여가만족도 성비	86.7	11	90.1	9	91.8	10	93.4	11	89.8	11	85.5	12
인터넷 이용률 성비	91.6	12	92.2	13	93.8	12	95.6	11	95.7	9	95.0	1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1년 경상북도 종합등급은 하위권이다.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안전 그리고 가족 총 2개 분야고,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총 5개 분야였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총 5개 지표였다.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공적연금가입자, 스트레스 인지율, 가사노동시간 총 10개 지표였다.

전년 대비 23개 지표 중 상용근로자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지표는 순위가 소폭 상승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 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하락했다. 특히,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전년 대비 10단계 순위 하락했다.

경상북도는 2019년 이후 종합등급이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성평등 개선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분야 등 하위권에 해당하는 분야의 성평등을 수준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지표별로는 50점 미만 지표인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서도 하락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V-45〉 경상북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하위권 → 2020년 하위권 → 2021년 하위권	
	분야	상위	안전, 가족
		하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지표	상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하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평균교육연수, 공적연금가입자, 스트레스 인지율, 가사노동시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8개 분야 중 5개의 분야가 하위권이며, 상용근로자비율, 5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의 지표에서 일정 이상 성평등이 상승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여활용만족도 등의 지표에서는 비교적 크게 하락하면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16. 경상남도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경상남도 종합순위는 중하위권이다. 경상남도는 2016년 이래 계속 하위권이었던가 2020년에 중하위권으로 상승, 유지 중이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1년 경상남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69.1점으로 11위이다. 2020년 대비 0.9점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8.2점, 3단계 순위 상승했다. 둘째, 2021년 경상남도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5.9점으로 11위다. 2020년 대비 1.0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3.0점, 4단계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경상남도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5.5점으로, 7위였다. 2020년 대비 0.8점, 순위는 3단계 떨어졌다. 반면, 2016년 대비해서는 4.3점, 4단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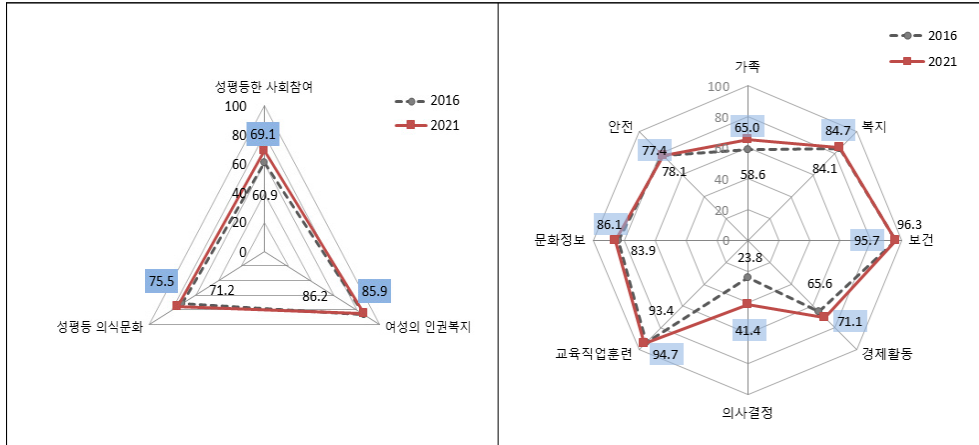
〈표 IV-46〉 경상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하위권	60.9	14	86.2	7	71.2	11
2017	하위권	63.3	13	85.2	9	75.9	2
2018	하위권	65.0	14	84.4	13	74.5	9
2019	하위권	66.4	15	85.4	14	77.5	3
2020	중하위권	68.2	10	86.9	11	76.3	4
2021	중하위권	69.1	11	85.9	11	75.5	7
2020년 대비	동일	0.9	-1	-1.0	-	-0.8	-3
2016년 대비	1단계 상승	8.2	3	-0.3	-4	4.3	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경상남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1.1점으로 14위였다. 2020년 대비 0.6점 소폭 하락했고,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72.6점(10위), 성별 임금 격차는 62.5점(14위),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78.1점(17위)이었다. 2020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1.6점, 2단계 순위 상승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1.1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반면,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1.1점, 1단계 순위 하락했다.



[그림 IV-16] 경상남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1년 경상남도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41.4점으로, 9위였다. 2020년 대비 1.8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1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5.0점(14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30.1점(12위), 관리자 비율 성비는 46.2점(1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64.1점(11위)이었다. 전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0.1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4.5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2.2점 증가했고, 관리자 비율 성비는 점수 변화가 없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13위에서 12위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은 14위에서 11위로 상승했고, 그 외 지표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2021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94.7점, 11위였다. 2020년 대비 0.2점 소폭 증가했으며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평균 교육연수 성비 점수는 89.5점(11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모든 시도가 100.0점으로 변별력이 없다. 2020년 대비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0.5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 2021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84.7점이고 순위는 8위였다. 2020년 대비 2.2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3단계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경상남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88.9점이고 12위였다. 전년 대비 2.4점 상승하였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한편,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80.4점이고 8위였다. 전년 대비 6.9점 크게 하락했고 순위도 1단계 하락했다.

보건의 경우 2021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95.7점, 14위였다. 2020년 대비 0.2점 소폭 하락했으나 점수 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97.0점(10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91.5점(14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98.6점(5위)이었다. 2020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점수 및 순위변동 모두 없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0.1점 소폭 하락했으나 순위 변동은 없었다. 한편,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0.6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전년 대비 오히려 8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안전의 경우 2021년 점수는 77.4점, 10위였다. 2020년 대비 0.4점, 2단계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73.0점(16위),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점수는 81.7점(3위)이었다. 2020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0.8점, 4단계 하락했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0.2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가족의 경우 2021년 종합점수는 65.0점, 12위였다. 2020년 대비 1.7점 하락했고 순위는 7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31.8점(13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1.3점(16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92.3점(16위), 육아 휴직자 성비는 44.5점(3위)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1.0점, 1단계 상승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3.3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오히려 2단계 하락했다. 한편,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7.7점 하락했고 순위도 15단계 크게 하락했다. 그리고, 육아휴직 성비도 3.5점, 1단계 하락했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1년 경상남도 종합점수는 86.1점, 7위였다. 2020년 대비, 0.2점, 4단계 순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여가시간 성비는 66.4점(13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96.2점(5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5.7점(9위)이다. 2020년 대비 여가시간 성비는 1.5점, 1단계 순위 하락했고 여가만족도 성비는 2.0점, 2단계 순위 하락했다. 반면,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4.0점, 7단계 크게 상승하였다.

2021년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문화·정보 분야로 17개 시도 중 7위였다. 반면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경제활동 그리고 보건 분야로 모두 각각 17개 시도 중 14위였다. 2020년 대비, 복지(11위→8위) 및 문화·정보(11위→7위)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안전(8위→10위) 및 가족(5위→12위)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경제활동(14위), 의사결정(9위), 교육·직업훈련(11위), 보건(14위)은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표 IV-47〉 경상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5.6	15	67.4	15	68.3	15	69.9	15	70.5	14	71.1	14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7.2	14	67.3	15	67.7	15	70.1	16	71.0	12	72.6	10
성별 임금격차	55.4	13	59.0	13	61.5	13	60.3	14	61.4	14	62.5	14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4.1	15	75.9	15	75.8	15	79.4	15	79.2	16	78.1	17
○ 의사결정	23.8	13	28.9	12	32.6	13	35.0	12	39.6	9	41.4	9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2.0	9	22.0	9	24.8	13	24.8	14	24.9	14	25.0	14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6.9	15	19.7	14	21.1	15	25.3	13	25.6	13	30.1	12
관리자 비율 성비	11.0	14	24.7	6	29.1	4	30.2	4	46.2	1	46.2	1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45.5	11	49.2	11	55.4	12	59.8	13	61.9	14	64.1	11
○ 교육·직업훈련	93.4	9	93.7	10	94.0	10	94.2	11	94.5	11	94.7	11
평균교육연수 성비	86.8	9	87.4	10	87.9	10	88.4	11	89.0	11	89.5	1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84.1	13	86.5	13	86.5	14	86.6	14	86.9	11	84.7	8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5.1	13	78.8	13	81.4	12	83.3	13	86.5	12	88.9	12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3.2	4	94.2	4	91.6	4	89.8	7	87.3	7	80.4	8
○ 보건	96.3	15	96.4	15	96.1	15	95.0	16	95.9	14	95.7	1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6	12	97.1	8	97.2	10	97.0	10	97.0	10	97.0	10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3.2	15	93.6	15	93.7	15	91.8	15	91.6	14	91.5	14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99.2	9	98.6	8	97.4	12	96.1	14	99.2	8	98.6	5
○ 안전	78.1	5	72.6	7	70.6	11	74.8	10	77.8	8	77.4	10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2.5	6	63.9	10	58.7	16	67.6	17	73.8	12	73.0	16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격차	83.6	1	81.3	3	82.5	1	81.9	2	81.9	3	81.7	3
○ 가족	58.6	4	70.5	1	65.3	2	67.8	2	66.7	5	65.0	12
가사노동시간 성비	26.9	14	27.9	14	28.8	14	29.8	15	30.8	14	31.8	13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4.9	8	93.3	9	91.8	9	89.8	12	88.0	14	91.3	16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6.2	12	98.5	9	96.5	11	100.0	1	100.0	1	92.3	16
육아휴직자 성비	16.2	1	62.2	1	44.1	1	51.4	1	48.0	2	44.5	3
○ 문화·정보	83.9	13	81.3	15	83.6	13	87.2	10	85.9	11	86.1	7
여가시간 성비	73.0	15	71.8	16	70.6	16	69.3	14	67.9	12	66.4	13
여가만족도 성비	85.1	14	78.2	16	87.6	13	100.0	3	98.2	3	96.2	5
인터넷 이용률 성비	93.6	10	94.0	11	92.7	14	92.4	15	91.7	16	95.7	9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1년 경상남도 종합등급은 중하위권이다.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없는 반면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그리고 보건 2개 분야였다. 세부 구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육아휴직자, 여가만족도 총 6개 지표였다. 하위권에 속한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총 8개 지표였다.

전년 대비 복지 및 문화·정보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안전 및 가족 분야는 하락했다. 특히, 가족 분야에서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 지표가 1위에서 16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경상남도는 2020년 이래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은 하위권에 해당하는 분야 중 경제활동 및 보건 분야의 성평등을 점검하고 성평등 수준이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총 4개와 3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개선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는 총 10개로, 상용근로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로, 이 지표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V-48〉 경상남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하위권 → 2020년 중하위권 → 2021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
		하위	경제활동, 보건
	지표	상위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육아 휴직자, 여가만족도
		하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체 지표 중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가 하위권이지만, 전년 대비 복지,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소폭 상승함. 다만, 셋째 아 이상 출생비 지표가 전년대비 비교적 크게 하락함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상용근로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 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17. 제주특별자치도

### 가.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순위는 상위권으로, 2017년 이래 계속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점수는 72.6점으로 4위다. 2020년 대비 점수 변동은 없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하였다. 2016년 대비 6.8점, 1단계 상승했다. 둘째,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인권·복지 점수는 87.4점으로 6위다. 2020년 대비 1.9점, 3단계 하락했다. 2016년과 대비해서는 1.5점, 2단계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는 77.5점으로, 3위다. 2020년 대비 0.4점, 1단계 하락했다. 반면, 2016년 대비해서는 5.8점, 7단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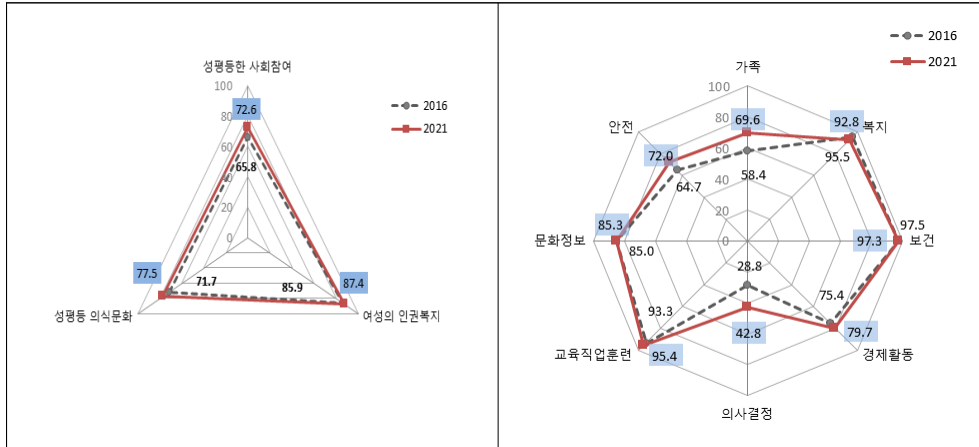
〈표 IV-49〉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중상위권	65.8	5	85.9	8	71.7	10
2017	상위권	67.0	6	87.3	6	72.9	10
2018	상위권	73.0	1	88.3	3	75.9	2
2019	상위권	69.0	8	88.5	3	78.1	2
2020	상위권	72.6	3	89.3	3	77.9	2
2021	상위권	72.6	4	87.4	6	77.5	3
2020년 대비	동일	0.0	-1	-1.9	-3	-0.4	-1
2016년 대비	1단계 상승	6.8	1	1.5	2	5.8	7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9.7점으로 1위로, 2016년 이래 계속 1위를 유지 중이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84.5점(1위), 성별 임금 격차는 68.8점(1위),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85.7점(6위)이었다.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1.2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1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반면, 상용근로자비율 성비는 5.5점 하락했고, 순위도 1위에서 6위로 하락했다.



[그림 IV-17]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42.8점, 8위였다. 2020년 대비 1.3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점수는 26.1점(12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45.7점(3위), 관리자 비율 성비는 28.8점(7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70.7점(6위)이었다. 2020년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0.1점 하락,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4.3점 상승,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은 0.9점 상승했고 관리자 비율 성비는 점수변화가 없었다. 한편, 전년 대비 순위변동은 모든 지표에서 없었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직업 훈련 분야 종합점수는 95.4점, 10위였다. 전년 대비 점수는 0.4점 소폭 증가했으며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평균 교육연수 성비 점수는 90.9점(10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100.0점(1위)이었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점수는 모든 시도가 100.0점으로 변별력이 없다. 전년 대비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0.8점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변동 없었으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의 경우 점수 및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복지 분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점수는 92.8점, 2위였다. 2020년 대비 2.4점, 1단계 순위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100.0점으로 1위로, 전년과 점수 및 순위변동이 없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85.7점, 5위로 전년 대비 4.7점 그리고 1단계 순위 하락했다.

보건의 경우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점수는 97.3점, 6위였다. 2020년 대비

1.2점 하락했고 순위는 4단계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97.4점(5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100.0점(1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94.6점(16위)이었다. 2020년 대비,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점수 및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점수 및 순위변동 모두 없었다. 한편,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3.6점 하락했고 순위도 10위에서 16위로 크게 하락했다.

안전의 경우 2021년 점수는 72.0점, 16위였다. 2020년 대비 2.2점 하락했으나 순위는 같았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78.7점(9위),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점수는 65.4점(17위)이었다. 전년 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점수는 4.4점, 6단계 하락하였다. 반면,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0.2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가족의 경우 2021년 종합점수는 69.6점, 1위였다. 2020년 대비하여 1.2점, 2단계 순위 상승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2021년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56.4점(1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2.9점(12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93.9점(15위), 육아휴직자 성비는 35.3점(8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4.3점 상승하였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1.1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오히려 3단계 하락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는 2.3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한편, 육아 휴직자 성비는 2.9점, 3단계 하락했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점수는 85.3점, 8위였다. 2020년 대비, 2.0점 하락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제주특별 자치도 여가시간 성비는 80.5점(1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85.1점(14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0.3점(16위)이다. 2020년 대비 여가시간 성비는 0.8점 상승했으나 순위변동은 없었다. 여가만족도 성비는 2.2점, 1단계 순위 하락했다. 한편,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4.6점, 6단계 순위 하락하였다.

2021년 가장 순위가 높은 분야는 경제활동 및 가족 분야 2분야로 17개 시도 중 둘다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안전으로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 했다. 2020년 대비, 가족(3위→1위)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복지(1위→2위) 및 보건 (2위→6위)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한편, 경제활동(1위), 의사결정(8위), 교육·직업훈련 (10위), 안전(16위), 문화·정보(8위) 분야는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표 IV-50〉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75.4	1	76.6	1	77.2	1	78.4	1	81.2	1	79.7	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1.9	1	84.1	1	81.4	1	81.7	1	85.7	1	84.5	1
성별 임금격차	62.2	4	63.0	4	69.5	1	67.4	1	66.7	1	68.8	1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82.1	3	82.6	4	80.6	9	86.1	2	91.2	1	85.7	6
○ 의사결정	28.8	8	30.8	9	47.8	1	34.1	14	41.5	8	42.8	8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3.6	8	23.8	8	26.3	10	26.1	12	26.2	12	26.1	1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4.1	3	35.2	3	38.5	3	42.1	6	41.4	3	45.7	3
관리자 비율 성비	0.0	15	0.0	16	60.3	1	0.0	15	28.8	7	28.8	7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57.5	3	64.0	4	66.0	5	68.2	6	69.8	6	70.7	6
○ 교육·직업훈련	93.3	10	93.8	9	94.2	9	94.6	10	95.0	10	95.4	10
평균교육연수 성비	86.7	10	87.6	9	88.4	9	89.2	10	90.1	10	90.9	10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95.5	1	96.1	1	95.8	1	95.8	1	95.2	1	92.8	2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0.9	6	92.2	8	91.6	5	91.6	5	90.4	4	85.7	5
○ 보건	97.5	8	97.4	11	99.2	1	98.5	1	98.5	2	97.3	6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2	14	97.1	9	98.1	3	97.4	5	97.4	5	97.4	5
건강검진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성비	96.4	14	95.2	16	99.5	4	98.2	9	98.2	10	94.6	16
○ 안전	64.7	15	68.3	13	69.8	12	71.1	16	74.2	16	72.0	16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4.1	10	67.3	8	69.7	8	78.3	3	83.1	3	78.7	9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격차	65.3	15	69.3	14	70.0	14	63.9	16	65.2	17	65.4	17
○ 가족	58.4	7	59.5	7	64.9	3	68.5	1	68.4	3	69.6	1
가사노동시간 성비	37.1	1	40.6	1	44.3	1	48.1	1	52.1	1	56.4	1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100.0	1	98.7	1	97.3	3	94.4	6	91.8	9	92.9	12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87.7	16	86.7	16	95.5	12	100.0	1	91.6	15	93.9	15
육아휴직자 성비	8.9	8	11.8	11	22.5	7	31.5	5	38.2	5	35.3	8
○ 문화·정보	85.0	11	86.2	9	86.9	10	87.8	6	87.3	8	85.3	8
여가시간 성비	76.8	4	77.5	1	78.2	1	78.9	1	79.7	1	80.5	1
여가만족도 성비	86.8	10	89.9	10	89.7	12	89.6	14	87.3	13	85.1	14
인터넷 이용률 성비	91.5	13	91.4	14	92.8	13	94.9	12	94.9	10	90.3	16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등급은 상위권이다. 상위권에 속한 분야는 경제활동, 복지, 가족 3개 분야인 반면, 하위권에 속한 분야는 안전 분야뿐이었다. 세부 구성 지표 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지표는 총 10개로,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이었다. 반면, 하위에 속한 지표는 총 5개로,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이 해당하였다.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지표는 없었고, 하락한 지표는 총 8개로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비율,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이래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개 분야 중 안전 분야가 유일하게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안전 분야 지표에 대한 성평등 검토하고 더불어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 총 2개와 30점 미만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총 2개에 대한 성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는 총 9개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자,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한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IV-51〉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9년 상위권 → 2020년 상위권 → 2021년 상위권	
	분야	상위	경제활동, 복지, 가족
		하위	안전
	지표	상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하위		스트레스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전체 8개 분야 중 3개 분야(경제활동, 복지, 가족), 23개 지표 중 10개의 지표가 상위권에 위치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검진수검률,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지표가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함. 다만 상용근로자비율을 포함한 8개의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자	
		○ 2021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자,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주: 상위는 1~5위, 하위는 14~17위를 의미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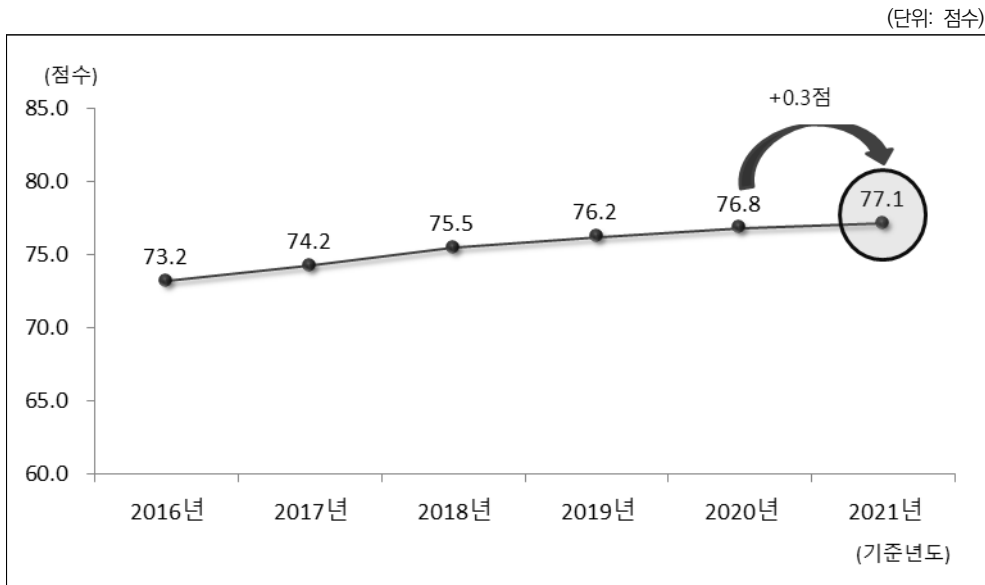
## 지역성평등지수 관리방안

1. 지역성평등지수 요약	169
2.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방안	172



### 1. 지역성평등지수 요약

지역성평등지수는 2014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를 연계하여 산정하고 있다. 2022년은 지표구성과 산정 방법에 있어 2021년 기본 틀을 사용하고 있다. 단지, 일부 지표의 추정치가 실제 값으로 대체되어 이전 지숫값 일부가 갱신된다. 6년간 시계열을 통해 지역성평등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지역성평등지표의 종합지수(통계생산년도 기준)는 2016년 73.2점에서 2017년 74.2점, 2018년 75.5점, 2019년 76.2점, 2020년 76.8점, 그리고 2021년은 77.1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상승하였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V-1] 지역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의 종합점수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 상위 지역은 77.84점~79.00점의 성평등 범주를 가지며,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중상위권 지역은 76.72점~77.54점의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지역별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중상위권으로 분류된다. 중하위권 지역은 76.04점~76.69점의 범위를 보이며, 강원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이다. 성평등 하위권 지역은 73.74점~75.13점 범위를 가지며 경상

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2021년 기준 성평등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이며,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는 전년 대비 성평등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2016년 5.2점에서 2017년 4.4점, 2018년 6.0점, 2019년 4.9점, 2020년 6.2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21년은 5.3점으로 나타난다. 지역 성평등 1위 지역의 점수는 2016년 75.6점에서 2021년 79.0점 높아지며, 지역 중 최하위 점수는 2016년 70.4점에서 2021년 73.7점으로 상승한다.

2021년 성평등 개선 정도를 지역별로 보면, 2016년과 비교하여 울산광역시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으로 나타난다. 2016년 대비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개선은 5.5점으로 전국 평균 3.9점보다 1.6점 더 높다. 다음으로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2016년 대비 4.8점 개선되었고, 충청북도(4.5점), 충청남도(4.3점), 서울특별시(4.2점), 경기도(4.2점), 경상남도(4.1점), 부산광역시(4.0점), 경상북도(4.0점)에서 4점 이상의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이로 인해 시도 중 울산광역시는 2016년 하위권 지역에서 2021년 중상위권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중상위권에서 2021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성평등 수준을 비교해 보면 먼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점수는 대전광역시가 73.9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73.7점), 광주광역시(72.7점) 순으로 높으며, 도지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72.6점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기준 이 영역의 성평등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1.3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87.9점), 대구광역시(87.7점), 경기도(87.6점), 부산광역시(87.6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며,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은 부산광역시(78.8점)가 가장 앞서며, 울산광역시(78.0점), 제주특별자치도(77.5점), 서울특별시(76.9점), 경기도(76.1점)에서 상위권이다.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79.7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78.0점), 강원도(77.7점), 전라북도(75.8점), 대전광역시(75.4점), 부산광역시(75.2점), 충청북도(75.0점)에서 성평등 수준이 7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이다. 2021년 기준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시도는 대전광역시이다.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점수를 보면, 대전광역시가 50.7점으로 유일하게 50점 이상이며, 울산광역시(47.8점), 광주광역시(47.6점), 서울특별시(45.7점), 대구광역시(44.6점), 부산광역시(44.5점), 인천광역시(43.7점) 등 특·광역시에서 1위에서 7위 까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8개 분야 중에서도 보건의 다음으로 높은 영역이다. 이 분야에서 성평등 상위권은 서울특별시(97.3점), 세종특별자치시(97.2점), 경기도(96.9점), 인천광역시(96.8점), 울산광역시(96.7점)이다.

복지 분야는 모든 지역에서 8개의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분야이다. 2021년 기준 점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92.8점), 서울특별시(90.4점), 경기도(87.9점), 울산광역시(87.6점)가 상위권에 위치한다.

보건 분야는 8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평등을 보이며,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세 지역을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95.0점 이상의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2021년 기준 이 분야에서 서울특별시가 98.4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98.2점), 광주광역시(98.0점), 대구광역시(97.4점) 등이 상위권에 위치한다.

안전 분야는 시·도별 차이가 비교적 크고 증감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2021년 기준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경상북도(84.8점)이며, 대구광역시(82.3점), 세종특별자치시(81.7점), 부산광역시(81.3점) 광주광역시(79.1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 분야는 지역 대부분에서 8개 영역 중 7번째로 성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성평등 개선은 큰 편이다. 전반적으로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도지역이 특·광역시에 비해 높았다. 2021년 기준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69.6점)이며 충청남도(69.3점), 부산광역시(67.5점), 충청북도(66.9점), 경상북도(66.8점)가 성평등 상위권 지역이다.

문화·정보 분야는 시도 간 격차가 높은 분야이다. 2021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90.2점이며, 울산광역시(89.3점), 서울특별시(88.9점), 대구광역시(87.7점), 세종특별자치도(87.6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2.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방안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 비교하고 취약 영역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역 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지역여성문제와 정책에 관한 관심과 인식 제고, 성인지 통계생산 제고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에 지역성평등지수는 이와 같은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22.)”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성가족부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생산 및 보급 주체로, 지역성평등 수준에 대해 영역, 분야, 지표별로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역성평등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sup>13)</sup>(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은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성평등지수의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령에 규정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선해야 한다.

〈표 V-1〉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련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협력기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성평등지수 생산 및 보급 주체</li> <li>- 지역별 성평등 정책의 우선 추진 방향과 정보제공</li> <li>-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력망 구축의 주체</li> </u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영역별, 지표별 성평등 수준 진단 - 성평등 DB 관리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 개선 주체</li> <li>- 성불평등한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li> <li>- 여성가족부와 관계기관과의 정책 협의</li> <li>-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체 구성</li> </ul>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협력관계 유지 - 분야별 지표별 불평등 개선 정책 추진과 점검 - 성평등기반 구축

13) 관계기관장은 국가성평등지수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이며, 지역성평등지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 관	역 할	협력기관
관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생산과 관리의 주체</li> <li>- 관련 지표의 개선방안 마련</li> <li>- 성평등 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정책 추진</li> <li>-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망 구축</li> </ul>	-

자료: 주재선 외(2021). 「2021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pp.209~210. 인용 및 수정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생산과 보급의 주체로서, 지역성평등지수를 분석하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성평등 정책의 우선 추진 방향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지표 개선의 주체로서, 여성가족부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성평등 정책을 검토하여 성 불평등이 높은 분야와 지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성평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와 공유·협의하여 불평등한 분야와 지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은 지표의 관리와 생산기관을 의미한다. 지표관리는 주로 중앙행정부처가 담당하게 되며, 생산기관은 중앙행정부처와 산하기관들이다. 지표 관리 기관은 지역성평등 수준을 참조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기관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표별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공적연금가입자,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등 6개 지표에 대한 관리 주체로 가장 많으며, 고용노동부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관리자 비율, 육아휴직자 등 5개에 대해서 관리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 교육부는 평균교육연수, 고등기관 진학률에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은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에 대해, 국회사무처와 각 정당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에 대해 관리 주체로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지표의 전반적 조정 역할과 더불어, 관리자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등의 관리 주체로 지표를 관리해야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부처,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한 협력체를 구성·운영하고 주기적 모임을 통해 지역 성평등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분야	지표	관리기관	통계생산기관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15~64세)	고용노동부	통계청
	성별 임금격차(성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성비	고용노동부	통계청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국회사무처/각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관리자 비율 성비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 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성비	교육부	통계청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교육부	교육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경찰청/검찰청	통계청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경찰청/검찰청	경찰청
가족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육아휴직 성비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문화·정보	여가시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여가만족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인터넷 이용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성 불평등이 높은 분야의 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작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목적이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분야, 지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사업분석에

대해 성평등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성주류화 도구 중 하나이다.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도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의 선정에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측정 결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은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기관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더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성 불평등한 지표와 연계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및 지표와 관련된 사업(혹은 계획)을 선정하고 이를 성인지예산서와 연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희·주재선·김수정·김은경(2019),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여성가족부.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1),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중앙 행정기관)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주재선·김영란·이진숙·박송이(2021),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이동선·임연규·박송이(2020), 『지역성평등지수 개편 연구』, 여성가족부.
-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2.
- World Economic Forum(202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 〈통계DB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2), 성인지통계시스템 DB
- 통계청(2022), 국가통계포털(KOSIS)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 선거통계시스템
- 고용노동부(2022), 고용보험 DB

### 〈통계〉

- 행정안전부(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 통계청(2022), 지역별고용조사
- 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
- 보건복지부(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국민연금공단(2022), 국민연금통계
- 공무원연금공단(2022), 공무원연금통계
- 사학연금공단(2022), 통계연보
- 국방부(2022), 군인연금
- 질병관리청(2022), 국민건강영양조사
- 통계청(2022), 생명표

통계청(2022). 생활시간조사

여성가족부(2022).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2). 양성평등실태조사



## 부 록

〈부록 1〉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181
〈부록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표	184



〈부록 1〉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경제활동 분야 (3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만 15세~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성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반기 (8월)
	성별 임금격차(성비)	최근 3개월 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에 대한 성비 * 세금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 활용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반기 (8월)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의사결정 분야 (4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전국구와 지역구를 포함해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성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 성비	지역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 성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1년
	관리자 비율 성비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자 비율 성비 ※ 2018년 직업분류(제7차 개정) 기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1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성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수시
교육·직업 훈련 분야 (3개)	평균교육연수 성비	평균교육연수의 성비	통계청, 「인구조조사」	5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복지 분야 (2개)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비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보건 분야 (3개)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의 성 격차	건강 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 지표값에 대한 성비	질병관리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성별 건강검진 수검자를 성별 건강검진대상자로 나눈 백분율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스트레스 인지를 성비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성비	질병관리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안전 분야 (2개)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인식 성비	현 사회에서 범죄위험으로부터 느끼는 안전도의 남녀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강력범죄(홍역법) 피해자의 성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경찰청, 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수시 (1년)
가족 분야 (4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를 한 사람의 1주일 평균 시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만15세 이상 인구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의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정도(매우만족+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육아휴직자의 성비	만8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의 성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분석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문화정보 분야 (3개)	여가시간의 성비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성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을 말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여가만족도 성비	13세 이상 인구 중 각종 여가활동에서 느끼는 만족도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인터넷 이용률 성비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비율이며, 컴퓨터, 모바일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경험자 성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년

〈부록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표

〈부표 2-1〉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62.9	52.2	74.0	63.2	52.7	74.1	63.1	52.9	73.7
서울특별시	62.6	53.2	72.8	63.1	54.0	72.9	62.6	54.1	71.9
부산광역시	58.5	48.6	69.0	59.0	49.0	69.8	58.1	48.6	68.4
대구광역시	61.9	51.7	72.6	61.2	52.4	70.6	60.9	52.3	70.0
인천광역시	64.9	53.5	76.7	64.7	53.3	76.4	65.7	55.4	76.3
광주광역시	59.9	49.4	71.0	60.8	51.6	70.5	61.7	52.8	71.2
대전광역시	61.7	52.3	71.5	61.0	51.1	71.3	61.3	52.0	70.9
울산광역시	61.3	45.3	76.6	61.9	47.4	75.9	61.8	48.3	74.9
세종특별자치시	-	-	-	62.7	50.3	75.2	63.2	51.3	75.4
경기도	64.2	52.4	76.1	64.6	52.8	76.6	64.4	52.7	76.2
강원도	59.9	52.1	68.0	62.6	54.9	70.7	62.5	54.7	70.6
충청북도	63.7	54.7	72.7	64.0	54.7	73.3	64.9	54.2	75.6
충청남도	63.7	50.9	76.4	64.1	51.8	76.3	65.6	54.4	76.5
전라북도	61.2	51.0	71.8	60.1	49.9	70.8	59.9	49.6	70.7
전라남도	64.6	55.3	74.3	64.1	55.3	73.3	64.2	55.2	73.5
경상북도	64.4	52.8	76.3	64.2	52.9	75.8	64.2	53.1	75.6
경상남도	62.7	50.4	75.0	62.7	50.5	75.0	63.3	51.1	75.5
제주특별자치도	70.8	63.8	77.9	72.3	66.1	78.6	69.8	62.7	77.0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63.3	53.5	73.5	62.5	52.8	72.6	62.8	53.3	72.6
서울특별시	62.7	54.4	71.9	62.1	54.3	70.8	62.3	54.5	70.8
부산광역시	58.8	50.6	67.7	58.1	49.6	67.2	58.2	49.5	67.5
대구광역시	60.2	50.6	70.3	58.9	48.7	69.8	60.5	50.8	70.9
인천광역시	65.4	55.7	75.2	64.2	54.6	74.1	63.9	53.8	74.2
광주광역시	61.5	52.6	71.0	61.0	52.8	69.7	60.3	51.7	69.3
대전광역시	62.4	52.5	72.6	63.4	54.0	73.1	63.0	53.7	72.5
울산광역시	61.7	48.6	74.2	60.7	46.8	74.0	59.8	47.6	71.5
세종특별자치시	64.3	53.1	75.5	64.5	53.2	75.8	64.0	52.6	75.2
경기도	64.3	53.2	75.5	62.8	51.3	74.3	63.5	52.5	74.5
강원도	64.6	57.1	72.4	63.3	55.9	70.9	63.7	57.5	70.2
충청북도	64.9	55.0	74.7	65.3	55.9	74.5	65.0	55.8	74.0
충청남도	65.6	54.7	76.1	64.6	54.1	74.9	64.5	53.9	74.7
전라북도	61.0	51.5	70.8	61.5	52.3	70.9	62.6	53.9	71.6
전라남도	65.1	56.2	74.2	65.4	56.5	74.4	66.2	57.5	74.9
경상북도	64.2	53.0	75.5	63.7	52.5	74.9	63.0	51.7	74.3
경상남도	63.7	52.5	74.9	63.1	52.4	73.8	63.2	53.2	73.3
제주특별자치도	69.9	62.9	77.0	68.8	63.6	74.2	69.6	63.8	75.5

주: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부표 2-2〉 성별 임금격차

(단위: 천원,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전국	1,728	2,896	59.7	1,811	2,972	60.9	1,925	3,099	62.1
서울특별시	1,948	3,109	62.6	1,988	3,154	63.0	2,106	3,301	63.8
부산광역시	1,587	2,567	61.8	1,728	2,785	62.1	1,829	2,966	61.7
대구광역시	1,585	2,597	61.0	1,737	2,737	63.5	1,857	2,901	64.0
인천광역시	1,618	2,661	60.8	1,662	2,703	61.5	1,768	2,771	63.8
광주광역시	1,675	2,705	61.9	1,724	2,820	61.1	1,865	3,020	61.8
대전광역시	1,759	2,984	58.9	1,911	3,064	62.4	1,961	3,072	63.8
울산광역시	1,840	3,673	50.1	1,836	3,520	52.2	1,803	3,604	50.0
세종특별자치시				2,128	3,416	62.3	2,390	3,554	67.2
경기도	1,769	3,002	58.9	1,871	3,077	60.8	2,010	3,259	61.7
강원도	1,583	2,613	60.6	1,565	2,585	60.5	1,647	2,653	62.1
충청북도	1,659	2,640	62.8	1,843	2,862	64.4	1,890	2,921	64.7
충청남도	1,688	2,829	59.7	1,777	2,907	61.1	1,882	3,053	61.7
전라북도	1,623	2,589	62.7	1,670	2,760	60.5	1,797	2,720	66.1
전라남도	1,442	2,749	52.5	1,533	2,960	51.8	1,618	2,966	54.5
경상북도	1,524	2,766	55.1	1,598	2,798	57.1	1,717	2,958	58.0
경상남도	1,628	2,938	55.4	1,699	2,879	59.0	1,797	2,921	61.5
제주특별자치도	1,558	2,506	62.2	1,679	2,666	63.0	1,861	2,678	69.5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전국	2,009	3,193	62.9	2,027	3,181	63.7	2,125	3,295	64.5
서울특별시	2,219	3,443	64.4	2,280	3,447	66.1	2,439	3,592	67.9
부산광역시	1,877	2,977	63.1	1,872	2,880	65.0	1,944	2,946	66.0
대구광역시	1,994	3,028	65.9	1,932	2,966	65.1	2,034	3,050	66.7
인천광역시	1,906	2,933	65.0	1,890	2,879	65.6	1,991	3,078	64.7
광주광역시	1,937	3,061	63.3	1,969	3,105	63.4	2,030	3,152	64.4
대전광역시	2,038	3,147	64.8	2,040	3,082	66.2	2,137	3,288	65.0
울산광역시	1,887	3,523	53.6	1,893	3,309	57.2	1,968	3,497	56.3
세종특별자치시	2,454	3,771	65.1	2,472	3,842	64.3	2,531	3,999	63.3
경기도	2,078	3,312	62.7	2,090	3,313	63.1	2,192	3,445	63.6
강원도	1,738	2,714	64.0	1,808	2,767	65.3	1,839	2,809	65.5
충청북도	1,916	3,096	61.9	1,947	3,138	62.0	2,003	3,156	63.5
충청남도	1,954	3,190	61.3	1,997	3,167	63.1	2,081	3,292	63.2
전라북도	1,885	2,818	66.9	1,889	2,868	65.9	1,911	2,865	66.7
전라남도	1,700	3,033	56.1	1,684	3,128	53.8	1,732	3,142	55.1
경상북도	1,783	3,072	58.0	1,840	3,097	59.4	1,842	3,138	58.7
경상남도	1,814	3,010	60.3	1,799	2,932	61.4	1,896	3,036	62.5
제주특별자치도	1,903	2,825	67.4	1,912	2,865	66.7	1,995	2,900	68.8

주: 1) 취업자의 지난 3개월 평균임금.

2) 임금 격차=여성 임금/남성 임금\*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3〉 상용직 근로자

(단위: 천명,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3,062	4,980	8,082	38.1	13,428	5,196	8,232	38.7	13,772	5,425	8,347	39.4
서울특별시	2,600	1,064	1,537	40.9	2,671	1,103	1,568	41.3	2,689	1,130	1,559	42.0
부산광역시	813	316	498	38.9	847	326	522	38.5	891	357	534	40.1
대구광역시	558	233	325	41.8	578	251	327	43.4	585	251	334	42.9
인천광역시	766	282	484	36.8	789	298	490	37.8	820	322	498	39.3
광주광역시	362	135	227	37.3	379	146	233	38.5	397	156	241	39.3
대전광역시	416	165	251	39.7	429	172	258	40.1	416	171	245	41.1
울산광역시	341	92	249	27.0	336	101	235	30.1	337	104	233	30.9
세종특별자치시					82	30	52	36.6	98	37	62	37.8
경기도	3,527	1,320	2,207	37.4	3,633	1,390	2,243	38.3	3,774	1,478	2,297	39.2
강원도	338	146	192	43.2	348	143	206	41.1	353	142	212	40.2
충청북도	408	160	247	39.2	420	165	255	39.3	442	176	266	39.8
충청남도	610	220	390	36.1	552	199	353	36.1	591	228	363	38.6
전라북도	385	151	234	39.2	387	151	237	39.0	386	151	236	39.1
전라남도	346	127	219	36.7	351	135	216	38.5	363	138	226	38.0
경상북도	631	224	407	35.5	640	230	410	35.9	627	228	399	36.4
경상남도	824	284	539	34.5	832	287	545	34.5	851	292	559	34.3
제주특별자치도	137	60	77	43.8	155	71	84	45.8	152	66	86	43.4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4,216	5,680	8,536	40.0	14,522	5,855	8,667	40.3	14,887	6,092	8,795	40.9
서울특별시	2,840	1,209	1,631	42.6	2,955	1,309	1,646	44.3	2,996	1,339	1,657	44.7
부산광역시	916	392	525	42.8	873	375	498	43.0	848	362	486	42.7
대구광역시	612	258	354	42.2	618	257	361	41.6	665	283	382	42.6
인천광역시	830	337	493	40.6	857	343	514	40.0	884	358	526	40.5
광주광역시	412	163	249	39.6	411	172	239	41.8	407	171	236	42.0
대전광역시	440	178	262	40.5	448	183	265	40.8	451	188	263	41.7
울산광역시	339	111	228	32.7	342	108	234	31.6	346	115	231	33.2
세종특별자치시	113	43	70	38.1	125	48	77	38.4	131	50	81	38.2
경기도	3,861	1,498	2,363	38.8	3,990	1,537	2,453	38.5	4,197	1,654	2,543	39.4
강원도	369	153	216	41.5	375	157	218	41.9	374	165	209	44.1
충청북도	453	183	270	40.4	459	187	272	40.7	473	193	280	40.8
충청남도	600	370	230	61.7	581	227	354	39.1	617	242	375	39.2
전라북도	400	160	240	40.0	412	168	244	40.8	432	183	249	42.4
전라남도	378	150	229	39.7	389	152	237	39.1	385	150	235	39.0
경상북도	630	231	399	36.7	638	239	399	37.5	632	236	396	37.3
경상남도	872	317	554	36.4	1,211	322	889	26.6	878	331	547	37.7
제주특별자치도	152	68	85	44.7	160	71	89	44.4	173	74	99	4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부표 2-4〉 광역 의회의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4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761(81)	113(58)	648(23)	14.8	789(84)	113(55)	676(29)	14.3
서울특별시	106(10)	19(6)	87(4)	17.9	106(10)	21(6)	85(4)	19.8
부산광역시	47(5)	5(3)	42(2)	10.6	47(5)	6(4)	41(1)	12.8
대구광역시	29(3)	7(2)	22(1)	24.1	30(3)	6(2)	24(1)	20
인천광역시	33(3)	5(3)	28(0)	15.2	35(4)	3(2)	32(2)	8.6
광주광역시	22(3)	4(2)	18(1)	18.2	22(3)	6(2)	16(1)	27.3
대전광역시	22(3)	4(3)	18(0)	18.2	22(3)	6(3)	16(0)	27.3
울산광역시	22(3)	7(3)	15(0)	31.8	22(3)	4(2)	18(1)	18.2
경기도	124(12)	19(7)	105(5)	15.3	128(12)	20(7)	108(5)	15.6
강원도	42(4)	6(3)	36(1)	14.3	44(4)	3(2)	41(2)	6.8
충청북도	31(3)	3(2)	28(1)	9.7	31(3)	4(2)	27(1)	12.9
충청남도	40(4)	4(3)	36(1)	10	40(4)	2(2)	38(2)	5
전라북도	38(4)	4(3)	34(1)	10.5	38(4)	5(3)	33(1)	13.2
전라남도	57(6)	5(4)	52(2)	8.8	58(6)	5(4)	53(2)	8.6
경상북도	58(6)	8(4)	50(2)	13.8	60(6)	4(3)	56(3)	6.7
경상남도	54(5)	8(5)	46(0)	14.8	55(5)	8(4)	47(1)	14.5
제주특별자치도	36(7)	5(5)	31(2)	13.9	36(7)	7(5)	29(2)	19.4
시·도	2018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824(87)	160(62)	664(25)	19.4	872	173	699	19.8
서울특별시	110(10)	25(7)	85(3)	22.7	112	32	80	28.6
부산광역시	47(5)	10(3)	37(2)	21.3	47	7	40	14.9
대구광역시	30(3)	7(2)	23(1)	23.3	32	11	21	34.4
인천광역시	37(4)	3(3)	34(1)	8.1	40	7	33	17.5
광주광역시	23(3)	8(2)	15(1)	34.8	23	10	13	43.5
대전광역시	22(3)	5(2)	17(1)	22.7	22	4	18	18.2
울산광역시	22(3)	7(2)	15(1)	31.8	22	3	19	13.6
세종특별자치시	18(2)	6(2)	28(0)	17.6	20	8	12	40
경기도	142(13)	32(8)	110(5)	22.5	156	35	121	22.4
강원도	46(5)	9(5)	37(0)	19.6	49	8	41	16.3
충청북도	32(3)	6(2)	26(1)	18.8	35	5	30	14.3
충청남도	42(4)	8(3)	34(1)	19	48	7	41	14.6
전라북도	39(4)	5(3)	34(1)	12.8	40	9	31	22.5
전라남도	58(6)	8(5)	50(1)	13.8	61	10	51	16.4
경상북도	60(6)	7(4)	53(2)	11.7	61	6	55	9.8
경상남도	58(6)	8(4)	50(2)	13.8	64	3	61	4.7
제주특별자치도	38(7)	8(5)	30(2)	21.1	40	8	32	20

주: 1)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포함.

2) ( )는 광역의원비례대표 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표 2-5〉 기초 의회의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4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2,888(376)	626(352)	2,262(24)	21.7	2,898(379)	732(363)	2,166(16)	25.3
서울특별시	419(53)	119(51)	300(2)	28.4	419(53)	139(52)	280(1)	33.2
부산광역시	182(24)	43(24)	139(0)	23.6	182(24)	51(24)	131(0)	28.0
대구광역시	116(14)	25(13)	91(1)	21.6	116(14)	33(12)	83(2)	28.4
인천광역시	112(15)	30(15)	82(0)	26.8	116(15)	30(15)	86(0)	25.9
광주광역시	68(9)	21(9)	47(0)	30.9	68(9)	23(9)	45(0)	33.8
대전광역시	63(8)	16(7)	47(1)	25.4	63(9)	20(9)	43(0)	31.7
울산광역시	50(7)	12(7)	38(0)	24.0	50(7)	13(7)	37(0)	26.0
경기도	417(54)	113(49)	304(5)	27.1	431(55)	135(52)	296(3)	31.3
강원도	169(23)	32(22)	137(1)	18.9	169(23)	38(23)	131(0)	22.5
충청북도	131(17)	26(16)	105(1)	19.8	131(17)	28(16)	103(1)	21.4
충청남도	178(26)	32(26)	146(0)	18.0	169(25)	40(25)	129(0)	23.7
전라북도	197(24)	30(20)	167(4)	15.2	197(24)	37(24)	160(0)	18.8
전라남도	243(32)	39(29)	204(3)	16.0	243(32)	44(32)	199(0)	18.1
경상북도	284(37)	42(32)	242(5)	14.8	284(37)	44(28)	240(9)	15.5
경상남도	259(33)	46(32)	213(1)	17.8	260(35)	57(35)	203(0)	21.9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시·도	2018년				2022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2,926(385)	900(374)	2,026(11)	30.8	2,987	998	1,989	33.4
서울특별시	423(54)	168(54)	255(0)	39.7	427	170	257	39.8
부산광역시	182(25)	65(25)	117(0)	35.7	182	70	112	38.5
대구광역시	116(14)	36(13)	80(1)	31.0	121	40	81	33.1
인천광역시	118(16)	47(16)	71(0)	39.8	123	50	73	40.7
광주광역시	68(9)	23(8)	45(1)	33.8	69	30	39	43.5
대전광역시	63(9)	27(9)	36(0)	42.9	63	32	31	50.8
울산광역시	50(7)	13(7)	37(0)	26.0	50	18	32	36.0
경기도	446(56)	176(56)	270(0)	39.5	463	195	268	42.1
강원도	169(23)	37(23)	132(0)	21.9	174	49	125	28.2
충청북도	132(16)	30(16)	102(0)	22.7	136	35	101	25.7
충청남도	171(26)	46(26)	125(0)	26.9	177	56	121	31.6
전라북도	197(25)	48(23)	149(2)	24.4	197	52	145	26.4
전라남도	243(32)	52(28)	191(4)	21.4	247	58	189	23.5
경상북도	284(37)	64(36)	220(1)	22.5	288	59	229	20.5
경상남도	264(36)	68(34)	196(2)	25.8	270	84	186	31.1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주: 1)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포함.  
 2) ( )는 기초의원비례대표 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표 2-6〉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단위: 명,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2,083	2,775	19,308	12.6	22,527	3,137	19,390	13.9	23,305	3,631	19,674	15.6
서울특별시	3,261	679	2,582	20.8	3,355	733	2,622	21.8	3,455	803	2,652	23.2
부산광역시	1,408	211	1,197	15.0	1,419	265	1,154	18.7	1,492	321	1,171	21.5
대구광역시	985	126	859	12.8	1,009	136	873	13.5	1,007	149	858	14.8
인천광역시	1,275	166	1,109	13.0	1,291	185	1,106	14.3	1,348	203	1,145	15.1
광주광역시	723	123	600	17.0	727	140	587	19.3	764	160	604	20.9
대전광역시	675	101	574	15.0	692	110	582	15.9	696	114	582	16.4
울산광역시	555	71	484	12.8	594	87	507	14.6	612	115	497	18.8
세종특별자치시	233	30	203	12.9	241	32	209	13.3	282	46	236	16.3
경기도	3,420	426	2,994	12.5	3,534	470	3,064	13.3	3,597	519	3,078	14.4
강원도	1,213	108	1,105	8.9	1,232	145	1,087	11.8	1,310	192	1,118	14.7
충청북도	937	96	841	10.2	925	111	814	12.0	965	135	830	14
충청남도	1,167	79	1,088	6.8	1,182	88	1,094	7.4	1,219	113	1,106	9.3
전라북도	1,195	118	1,077	9.9	1,182	126	1,056	10.7	1,201	159	1,042	13.2
전라남도	1,376	114	1,262	8.3	1,392	121	1,271	8.7	1,440	155	1,285	10.8
경상북도	1,603	123	1,480	7.7	1,655	146	1,509	8.8	1,684	177	1,507	10.5
경상남도	1,493	126	1,367	8.4	1,527	158	1,369	10.3	1,606	186	1,420	11.6
제주특별자치도	564	78	486	13.8	570	84	486	14.7	627	104	523	16.6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4,269	4,325	19,944	17.8	24,834	5,165	19,669	20.8	25,431	6,171	19,260	24.3
서울특별시	3,535	876	2,659	24.8	3,558	989	2,569	27.8	3,596	1,100	2,496	30.6
부산광역시	1,532	419	1,113	27.3	1,571	523	1,048	33.3	1,609	602	1,007	37.4
대구광역시	1,039	197	842	19.0	1,065	238	827	22.3	1,078	297	781	27.6
인천광역시	1,415	269	1,146	19.0	1,460	331	1,129	22.7	1,470	408	1,062	27.8
광주광역시	797	193	604	24.2	838	233	605	27.8	873	264	609	30.2
대전광역시	714	127	587	17.8	751	161	590	21.4	788	204	584	25.9
울산광역시	649	154	495	23.7	661	193	468	29.2	694	232	462	33.4
세종특별자치시	316	61	255	19.3	326	71	255	21.8	355	88	267	24.8
경기도	3,820	597	3,223	15.6	3,898	694	3,204	17.8	4,009	841	3,168	21.0
강원도	1,339	208	1,131	15.5	1,372	241	1,131	17.6	1,399	292	1,107	20.9
충청북도	1,008	159	849	15.8	1,026	193	833	18.8	1,051	237	814	22.5
충청남도	1,277	127	1,150	9.9	1,313	152	1,161	11.6	1,375	194	1,181	14.1
전라북도	1,253	194	1,059	15.5	1,261	229	1,032	18.2	1,297	275	1,022	21.2
전라남도	1,502	190	1,312	12.6	1,562	225	1,337	14.4	1,655	307	1,348	18.5
경상북도	1,745	194	1,551	11.1	1,808	229	1,579	12.7	1,797	283	1,514	15.7
경상남도	1,694	244	1,450	14.4	1,736	324	1,412	18.7	1,766	393	1,373	22.3
제주특별자치도	634	116	518	18.3	628	139	489	22.1	619	154	465	24.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부표 2-7〉 관리직 근로자

단위: 천명,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326	34	292	10.4	323	38	285	11.9	389	60	329	15.4
서울특별시	81	8	73	10.3	80	10	70	12.5	70	9	61	12.6
부산광역시	22	2	20	8.4	27	2	25	7.8	45	8	37	17.9
대구광역시	16	2	14	14.3	21	3	18	12.7	24	4	20	16.7
인천광역시	14	1	13	6.1	6	1	5	13.8	12	1	11	9.8
광주광역시	8	1	7	14.8	12	2	10	18.4	13	2	10	19.8
대전광역시	17	2	14	14.7	16	1	15	8.1	16	2	13	15.4
울산광역시	5	1	4	11.0	5	1	4	19.3	4	1	4	17.6
세종특별자치시					1	0	1	11.4	1	0	1	16.4
경기도	63	5	57	8.2	57	4	53	7.1	94	14	80	15.0
강원도	10	2	9	16.2	8	1	7	14.2	7	1	6	17.7
충청북도	6	0	5	6.1	6	1	6	10.4	7	1	5	21.7
충청남도	19	2	17	12.6	12	2	10	16.9	11	1	9	12.4
전라북도	6	1	5	15.9	9	2	7	20.6	15	3	12	19.8
전라남도	10	1	8	14.9	14	2	12	13.3	16	3	14	15.5
경상북도	18	2	17	9.4	19	2	17	11.2	23	3	20	13.5
경상남도	29	2	27	8.3	28	4	24	15.1	29	5	25	16.0
제주특별자치도	2	0	2	5.7	1	0	1	25.7	3	1	2	23.9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398	61	337	15.3	406	66	340	16.3	401	64	337	16.0
서울특별시	79	9	69	12.0	89	14	75	16.0	103	18	85	17.5
부산광역시	29	4	26	13.1	30	5	25	17.0	17	2	15	11.8
대구광역시	24	4	20	16.6	21	4	17	19.2	19	3	17	15.8
인천광역시	12	1	11	9.4	14	2	12	13.9	14	2	12	14.3
광주광역시	13	5	8	37.4	9	2	7	26.7	13	3	10	23.1
대전광역시	10	2	8	23.1	13	3	10	23.4	10	1	8	10.0
울산광역시	5	0	4	4.0	6	1	5	15.8	5	1	4	20.0
세종특별자치시	2	0	1	24.6	3	0	3	11.9	4	0	4	0.0
경기도	100	15	85	14.8	96	12	83	12.7	95	14	81	14.7
강원도	14	2	11	16.5	17	3	14	20.0	15	2	13	13.3
충청북도	7	1	6	19.3	10	1	9	13.6	9	1	8	11.1
충청남도	14	2	12	11.8	16	2	14	10.8	14	2	12	14.3
전라북도	17	4	13	22.6	18	4	14	24.3	16	4	12	25.0
전라남도	11	1	10	11.2	10	1	9	11.1	15	2	13	13.3
경상북도	24	3	21	14.0	30	4	26	13.3	22	3	19	13.6
경상남도	33	6	28	16.8	20	5	15	23.6	17	2	15	11.8
제주특별자치도	4	0	4	9.5	5	1	4	25.1	12	2	10	16.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표 2-8〉 평균 교육년수

(단위: 년)

시·도	2005년			2010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11.2	10.5	12.1	11.6	10.9	12.4
서울특별시	12.3	11.7	13	12.7	12.1	13.3
부산광역시	11.3	10.7	12.1	11.6	11	12.3
대구광역시	11.4	10.7	12.2	11.7	11	12.4
인천광역시	11.3	10.7	12	11.6	11	12.3
광주광역시	11.8	11.1	12.7	12.1	11.4	12.9
대전광역시	11.9	11.1	12.7	12.2	11.5	13
울산광역시	11.4	10.8	12.1	11.7	11.1	12.3
경기도	11.8	11.1	12.5	12.1	11.5	12.7
강원도	10.1	9.1	11.1	10.5	9.6	11.5
충청북도	10.2	9.3	11.2	10.7	9.8	11.6
충청남도	9.7	8.7	10.7	10.3	9.4	11.3
전라북도	9.9	8.9	11.1	10.4	9.4	11.5
전라남도	8.9	7.8	10.3	9.4	8.3	10.8
경상북도	9.7	8.8	10.9	10.2	9.2	11.3
경상남도	10.5	9.5	11.5	10.9	10	11.9
제주특별자치도	10.7	9.6	11.9	11.1	10.1	12.2
시·도	2015년			2020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12.1	11.4	12.8	12.5	12.0	13.1
서울특별시	13	12.5	13.6	13.3	13.0	13.8
부산광역시	12	11.4	12.7	12.4	11.9	13.0
대구광역시	12.1	11.5	12.8	12.5	12.0	13.1
인천광역시	12.1	11.5	12.7	12.4	12.0	12.9
광주광역시	12.5	11.8	13.2	12.8	12.3	13.4
대전광역시	12.6	11.9	13.3	12.9	12.3	13.5
울산광역시	12.2	11.6	12.7	12.5	12.0	12.9
세종특별자치시	12.6	11.9	13.3	13.6	13.2	14.1
경기도	12.5	11.9	13.1	12.9	12.4	13.3
강원도	11.1	10.2	12.1	11.8	11.0	12.6
충청북도	11.3	10.5	12.2	11.9	11.2	12.6
충청남도	11	10.1	11.9	11.6	10.9	12.4
전라북도	11.1	10.2	12.1	11.7	10.9	12.5
전라남도	10.3	9.2	11.5	11.1	10.1	12.0
경상북도	10.9	9.9	11.9	11.5	10.6	12.3
경상남도	11.5	10.7	12.4	12.0	11.3	12.7
제주특별자치도	11.8	10.9	12.7	12.4	11.8	13.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부표 2-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69.8	73.5	66.3	68.9	72.7	65.3	69.7	73.8	65.9
서울특별시	55.8	58.8	53.0	54.8	57.8	52.0	54.9	58.5	51.4
부산광역시	73.5	78.3	69.1	72.9	77.0	69.4	74.9	79.5	70.7
대구광역시	73.4	79.2	68.3	73.0	78.0	68.6	74.2	79.3	69.6
인천광역시	66.0	67.8	64.3	65.4	67.8	63.2	67.1	68.2	66.0
광주광역시	76.7	79.9	73.6	76.2	79.1	73.4	76.8	79.9	73.8
대전광역시	74.1	78.1	70.3	72.5	77.1	68.4	73.5	77.6	69.7
울산광역시	78.1	81.5	75.0	77.3	81.3	73.9	78.0	82.2	74.2
세종특별자치시	72.0	75.1	68.6	78.7	81.9	75.3	79.1	82.7	75.6
경기도	69.0	72.7	65.5	68.0	71.8	64.3	68.2	72.7	64.0
강원도	77.0	81.6	72.9	74.5	79.4	70.1	76.2	80.2	72.5
충청북도	74.0	76.0	72.1	73.2	76.4	70.3	75.2	79.2	71.5
충청남도	71.5	76.0	67.4	71.9	74.8	69.2	73.0	76.9	69.5
전라북도	75.6	81.3	70.4	74.8	80.3	69.8	75.3	80.9	70.2
전라남도	71.2	75.5	67.0	70.2	74.8	66.0	71.4	76.7	66.6
경상북도	77.2	81.8	73.2	76.2	81.6	71.4	76.5	82.3	71.6
경상남도	78.7	83.1	74.7	77.2	82.8	72.1	79.9	84.7	75.5
제주특별자치도	80.0	82.1	78.0	76.3	77.9	74.8	75.1	76.2	74.0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0.4	74.5	66.6	72.5	76.1	69.3	73.7	77.4	70.3
서울특별시	55.3	59.4	51.5	58.7	61.5	56.0	61.5	64.3	58.7
부산광역시	75.4	80.2	71.1	77.7	81.8	73.9	79.5	83.4	76.0
대구광역시	75.7	80.3	71.7	78.9	83.9	74.5	79.4	85.1	74.6
인천광역시	68.6	71.3	66.0	70.8	73.6	68.3	73.1	75.8	70.6
광주광역시	77.4	79.4	75.6	80.0	81.7	78.4	80.7	82.0	79.5
대전광역시	74.5	77.9	71.4	75.4	78.1	73.1	76.6	79.8	73.7
울산광역시	78.9	83.5	74.8	80.4	84.5	76.9	82.1	86.2	78.5
세종특별자치시	75.5	76.5	74.5	81.1	83.0	79.1	78.2	80.3	76.1
경기도	68.5	72.8	64.5	70.5	74.4	66.9	71.7	75.5	68.3
강원도	75.9	79.4	72.9	76.7	79.5	74.1	76.9	81.3	73.0
충청북도	76.0	80.5	71.9	75.8	78.6	73.3	77.9	80.6	75.4
충청남도	74.8	79.4	70.7	75.7	79.5	72.3	76.3	80.9	72.3
전라북도	76.9	81.6	72.6	77.8	82.2	73.8	77.2	82.8	72.4
전라남도	74.0	77.8	70.5	76.1	80.1	72.4	75.8	80.1	72.0
경상북도	76.9	82.3	72.3	78.0	83.9	72.9	77.9	83.6	73.0
경상남도	79.4	85.1	74.3	81.9	86.3	78.0	81.8	87.5	76.8
제주특별자치도	76.5	79.0	74.2	77.4	79.4	75.5	78.5	80.1	77.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부표 2-10〉 기초생활수급자

(단위: 명,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1,539,539	839,804	699,735	1,491,650	808,757	682,893	1,653,781	908,475	745,306
서울특별시	255,226	137,769	117,457	251,809	134,829	116,980	277,991	149,533	128,458
부산광역시	143,911	78,909	65,002	139,779	76,321	63,458	153,741	84,785	68,956
대구광역시	102,030	56,951	45,079	97,675	54,399	43,276	105,209	59,298	45,911
인천광역시	95,767	52,516	43,251	94,159	51,434	42,725	105,440	58,395	47,045
광주광역시	66,295	36,440	29,855	62,716	34,231	28,485	69,930	38,874	31,056
대전광역시	51,440	28,161	23,279	49,335	26,869	22,466	53,355	29,328	24,027
울산광역시	17,687	9,552	8,135	17,764	9,547	8,217	21,894	12,052	9,842
세종특별자치시	3,741	2,064	1,677	3,766	2,058	1,708	4,357	2,432	1,925
경기도	248,944	135,686	113,258	246,032	133,426	112,606	281,505	154,810	126,695
강원도	58,500	31,620	26,880	56,528	30,388	26,140	62,914	34,561	28,353
충청북도	48,294	26,295	21,999	46,052	24,952	21,100	53,726	29,982	23,744
충청남도	57,896	31,440	23,456	55,602	29,979	25,623	60,852	33,291	27,561
전라북도	94,287	51,767	42,520	89,275	48,690	40,585	95,745	52,922	42,823
전라남도	77,831	41,918	35,913	73,106	38,922	34,184	78,998	42,975	36,023
경상북도	98,043	54,096	43,947	92,972	50,991	41,981	100,423	55,719	44,704
경상남도	98,229	52,952	45,277	95,027	50,832	44,195	106,360	57,919	48,441
제주특별자치도	21,418	11,668	9,750	20,053	10,889	9,164	21,341	11,599	9,742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1,792,012	988,510	803,502	2,046,213	1,125,892	920,321	2,359,672	1,309,718	1,049,954
서울특별시	306,548	164,866	141,682	359,244	192,240	167,004	402,632	215,840	186,792
부산광역시	167,251	92,669	74,582	191,283	105,713	85,570	217,335	120,943	96,392
대구광역시	112,501	63,775	48,726	126,560	71,499	55,061	144,092	81,867	62,225
인천광역시	117,111	65,095	52,016	137,676	76,178	61,498	159,186	88,861	70,325
광주광역시	73,489	40,974	32,515	82,306	45,915	36,391	91,548	51,187	40,361
대전광역시	56,299	30,978	25,321	63,822	35,015	28,807	72,908	40,110	32,798
울산광역시	25,545	14,144	11,401	32,210	17,773	14,437	38,575	21,331	17,244
세종특별자치시	5,226	2,907	2,319	6,587	3,647	2,940	7,880	4,322	3,558
경기도	312,511	172,699	139,812	362,988	199,548	163,440	422,615	233,747	188,868
강원도	67,269	37,349	29,920	74,329	41,496	32,833	84,114	47,651	36,463
충청북도	57,076	32,120	24,956	63,967	36,081	27,886	76,619	43,368	33,251
충청남도	64,162	35,365	28,797	70,991	39,121	31,870	84,802	47,487	37,315
전라북도	100,656	56,048	44,608	109,921	61,211	48,710	125,438	70,868	54,570
전라남도	81,356	44,563	36,793	87,197	47,904	39,293	101,475	57,121	44,354
경상북도	106,860	59,434	47,426	118,163	65,710	52,453	141,175	80,131	61,044
경상남도	115,599	63,338	52,261	132,073	72,419	59,654	156,832	87,338	69,494
제주특별자치도	22,553	12,186	10,367	26,896	14,422	12,474	32,446	17,546	14,900

주: 일반수급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부표 2-11〉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단위: 명,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8,367,307	10,713,076	43.9	8,646,882	10,789,233	44.5	9,035,169	11,058,325	45.0
서울특별시	2,457,773	2,911,068	45.8	2,520,123	2,926,131	46.3	2,603,857	2,991,567	46.5
부산광역시	498,509	576,784	46.4	508,230	573,000	47.0	525,075	581,308	47.5
대구광역시	347,200	407,545	46.0	357,553	407,916	46.7	370,872	413,539	47.3
인천광역시	383,445	494,215	43.7	398,123	497,726	44.4	421,787	510,181	45.3
광주광역시	211,651	235,510	47.3	219,021	239,083	47.8	228,465	244,548	48.3
대전광역시	245,111	283,110	46.4	250,824	285,358	46.8	260,412	294,852	46.9
울산광역시	157,288	245,543	39.0	160,114	236,901	40.3	167,384	229,027	42.2
세종특별자치시	36,721	50,659	42.0	42,161	53,125	44.2	50,043	57,627	46.5
경기도	1,835,848	2,493,653	42.4	1,920,093	2,549,279	43.0	2,045,769	2,654,512	43.5
강원도	222,911	257,100	46.4	231,466	258,874	47.2	241,189	264,152	47.7
충청북도	232,545	305,076	43.3	242,441	312,570	43.7	251,640	322,259	43.8
충청남도	291,756	442,761	39.7	305,562	453,150	40.3	318,685	463,849	40.7
전라북도	257,216	298,306	46.3	263,140	296,556	47.0	273,261	303,591	47.4
전라남도	249,764	352,582	41.5	259,027	351,496	42.4	272,186	364,853	42.7
경상북도	366,105	554,646	39.8	378,799	555,111	40.6	388,728	559,347	41.0
경상남도	472,574	689,476	40.7	482,415	669,447	41.9	502,602	674,605	42.7
제주특별자치도	100,890	115,042	46.7	107,790	123,510	46.6	113,214	128,508	46.8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9,271,909	11,186,408	45.3	9,385,592	11,172,608	45.7	9,602,726	11,251,634	46.0
서울특별시	2,656,627	3,013,437	46.9	2,654,340	2,998,328	47.0	2,708,067	3,022,618	47.3
부산광역시	531,869	577,072	48.0	533,907	568,428	48.4	541,134	564,412	48.9
대구광역시	375,750	408,840	47.9	376,602	401,909	48.4	380,470	400,378	48.7
인천광역시	436,904	516,182	45.8	442,116	519,576	46.0	458,666	532,735	46.3
광주광역시	233,327	243,739	48.9	237,447	245,892	49.1	241,000	246,546	49.4
대전광역시	262,194	298,788	46.7	268,284	305,105	46.8	268,750	301,252	47.1
울산광역시	173,262	233,505	42.6	175,004	226,639	43.6	177,121	222,571	44.3
세종특별자치시	56,169	64,128	46.7	61,417	66,468	48.0	66,617	70,293	48.7
경기도	2,129,497	2,721,740	43.9	2,188,649	2,751,432	44.3	2,276,094	2,816,174	44.7
강원도	243,681	266,696	47.7	248,246	266,802	48.2	253,118	267,782	48.6
충청북도	258,277	328,832	44.0	262,563	327,412	44.5	267,268	329,074	44.8
충청남도	327,337	467,694	41.2	333,752	473,387	41.4	341,257	478,090	41.6
전라북도	278,078	304,508	47.7	281,005	302,590	48.2	282,988	300,490	48.5
전라남도	281,955	375,039	42.9	290,086	384,473	43.0	294,579	376,273	43.9
경상북도	395,457	558,388	41.5	397,176	548,550	42.0	402,779	547,123	42.4
경상남도	514,226	676,114	43.2	515,769	656,109	44.0	520,330	645,406	44.6
제주특별자치도	117,299	131,706	47.1	119,209	129,528	47.9	122,488	130,417	48.4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부표 2-12〉 국민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7,707,145	9,952,110	43.6	7,968,295	10,029,760	44.3	8,322,391	10,290,191	44.7
서울특별시	2,306,542	2,742,184	45.7	2,365,736	2,757,608	46.2	2,444,915	2,825,083	46.4
부산광역시	454,011	527,187	46.3	462,757	524,210	46.9	477,428	532,554	47.3
대구광역시	312,471	365,426	46.1	321,606	365,769	46.8	333,298	371,039	47.3
인천광역시	352,345	464,174	43.2	366,162	467,623	43.9	387,978	479,446	44.7
광주광역시	191,023	208,739	47.8	197,922	212,540	48.2	206,536	217,843	48.7
대전광역시	217,005	246,283	46.8	222,078	248,914	47.2	230,636	259,490	47.1
울산광역시	144,862	233,280	38.3	146,233	224,270	39.5	152,888	216,192	41.4
세종특별자치시	28,922	37,705	43.4	33,569	40,127	45.6	40,145	43,689	47.9
경기도	1,703,907	2,376,721	41.8	1,784,613	2,431,440	42.3	1,901,958	2,531,508	42.9
강원도	200,117	222,027	47.4	208,059	223,765	48.2	216,602	228,499	48.7
충청북도	212,307	278,848	43.2	221,525	286,361	43.6	229,202	295,649	43.7
충청남도	267,044	410,237	39.4	280,214	420,613	40.0	290,646	428,964	40.4
전라북도	230,705	262,976	46.7	236,053	261,704	47.4	245,157	268,836	47.7
전라남도	225,068	315,599	41.6	233,563	314,708	42.6	245,423	327,940	42.8
경상북도	335,442	510,357	39.7	347,503	511,376	40.5	356,271	515,673	40.9
경상남도	432,623	646,678	40.1	441,308	626,843	41.3	459,197	631,322	42.1
제주특별자치도	92,751	103,689	47.2	99,394	111,889	47.0	104,111	116,464	47.2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8,531,930	10,407,639	45.0	8,619,802	10,389,212	45.3	8,807,043	10,455,574	45.7
서울특별시	2,490,971	2,845,845	46.7	2,483,663	2,829,764	46.7	2,530,577	2,849,946	47.0
부산광역시	483,273	528,274	47.8	484,078	519,944	48.2	490,193	515,666	48.7
대구광역시	337,183	365,736	48.0	336,882	358,901	48.4	339,497	356,905	48.8
인천광역시	400,614	483,206	45.3	404,609	486,534	45.4	419,845	498,165	45.7
광주광역시	210,946	217,256	49.3	214,294	219,468	49.4	217,219	219,954	49.7
대전광역시	231,750	263,494	46.8	237,187	269,922	46.8	237,046	267,000	47.0
울산광역시	158,456	220,488	41.8	159,632	213,494	42.8	161,063	209,141	43.5
세종특별자치시	44,516	47,892	48.2	48,369	49,030	49.7	51,921	51,473	50.2
경기도	1,981,968	2,597,039	43.3	2,035,991	2,625,463	43.7	2,117,247	2,688,201	44.1
강원도	218,262	230,712	48.6	221,972	230,613	49.0	225,636	230,816	49.4
충청북도	234,895	302,064	43.7	238,039	300,409	44.2	241,501	301,726	44.5
충청남도	297,806	432,590	40.8	302,974	438,098	40.9	308,988	442,119	41.1
전라북도	248,915	269,247	48.0	250,568	267,141	48.4	251,357	264,653	48.7
전라남도	253,817	337,530	42.9	260,632	346,776	42.9	263,586	337,728	43.8
경상북도	361,884	514,484	41.3	362,556	504,489	41.8	366,905	502,763	42.2
경상남도	468,966	632,337	42.6	469,220	612,246	43.4	472,364	601,185	44.0
제주특별자치도	107,708	119,445	47.4	109,136	116,920	48.3	112,098	118,133	48.7

주: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부표 2-13〉 공무원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493,705	614,267	44.6	506,810	613,648	45.2	536,205	624,381	46.2
서울특별시	93,398	120,134	43.7	95,327	119,907	44.3	100,249	120,728	45.4
부산광역시	31,951	39,660	44.6	32,743	39,095	45.6	34,366	39,339	46.6
대구광역시	24,358	34,309	41.5	25,213	34,440	42.3	26,229	34,888	42.9
인천광역시	25,453	25,880	49.6	25,865	25,983	49.9	27,644	26,645	50.9
광주광역시	16,013	21,557	42.6	16,405	21,441	43.3	17,186	21,773	44.1
대전광역시	21,587	30,661	41.3	22,089	30,300	42.2	23,043	29,254	44.1
울산광역시	10,672	9,900	51.9	10,813	9,915	52.2	11,425	10,138	53.0
세종특별자치시	7,799	12,954	37.6	8,510	12,827	39.9	9,778	13,712	41.6
경기도	104,556	97,254	51.8	107,622	98,366	52.2	114,980	102,573	52.9
강원도	18,377	30,551	37.6	18,772	30,472	38.1	19,737	31,093	38.8
충청북도	17,108	22,395	43.3	17,640	22,410	44.0	18,715	22,723	45.2
충청남도	19,964	26,696	42.8	20,564	26,830	43.4	22,005	28,086	43.9
전라북도	20,487	29,161	41.3	20,983	28,825	42.1	22,055	29,106	43.1
전라남도	20,250	32,674	38.3	20,934	32,590	39.1	22,077	32,822	40.2
경상북도	23,538	34,442	40.6	24,142	34,123	41.4	25,280	34,307	42.4
경상남도	31,229	35,736	46.6	32,038	35,553	47.4	33,671	36,211	48.2
제주특별자치도	6,965	10,303	40.3	7,150	10,571	40.3	7,765	10,983	41.4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558,708	636,343	46.8	579,527	641,795	47.5	605,802	655,619	48.0
서울특별시	103,840	121,689	46.0	106,907	122,636	46.6	112,136	126,959	46.9
부산광역시	35,143	39,616	47.0	36,161	39,458	47.8	37,206	39,958	48.2
대구광역시	26,825	35,499	43.0	27,373	35,308	43.7	28,190	35,769	44.1
인천광역시	30,147	28,918	51.0	31,354	29,104	51.9	32,669	30,674	51.6
광주광역시	17,705	21,770	44.9	18,342	21,854	45.6	18,977	22,109	46.2
대전광역시	23,421	29,140	44.6	23,999	29,065	45.2	24,194	28,076	46.3
울산광역시	11,702	10,326	53.1	12,143	10,440	53.8	12,704	10,729	54.2
세종특별자치시	11,515	16,007	41.8	12,595	17,066	42.5	13,954	18,317	43.2
경기도	118,990	104,515	53.2	123,608	105,691	53.9	129,686	107,908	54.6
강원도	20,425	31,433	39.4	21,088	31,667	40.0	22,187	32,443	40.6
충청북도	19,637	22,945	46.1	20,697	23,232	47.1	21,851	23,679	48.0
충청남도	23,348	28,448	45.1	24,490	28,773	46.0	25,885	29,502	46.7
전라북도	23,086	29,701	43.7	24,143	29,960	44.6	25,288	30,387	45.4
전라남도	23,234	33,617	40.9	24,412	33,882	41.9	25,802	34,845	42.5
경상북도	26,468	34,767	43.2	27,519	35,183	43.9	28,804	35,745	44.6
경상남도	35,083	36,762	48.8	36,248	36,998	49.5	37,536	37,354	50.1
제주특별자치도	8,139	11,190	42.1	8,448	11,478	42.4	8,733	11,165	43.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부표 2-14〉 사학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66,457	146,699	53.1	171,777	145,825	54.1	176,573	143,753	55.1
서울특별시	57,833	48,750	54.2	59,060	48,616	54.8	58,693	45,756	56.2
부산광역시	12,547	9,937	55.8	12,730	9,695	56.8	13,281	9,415	58.5
대구광역시	10,371	7,810	57.0	10,734	7,707	58.2	11,345	7,612	59.8
인천광역시	5,647	4,161	57.5	6,096	4,120	59.7	6,165	4,090	60.1
광주광역시	4,615	5,214	46.9	4,694	5,102	47.9	4,743	4,932	49.0
대전광역시	6,519	6,166	51.3	6,657	6,144	52.0	6,733	6,108	52.4
울산광역시	1,754	2,363	42.6	3,068	2,716	53.0	3,071	2,697	53.2
세종특별자치시	-	-	-	82	171	32.4	120	226	34.7
경기도	27,385	19,678	58.1	27,858	19,473	58.9	28,831	20,431	58.5
강원도	4,417	4,522	49.4	4,635	4,637	50.0	4,850	4,560	51.5
충청북도	3,130	3,833	44.9	3,276	3,799	46.3	3,723	3,887	48.9
충청남도	4,748	5,828	44.8	4,784	5,707	45.6	6,034	6,799	47.0
전라북도	6,024	6,169	49.4	6,104	6,027	50.3	6,049	5,649	51.7
전라남도	4,446	4,309	50.7	4,530	4,198	51.9	4,686	4,091	53.4
경상북도	7,125	9,847	41.9	7,154	9,612	42.7	7,177	9,367	43.4
경상남도	8,722	7,062	55.2	9,069	7,051	56.3	9,734	7,072	57.9
제주특별자치도	1,174	1,050	52.7	1,246	1,050	54.3	1,338	1,061	55.8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81,271	142,426	56.0	186,263	141,601	56.8	189,881	140,441	57.5
서울특별시	61,816	45,903	57.4	63,770	45,928	58.1	65,354	45,713	58.8
부산광역시	13,453	9,182	59.4	13,668	9,026	60.2	13,735	8,788	61.0
대구광역시	11,742	7,605	60.7	12,347	7,700	61.6	12,783	7,704	62.4
인천광역시	6,143	4,058	60.2	6,153	3,938	61.0	6,152	3,896	61.2
광주광역시	4,676	4,713	49.8	4,811	4,570	51.3	4,804	4,483	51.7
대전광역시	7,023	6,154	53.3	7,098	6,118	53.7	7,510	6,176	54.9
울산광역시	3,104	2,691	53.6	3,229	2,705	54.4	3,354	2,701	55.4
세종특별자치시	138	229	37.6	453	372	54.9	742	503	59.6
경기도	28,539	20,186	58.6	29,050	20,278	58.9	29,161	20,065	59.2
강원도	4,994	4,551	52.3	5,186	4,522	53.4	5,295	4,523	53.9
충청북도	3,745	3,823	49.5	3,827	3,771	50.4	3,916	3,669	51.6
충청남도	6,183	6,656	48.2	6,288	6,516	49.1	6,384	6,469	49.7
전라북도	6,077	5,560	52.2	6,294	5,489	53.4	6,343	5,450	53.8
전라남도	4,904	3,892	55.8	5,042	3,815	56.9	5,191	3,700	58.4
경상북도	7,105	9,137	43.7	7,101	8,878	44.4	7,070	8,615	45.1
경상남도	10,177	7,015	59.2	10,301	6,865	60.0	10,430	6,867	60.3
제주특별자치도	1,452	1,071	57.6	1,625	1,130	59.0	1,657	1,119	59.7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내부자료

〈부표 2-15〉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단위: 점수)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0.953	0.941	0.965	-	0.947	0.966	-	0.941	0.966
서울특별시	0.951	0.938	0.964	0.950	0.939	0.962	0.954	0.944	0.965
부산광역시	0.943	0.930	0.957	0.947	0.935	0.960	0.95	0.940	0.96
대구광역시	0.953	0.943	0.965	0.956	0.944	0.968	0.96	0.949	0.97
인천광역시	0.947	0.934	0.960	0.947	0.936	0.959	0.945	0.933	0.957
광주광역시	0.952	0.940	0.964	0.950	0.936	0.965	0.959	0.947	0.972
대전광역시	0.953	0.942	0.964	0.958	0.949	0.968	0.959	0.951	0.968
울산광역시	0.962	0.948	0.975	0.965	0.957	0.973	0.966	0.957	0.975
세종특별자치시	0.953	0.941	0.965	0.958	0.943	0.974	0.94	0.922	0.958
경기도	0.950	0.937	0.963	0.952	0.939	0.964	0.954	0.943	0.966
강원도	0.939	0.924	0.954	0.943	0.928	0.959	0.941	0.923	0.959
충청북도	0.942	0.927	0.957	0.944	0.928	0.960	0.949	0.934	0.963
충청남도	0.932	0.914	0.949	0.931	0.914	0.948	0.931	0.913	0.949
전라북도	0.933	0.912	0.953	0.931	0.911	0.952	0.935	0.917	0.953
전라남도	0.934	0.915	0.954	0.937	0.919	0.955	0.935	0.914	0.956
경상북도	0.940	0.924	0.956	0.942	0.925	0.959	0.941	0.925	0.958
경상남도	0.946	0.929	0.962	0.953	0.939	0.967	0.951	0.938	0.965
제주특별자치도	0.936	0.918	0.954	0.951	0.937	0.965	0.952	0.943	0.961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	0.943	0.967	0.956	0.944	0.968	0.957	0.945	0.969
서울특별시	0.944	0.932	0.958	0.946	0.933	0.959	0.947	0.934	0.960
부산광역시	0.942	0.928	0.957	0.944	0.929	0.958	0.945	0.930	0.959
대구광역시	0.948	0.934	0.962	0.949	0.935	0.963	0.950	0.936	0.964
인천광역시	0.947	0.933	0.96	0.948	0.934	0.961	0.949	0.935	0.962
광주광역시	0.951	0.94	0.962	0.952	0.941	0.963	0.953	0.942	0.964
대전광역시	0.96	0.95	0.97	0.961	0.951	0.971	0.962	0.952	0.972
울산광역시	0.955	0.941	0.968	0.956	0.942	0.969	0.957	0.943	0.970
세종특별자치시	0.963	0.955	0.971	0.964	0.956	0.972	0.965	0.957	0.973
경기도	0.95	0.938	0.962	0.951	0.939	0.963	0.952	0.940	0.964
강원도	0.936	0.917	0.955	0.937	0.918	0.956	0.938	0.919	0.957
충청북도	0.939	0.922	0.955	0.940	0.923	0.956	0.941	0.924	0.957
충청남도	0.93	0.911	0.949	0.931	0.912	0.950	0.932	0.913	0.951
전라북도	0.933	0.916	0.951	0.935	0.917	0.952	0.936	0.918	0.953
전라남도	0.94	0.92	0.959	0.941	0.921	0.960	0.942	0.922	0.961
경상북도	0.941	0.924	0.958	0.942	0.925	0.959	0.943	0.926	0.960
경상남도	0.946	0.932	0.961	0.948	0.933	0.962	0.949	0.934	0.963
제주특별자치도	0.947	0.934	0.959	0.948	0.935	0.960	0.949	0.936	0.961

자료: 질병관리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부표 2-16〉 건강검진수검률

(단위: %)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6.1	74.6	77.5	77.7	76.5	78.9	78.5	77.2	79.7
서울특별시	73.0	72.6	73.3	75.1	75.0	75.2	75.8	75.6	75.9
부산광역시	76.9	75.2	78.5	78.4	77.0	79.6	79.1	77.7	80.5
대구광역시	75.5	74.5	76.5	77.5	76.4	78.4	78.1	76.9	79.2
인천광역시	77.9	76.3	79.2	79.6	78.3	80.6	80.3	79.1	81.3
광주광역시	80.4	79.6	81.1	81.6	81.3	82.0	82.3	81.8	82.7
대전광역시	79.5	78.3	80.5	80.0	79.3	80.7	81.6	80.9	82.2
울산광역시	81.6	74.8	86.1	82.5	76.4	86.7	83.4	77.8	87.5
세종특별자치시	77.3	75.3	78.9	79.5	76.5	81.9	81.9	79.2	84.2
경기도	75.6	74.0	76.9	77.5	76.2	78.6	78.4	77.0	79.6
강원도	76.6	75.9	77.3	77.9	77.0	78.7	78.6	77.6	79.5
충청북도	78.9	77.5	80.1	80.4	79.3	81.4	81.3	80.1	82.3
충청남도	76.4	74.0	78.4	77.3	75.0	79.1	77.6	75.1	79.5
전라북도	78.5	77.9	78.9	79.4	79.0	79.7	79.8	79.3	80.3
전라남도	77.7	76.4	78.8	78.6	77.5	79.6	79.8	78.8	80.7
경상북도	76.0	73.6	78.1	77.3	75.2	79.2	77.9	75.6	79.8
경상남도	76.8	73.2	79.6	78.2	75.1	80.6	78.8	75.9	81.1
제주특별자치도	71.2	72.6	69.9	73.2	74.7	71.7	73.1	74.2	72.1
시·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6.9	75.8	78.0	74.1	72.6	75.6	67.8	66.3	69.2
서울특별시	74.5	74.5	74.5	72.0	72.1	71.8	64.6	64.8	64.4
부산광역시	77.2	76.0	78.2	73.8	72.5	75.1	68.3	67.2	69.5
대구광역시	76.2	75.3	77.0	72.3	71.3	73.4	68.2	67.3	69.0
인천광역시	78.4	77.3	79.4	75.8	74.3	77.2	69.8	68.4	71.0
광주광역시	79.8	79.4	80.1	76.1	75.4	76.9	70.8	70.3	71.2
대전광역시	80.8	80.3	81.2	77.1	76.1	78.0	72.2	71.7	72.7
울산광역시	81.4	75.6	85.5	78.1	72.3	82.7	73.7	67.7	78.4
세종특별자치시	80.5	77.9	82.6	78.6	74.9	81.9	73.1	69.5	76.2
경기도	77.1	75.8	78.2	74.4	72.5	76.1	67.3	65.5	69.0
강원도	77.1	76.1	78.0	75.2	73.9	76.4	68.3	67.2	69.3
충청북도	80.0	78.8	81.1	77.3	75.3	79.1	71.5	69.7	73.1
충청남도	76.7	74.3	78.7	74.3	70.9	77.3	68.2	64.3	71.5
전라북도	78.0	77.7	78.2	74.9	74.1	75.7	68.7	68.0	69.4
전라남도	77.1	76.1	78.1	74.4	72.9	75.9	67.4	65.6	69.1
경상북도	76.6	74.5	78.5	73.0	70.6	75.2	67.5	64.7	69.9
경상남도	76.6	73.8	78.8	74.2	70.8	77.2	68.7	65.5	71.5
제주특별자치도	72.3	73.5	71.1	71.3	72.4	70.3	65.0	66.2	63.8

주: 1) 수검률=건강검진수검인원/건강검진대상인원\*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은 1차 수검자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부표 2-1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p)

시·도	2014년				2016년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국	9.5	7.4	11.7	4.3	13.2	10.6	15.9	5.3				
서울특별시	9.9	7.4	12.5	5.1	14.2	10.5	18.1	7.6				
부산광역시	10.4	9.5	11.5	2.0	19.6	17.5	21.8	4.3				
대구광역시	8.3	6.3	10.4	4.1	12.4	10.7	14.1	3.4				
인천광역시	11.7	8.7	14.7	6.0	11.3	9.4	13.2	3.8				
광주광역시	4.7	3.4	6.0	2.6	8.3	7.0	9.6	2.6				
대전광역시	12.1	9.7	14.7	5.0	13.9	10.6	17.3	6.7				
울산광역시	7.8	6.2	9.3	3.1	10.5	8.2	12.7	4.5				
세종특별자치시	-	-	-	-	17.9	15.3	20.4	5.1				
경기도	8.2	5.9	10.4	4.5	12.5	9.5	15.5	6.0				
강원도	11.4	9.9	13.0	3.1	12.8	9.9	15.8	5.9				
충청북도	11.9	9.7	14.2	4.5	13.5	9.3	17.7	8.4				
충청남도	8.1	5.6	10.6	5.0	13.0	9.6	16.4	6.8				
전라북도	5.4	3.5	7.5	4.0	14.8	14.8	14.7	0.1				
전라남도	11.5	10.1	12.9	2.8	11.4	10.5	12.4	1.9				
경상북도	15.1	11.8	18.5	6.7	12.2	10.1	14.5	4.4				
경상남도	8.5	7.1	9.9	2.8	12.3	10.3	14.2	3.9				
제주특별자치도	11.0	8.0	14.2	6.2	12.6	9.8	15.3	5.5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전국	20.5	16.6	24.5	7.9	31.8	27.6	36.0	8.4	33.4	29.7	37.0	7.3
서울특별시	24.5	19.2	30.1	10.9	31.9	27.0	37.2	10.2	36.0	31.6	40.9	9.3
부산광역시	22.6	20	25.3	5.3	36.7	34.6	38.9	4.3	36.8	33.7	39.9	6.2
대구광역시	12.2	10.7	13.9	3.2	24.2	21.2	26.0	4.8	30.1	27.1	33.1	6.0
인천광역시	17.3	14.6	20.1	5.5	32.7	28.9	36.4	7.5	33.9	30.1	37.7	7.6
광주광역시	16.0	12	20.4	8.4	37	32.8	41.6	8.8	28.4	26.2	30.8	4.6
대전광역시	21.9	17.1	26.6	9.5	38.3	33.8	42.8	9.0	39.8	36.7	42.7	6.0
울산광역시	21.5	17.5	25.1	7.6	37.7	31.2	41.7	10.5	36.5	30.5	42.2	11.7
세종특별자치시	27.3	24.5	30.4	5.9	42.9	34.6	48.7	14.1	36.1	31.5	40.8	9.3
경기도	19.0	15	23.1	8.1	33.1	28.1	38.1	10.0	32.5	29.1	35.8	6.7
강원도	21.4	17.4	25.4	8	28	23.2	32.9	9.7	32.5	28.1	36.9	8.8
충청북도	18.9	16	21.9	5.9	27.4	21.6	31.6	10.0	30.2	28.6	31.6	3.0
충청남도	23.8	18.7	28.8	10.1	27.7	22.3	30.6	8.3	34.2	29.9	38.3	8.4
전라북도	22.5	20.4	24.6	4.2	29	22.3	33.3	11.0	28.3	23.4	33.3	9.9
전라남도	26.4	24.1	28.5	4.4	31.8	24.7	36.7	12.0	28.9	26.1	31.6	5.5
경상북도	17.6	14.2	21.1	6.9	25.7	21.9	28.1	6.2	32.4	31.2	33.8	2.6
경상남도	18.6	13.8	23.5	9.7	29.9	24.0	34.3	10.3	33.7	28.2	39.0	10.8
제주특별자치도	17.9	14.7	21.1	6.4	34.2	31.0	37.3	6.3	28.4	24.0	32.6	8.6

주: 1)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의 합임. 2)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18〉 강력범죄 피해자

(단위: 건,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5,512	21,751	3,057	85.3	26,998	23,494	3,129	87.0	26,264	22,601	3,152	86.1
서울특별시	6,669	5,844	688	87.6	7,449	6,595	733	88.5	6,930	6,061	724	87.5
부산광역시	1,607	1,363	214	84.8	1,919	1,677	238	87.4	1,709	1,454	212	85.1
대구광역시	1,017	853	143	83.9	991	856	129	86.4	1,116	969	131	86.8
인천광역시	1,800	1,579	205	87.7	1,868	1,667	192	89.2	1,721	1,512	190	87.9
광주광역시	793	662	104	83.5	799	710	87	88.9	792	696	73	87.9
대전광역시	726	608	93	83.7	794	701	82	88.3	847	734	100	86.7
울산광역시	518	431	65	83.2	479	418	55	87.3	494	410	61	83.0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도	5,820	4,994	651	85.8	5,904	5,117	683	86.7	5,760	4,912	735	85.3
강원도	698	590	89	84.5	731	616	100	84.3	785	676	89	86.1
충청북도	728	610	99	83.8	808	682	108	84.4	778	653	106	83.9
충청남도	1,046	857	156	81.9	1,039	874	142	84.1	1,098	911	149	83.0
전라북도	699	582	97	83.3	701	596	92	85.0	784	676	101	86.2
전라남도	802	672	93	83.8	819	703	114	85.8	855	726	107	84.9
경상북도	937	774	129	82.6	1,003	859	140	85.6	1,017	840	128	82.6
경상남도	1,166	955	162	81.9	1,252	1,072	160	85.6	1,239	1,028	182	83.0
제주특별자치도	486	377	69	77.6	442	351	74	79.4	428	343	64	80.1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6,154	22,712	3,068	86.8	24,038	20,993	2,813	87.3	21,760	19,284	2,476	88.6
서울특별시	6,915	6,103	709	88.3	6,204	5,498	642	88.6	5,155	4,616	539	89.5
부산광역시	1,691	1,448	235	85.6	1,574	1,383	180	87.9	1,448	1,296	152	89.5
대구광역시	1,088	950	120	87.3	907	794	108	87.5	901	807	94	89.6
인천광역시	1,739	1,508	201	86.7	1,505	1,330	167	88.4	1,394	1,216	178	87.2
광주광역시	745	663	78	89.0	630	559	65	88.7	574	516	58	89.9
대전광역시	795	707	82	88.9	725	637	83	87.9	699	609	90	87.1
울산광역시	506	440	57	87.0	499	439	57	88.0	459	408	51	88.9
세종특별자치시	67	60	6	89.6	92	82	9	89.1	82	73	9	89.0
경기도	5,713	4,957	676	86.8	5,458	4,752	646	87.1	4,948	4,405	543	89.0
강원도	768	674	87	87.8	670	570	92	85.1	606	541	65	89.3
충청북도	755	623	119	82.5	717	625	86	87.2	594	532	62	89.6
충청남도	955	816	126	85.4	926	776	140	83.8	889	777	112	87.4
전라북도	839	703	115	83.8	727	620	99	85.3	667	571	96	85.6
전라남도	842	712	121	84.6	782	689	87	88.1	807	706	101	87.5
경상북도	1,069	922	130	86.2	965	818	132	84.8	987	877	110	88.9
경상남도	1,199	1,027	146	85.7	1,215	1,036	167	85.3	1,114	951	163	85.4
제주특별자치도	468	399	60	85.3	442	385	53	87.1	436	383	53	87.8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부표 2-19〉 취업여부별 가사시간

(단위: 시간:분)

시·도	2009년				2014년				2019년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국	2:34	0:36	4:41	1:04	2:30	0:41	4:33	1:08	2:27	0:50	4:13	1:20
서울특별시	2:17	0:28	4:32	1:03	2:15	0:38	4:27	1:00	2:06	0:52	4:12	1:13
부산광역시	2:26	0:35	4:32	1:04	2:22	0:38	4:20	1:12	2:18	0:49	3:40	1:22
대구광역시	2:25	0:34	4:58	0:45	2:31	0:38	4:22	1:17	2:17	0:42	4:03	1:23
인천광역시	2:24	0:35	4:57	1:18	2:25	0:42	4:35	1:05	2:28	0:47	4:29	1:12
광주광역시	2:31	0:36	4:32	1:15	2:29	0:45	4:18	1:11	2:23	0:43	3:48	1:15
대전광역시	2:29	0:36	4:38	1:14	2:40	0:44	4:25	1:22	2:26	0:47	4:05	1:29
울산광역시	2:29	0:36	5:11	1:01	2:48	0:37	5:12	1:37	2:38	0:43	4:31	1:12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2:36	1:03	5:09	1:28
경기도	2:39	0:37	4:45	1:05	2:20	0:39	4:47	1:07	2:32	0:50	4:30	1:27
강원도	2:25	0:43	4:07	1:13	2:40	0:46	4:24	1:19	2:31	0:55	4:05	1:21
충청북도	2:43	0:42	4:29	0:54	2:40	0:45	4:15	1:03	2:39	0:48	3:48	1:18
충청남도	3:01	0:39	4:23	0:54	3:03	0:45	4:46	1:02	2:37	0:50	4:07	1:20
전라북도	2:54	0:47	4:48	0:55	2:36	0:45	4:31	0:57	2:37	0:56	4:00	1:31
전라남도	2:41	0:45	4:13	1:27	2:52	0:51	4:11	1:16	2:45	0:53	3:45	1:07
경상북도	2:42	0:37	4:51	1:09	2:44	0:45	4:23	1:13	2:37	0:46	4:10	1:17
경상남도	2:51	0:36	5:14	0:55	2:45	0:41	4:46	1:12	2:39	0:52	4:31	1:17
제주특별자치도	2:59	0:48	4:52	1:12	2:41	0:49	4:33	1:24	2:26	0:54	4:00	2:12

주: 가사 시간 = 가정관리 시간 + 가족 보살피기 시간, 20세 이상.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20〉 가족관계만족도

(단위: %)

시·도	성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국	여성	54.7	41	4.4	54.4	42.6	3.0	56.1	40.8	3.1	63.5	33.2	3.3
	남성	58.3	37.9	3.8	59.0	38.3	2.7	61.5	35.5	3	65.5	31.6	2.8
서울특별시	여성	52.2	42.4	5.4	51.3	45.3	3.4	52.4	42.9	4.7	64.5	32.6	3.0
	남성	57.3	38.3	4.4	56.1	41.4	2.6	60.6	35.8	3.6	65.3	31.7	3.0
부산광역시	여성	55.5	41.3	3.1	49.4	46.4	4.1	59.3	37.4	3.2	60.7	35.9	3.4
	남성	58.3	37.6	4	55.8	40.0	4.1	63.2	34.1	2.6	58.4	38.2	3.4
대구광역시	여성	52.1	43.9	4	46.3	49.5	4.2	48.2	50.5	1.2	57.6	39.1	3.3
	남성	56.1	40.3	3.6	47.0	49.0	4.1	55.2	42	2.9	61.6	36.1	2.3
인천광역시	여성	54.5	41.3	4.2	51.9	43.8	4.3	54.4	42.1	3.5	60.6	35.6	3.8
	남성	55.4	39.7	4.9	59.9	37.5	2.6	60.1	36.6	3.3	63.8	33.4	2.8
광주광역시	여성	61.4	34.7	3.9	54.4	43.1	2.6	60.2	37	2.8	61.9	35.5	2.7
	남성	62.6	35.1	2.3	63.2	34.0	2.9	62.1	34.9	3	65.1	32.5	2.3
대전광역시	여성	54.1	41.1	4.8	53.7	44.1	2.3	53.6	41	5.5	65.5	29.9	4.5
	남성	57.3	39.4	3.3	62.9	35.4	1.8	60.3	35.8	4	64.0	33.5	2.5
울산광역시	여성	51.9	43.7	4.5	56.6	41.5	1.9	55.7	40.6	3.6	59.7	36.7	3.5
	남성	57.6	39.4	3	58.6	39.6	1.9	57.6	39.3	3.1	63.2	33.7	3.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66.4	31	2.7	63.1	34.7	2.1	59.8	38.1	2	71.3	25.2	3.5
	남성	68	27.9	4.1	68.6	30.4	1.1	71.2	26.8	2	70.2	27.9	1.9
경기도	여성	54	41.3	4.7	54.5	42.3	3.1	56.1	41.3	2.6	64.6	31.7	3.8
	남성	58.3	37.9	3.8	58.5	38.6	2.9	61.7	35.2	3.1	66.4	30.2	3.3
강원도	여성	58.3	38	3.7	59.9	37.5	2.6	60.2	36.6	3.2	67.7	29.6	2.7
	남성	62.7	33.7	3.7	67.4	30.8	1.8	66.4	31.4	2.3	70.5	27.8	1.7
충청북도	여성	58.6	37.1	4.3	59.0	39.3	1.7	57.7	39.1	3.2	68.3	29.0	2.7
	남성	63.4	33.3	3.3	62.4	34.5	3.1	61.2	35.9	3	69.1	29.3	1.6
충청남도	여성	60.1	36.3	3.6	60.4	37.2	2.4	61.4	36.2	2.4	63.7	33.7	2.7
	남성	62.8	34	3.2	65.4	32.1	2.4	64	33.9	2.1	69.5	28.4	2.1
전라북도	여성	59.8	37.3	2.9	55.0	43.2	1.8	56.6	40.8	2.6	64.0	33.8	2.2
	남성	59.9	37.9	2.2	60.1	37.6	2.2	57.9	39.5	2.6	68.9	28.8	2.3
전라남도	여성	57.8	38.9	3.3	64.5	33.9	1.6	63.3	35	1.6	66.1	31.3	2.6
	남성	57.4	40.3	2.4	66.9	30.3	2.9	66.6	31.5	1.9	67.8	30.0	2.2
경상북도	여성	52.2	43.2	4.5	60.7	37.9	1.4	59.8	37.8	2.4	62.9	33.5	3.6
	남성	57.3	38.5	4.3	59.8	38.4	1.8	58.9	38.1	3.1	66.9	29.9	3.2
경상남도	여성	53.5	42.8	3.7	55.0	42.3	2.7	56.4	41	2.6	61.2	36.0	2.8
	남성	56.4	40.1	3.5	59.9	38.1	2.0	64.1	33.7	2.3	64.6	32.9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57.3	38.5	4.2	60.3	37.5	2.2	61.2	35.7	3	61.1	34.7	4.1
	남성	57	38.8	4.2	62.0	36.2	1.8	66.7	30.9	2.4	64.9	32.5	2.6

주: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2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 명당)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전국	19,112	20,524	107.4	16,940	18,022	106.4	13,673	14,491	106.0
서울특별시	2,280	2,438	106.9	2,006	2,160	107.7	1,541	1,595	103.5
부산광역시	954	1,060	111.1	879	960	109.2	736	742	100.8
대구광역시	826	913	110.5	750	811	108.1	591	600	101.5
인천광역시	1,139	1,083	95.1	945	1,032	109.2	800	812	101.5
광주광역시	665	691	103.9	545	563	103.3	450	444	98.7
대전광역시	610	653	107	561	546	97.3	361	435	120.5
울산광역시	491	502	102.2	393	421	107.1	316	332	105.1
세종특별자치시	156	166	106.4	157	160	101.9	149	143	96.0
경기도	4,923	5,327	108.2	4,373	4,809	110.0	3,662	3,938	107.5
강원도	566	603	106.5	519	508	97.9	451	406	90.0
충청북도	746	809	108.4	728	705	96.8	538	619	115.1
충청남도	1,054	1,061	100.7	956	912	95.4	731	741	101.4
전라북도	909	933	102.6	753	779	103.5	583	657	112.7
전라남도	955	1,037	108.6	879	858	97.6	723	764	105.7
경상북도	1,031	1,212	117.6	944	1,077	114.1	751	842	112.1
경상남도	1,385	1,526	110.2	1,202	1,293	107.6	980	1,077	109.9
제주특별자치도	422	510	120.9	350	428	122.3	310	344	111.0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전국	12,627	13,027	103.2	10,919	11,645	106.6	10,282	10,954	106.5
서울특별시	1,425	1,510	106.0	1,271	1,287	101.3	1,131	1,263	111.7
부산광역시	615	645	104.9	496	594	119.8	519	500	96.3
대구광역시	508	581	114.4	460	447	97.2	416	446	107.2
인천광역시	714	772	108.1	626	692	110.5	624	561	89.9
광주광역시	430	429	99.8	353	380	107.6	373	365	97.9
대전광역시	327	354	108.3	283	340	120.1	322	306	95.0
울산광역시	275	316	114.9	235	206	87.7	202	256	126.7
세종특별자치시	120	134	111.7	106	109	102.8	124	137	110.5
경기도	3,478	3,506	100.8	3,032	3,225	106.4	2,845	3,095	108.8
강원도	405	433	106.9	384	403	104.9	355	386	108.7
충청북도	506	488	96.4	412	471	114.3	418	413	98.8
충청남도	652	699	107.2	579	607	104.8	521	561	107.7
전라북도	506	545	107.7	485	524	108.0	439	471	107.3
전라남도	758	719	94.9	614	638	103.9	527	536	101.7
경상북도	720	717	99.6	609	671	110.2	594	661	111.3
경상남도	896	900	100.4	751	793	105.6	646	742	114.9
제주특별자치도	292	279	95.5	223	258	115.7	226	255	112.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2-22〉 육아휴직자

(단위: 명,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전국	89,795	82,179	7,616	8.5	90,145	78,102	12,043	13.4	99,205	81,543	17,662	17.8
서울특별시	41,710	38,143	3,567	8.6	40,456	35,524	4,932	12.2	43,745	36,086	7,659	17.5
부산광역시	3,841	3,613	228	5.9	3,712	3,376	336	9.1	4,243	3,645	598	14.1
대구광역시	2,320	2,207	113	4.9	2,431	2,247	184	7.6	2,662	2,378	284	10.7
인천광역시	2,515	2,332	183	7.3	2,564	2,336	228	8.9	2,954	2,543	411	13.9
광주광역시	1,636	1,559	77	4.7	1,652	1,537	115	7.0	1,876	1,624	252	13.4
대전광역시	3,197	2,938	259	8.1	3,167	2,821	346	10.9	3,363	2,825	538	16.0
울산광역시	1,399	1,249	150	10.7	1,474	1,210	264	17.9	1,694	1,214	480	28.3
세종특별자치시	249	230	19	7.6	295	266	29	9.8	422	342	80	19.0
경기도	17,176	15,734	1,442	8.4	17,137	15,084	2,053	12.0	18,838	15,669	3,169	16.8
강원도	1,653	1,485	168	10.2	1,815	1,576	239	13.2	2,185	1,780	405	18.5
충청북도	1,610	1,505	105	6.5	1,610	1,425	185	11.5	1,984	1,641	343	17.3
충청남도	1,873	1,676	197	10.5	2,012	1,731	281	14.0	2,451	1,941	510	20.8
전라북도	1,668	1,531	137	8.2	1,716	1,537	179	10.4	1,927	1,689	238	12.4
전라남도	1,483	1,363	120	8.1	1,547	1,322	225	14.5	1,957	1,527	430	22.0
경상북도	2,493	2,281	212	8.5	2,463	2,101	362	14.7	2,899	2,328	571	19.7
경상남도	3,972	3,415	557	14.0	5,185	3,196	1,989	38.4	4,829	3,351	1,478	30.6
제주특별자치도	1,000	918	82	8.2	909	813	96	10.6	1,176	960	216	18.4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전국	105,181	82,886	22,295	21.2	112,045	84,622	27,423	24.5	110,555	81,516	29,039	26.3
서울특별시	44,229	35,366	8,863	20.0	44,860	34,322	10,538	23.5	44,186	32,656	11,530	26.1
부산광역시	4,523	3,728	795	17.6	5,039	3,972	1,067	21.2	4,983	3,835	1,148	23.0
대구광역시	2,803	2,438	365	13.0	3,018	2,523	495	16.4	2,902	2,381	521	18.0
인천광역시	3,498	2,790	708	20.2	3,982	2,964	1,018	25.6	3,806	2,791	1,015	26.7
광주광역시	2,071	1,732	339	16.4	2,116	1,708	408	19.3	2,186	1,779	407	18.6
대전광역시	3,542	2,804	738	20.8	3,707	2,826	881	23.8	3,504	2,637	867	24.7
울산광역시	1,972	1,311	661	33.5	2,220	1,380	840	37.8	2,168	1,347	821	37.9
세종특별자치시	531	420	111	20.9	661	519	142	21.5	715	532	183	25.6
경기도	20,636	16,386	4,250	20.6	22,721	17,296	5,425	23.9	22,478	16,620	5,858	26.1
강원도	2,336	1,826	510	21.8	2,606	1,998	608	23.3	2,544	1,918	626	24.6
충청북도	2,157	1,693	464	21.5	2,378	1,812	566	23.8	2,551	1,880	671	26.3
충청남도	2,804	2,045	759	27.1	3,297	2,280	1,017	30.8	3,414	2,303	1,111	32.5
전라북도	2,091	1,729	362	17.3	2,313	1,799	514	22.2	2,347	1,826	521	22.2
전라남도	2,274	1,712	562	24.7	2,542	1,868	674	26.5	2,513	1,815	698	27.8
경상북도	3,196	2,473	723	22.6	3,609	2,574	1,035	28.7	3,650	2,554	1,096	30.0
경상남도	5,235	3,457	1,778	34.0	5,566	3,761	1,805	32.4	5,126	3,547	1,579	30.8
제주특별자치도	1,283	976	307	23.9	1,410	1,020	390	27.7	1,482	1,095	387	26.1

주: 계는 분류불능이 포함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부표 2-23〉 여가 시간

(단위: 시간:분)

시·도	2009년						2014년						2019년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전국	3:52	3:23	4:11	6:44	6:03	8:23	3:36	3:15	3:51	6:13	5:38	7:33	3:03	2:39	3:20	5:07	4:27	6:31
서울특별시	3:37	3:16	3:50	6:45	6:02	8:32	3:28	3:09	3:43	6:05	5:29	7:20	3:02	2:44	3:16	5:13	4:31	6:42
부산광역시	3:41	3:11	4:04	6:41	5:57	8:08	3:52	3:25	4:11	6:15	5:37	7:39	3:02	2:43	3:16	5:23	4:41	6:44
대구광역시	3:57	3:27	4:20	7:01	6:04	8:56	3:45	3:19	4:02	6:16	5:41	7:40	3:12	2:51	3:26	5:39	4:59	6:56
인천광역시	3:35	3:01	3:56	6:20	5:48	7:49	3:35	3:18	3:48	6:38	6:03	8:02	3:05	2:43	3:22	5:10	4:18	6:48
광주광역시	4:21	3:54	4:41	7:08	6:22	8:53	3:43	3:17	4:04	6:00	5:30	6:57	2:55	2:26	3:17	5:08	4:28	6:35
대전광역시	4:10	3:41	4:31	6:34	5:57	7:50	3:34	3:12	3:50	5:38	5:17	6:26	2:38	2:18	2:52	4:33	3:52	5:52
울산광역시	3:52	3:20	4:10	6:17	5:45	7:56	3:33	3:03	3:49	5:32	5:10	6:48	3:06	2:35	3:25	4:48	4:22	5:48
세종특별자치도	-	-	-	-	-	-	-	-	-	-	-	-	3:06	2:45	3:18	4:20	3:41	6:20
경기도	3:50	3:28	4:04	6:45	6:05	8:35	3:26	3:13	3:36	6:09	5:35	7:32	2:56	2:32	3:13	4:54	4:15	6:21
강원도	4:17	3:30	4:52	6:56	6:28	7:48	3:55	3:31	4:13	6:28	5:46	7:53	3:09	2:50	3:25	5:20	4:29	6:50
충청북도	3:55	3:14	4:23	6:42	6:07	7:58	3:25	3:08	3:38	6:20	5:55	7:13	2:54	2:20	3:19	5:11	4:40	6:18
충청남도	4:07	3:38	4:27	6:54	6:08	8:57	3:36	3:00	4:03	6:14	5:46	7:06	3:03	2:33	3:23	4:49	4:04	6:15
전라북도	4:08	3:28	4:37	6:38	6:04	7:56	3:55	3:28	4:16	6:13	5:32	7:40	3:03	2:33	3:28	5:09	4:32	6:15
전라남도	4:12	3:25	4:54	7:25	6:38	8:51	3:48	3:19	4:10	6:23	5:36	8:07	3:30	3:07	3:47	5:19	4:36	6:45
경상북도	4:02	3:32	4:24	6:23	5:45	7:48	3:46	3:23	4:02	6:35	6:02	7:53	3:11	2:38	3:32	4:57	4:27	6:03
경상남도	3:52	3:17	4:15	6:36	5:53	8:29	3:48	3:30	4:00	6:32	5:50	8:27	3:12	2:38	3:36	5:18	4:34	6:47
제주특별자치도	3:57	3:17	4:33	6:53	5:55	8:49	3:42	3:15	4:07	6:32	5:47	7:50	3:21	2:52	3:45	5:56	5:26	6:46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성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24〉 여가활용 만족도

(단위: %)

시·도	성별	2015			2017			2019			2021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국	여성	24.8	49.0	26.1	26.9	45.8	27.3	28.2	46.9	24.8	26.1	49.1	24.8
	남성	27.1	48.9	24.0	27.6	47.4	25.1	29.4	47.0	23.6	27.9	49.8	22.3
서울특별시	여성	27.2	47.2	25.6	28.9	44.0	27.2	29.1	47.1	23.9	29.2	47.1	23.6
	남성	30.6	46.3	23.1	30.2	44.6	25.1	29.5	48.5	22.0	28.6	50.8	20.6
부산광역시	여성	23.3	51.3	25.3	24.6	47.7	27.7	23.3	44.5	32.2	23.9	49.2	26.8
	남성	21.9	52.8	25.4	23.0	50.3	26.7	25.9	44.4	29.7	22.8	51.0	26.2
대구광역시	여성	22.9	52.5	24.6	21.3	45.0	33.7	24.6	48.3	27.2	22.2	55.7	22.1
	남성	26.6	49.6	23.8	21.9	46.7	31.4	25.3	46.6	28.2	24.3	54.5	21.2
인천광역시	여성	24.5	47.1	28.4	26.0	46.9	27.2	31.0	44.8	24.1	25.1	52.1	22.7
	남성	21.8	50.5	27.7	25.5	48.8	25.7	31.5	44.8	23.7	28.8	50.8	20.5
광주광역시	여성	21.8	50.5	27.7	27.4	46.7	25.9	29.9	40.8	29.4	22.4	50.8	26.9
	남성	26.3	47.2	26.5	28.4	49.1	22.4	31.7	47.5	20.7	28.5	48.7	22.8
대전광역시	여성	24.9	46.9	28.2	30.2	41.1	28.7	28.2	44.7	27.2	29.6	46.5	24.0
	남성	26.7	49.7	23.5	28.7	44.4	26.9	29.7	45.8	24.5	32.8	44.1	23.0
울산광역시	여성	18.8	56.2	25.0	25.6	47.7	26.8	33.1	44.6	22.4	30.5	48.7	20.8
	남성	22.2	57.4	20.4	24.9	52.5	22.5	31.0	46.5	22.4	31.9	49.4	18.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32.7	46.0	21.3	31.2	43.4	25.4	37.2	42.0	20.8	33.1	40.7	26.2
	남성	33.5	44.9	21.6	34.8	44.7	20.6	41.4	42.0	16.7	30.3	47.4	22.3
경기도	여성	26.6	48.6	24.8	28.2	43.1	28.8	29.5	46.2	24.3	27.3	45.1	27.6
	남성	27.9	48.3	23.7	27.2	46.3	26.5	29.9	45.8	24.3	28.2	46.9	24.8
강원도	여성	24.4	49.5	26.1	26.7	49.4	23.9	28.0	46.8	25.2	26.9	50.4	22.7
	남성	28.7	49.5	21.7	31.2	50.6	18.1	33.2	46.8	20.1	28.8	52.5	18.7
충청북도	여성	25.2	47.4	27.5	24.9	44.9	30.3	28.2	47.5	24.4	22.3	50.3	27.4
	남성	30.5	45.6	23.9	28.9	44.5	26.6	25.6	48.9	25.5	25.9	52.6	21.5
충청남도	여성	23.8	46.2	30.0	22.4	52.2	25.5	27.4	49.0	23.7	21.4	55.5	23.1
	남성	29.6	44.9	25.5	25.8	51.3	22.8	29.0	47.4	23.5	28.9	51.5	19.6
전라북도	여성	19.3	51.5	29.1	21.8	50.7	27.4	21.9	52.2	25.8	23.5	47.5	29.0
	남성	20.9	51.0	28.1	25.9	49.7	24.5	29.3	47.9	22.8	27.5	48.1	24.4
전라남도	여성	24.2	47.3	28.5	26.0	45.3	28.6	26.0	50.4	23.5	26.5	55.0	18.5
	남성	28.3	47.9	23.8	30.4	45.6	24.0	31.4	48.0	20.7	31.9	50.0	18.1
경상북도	여성	18.7	52.0	29.3	25.5	49.5	24.9	27.1	49.4	23.5	21.3	53.7	25.0
	남성	22.7	51.7	25.6	28.3	49.1	22.6	29.0	49.4	21.6	24.9	51.7	23.4
경상남도	여성	26.2	49.7	24.1	29.7	48.7	21.6	28.9	49.6	21.5	25.5	53.1	21.3
	남성	27.7	51.4	20.9	28.3	49.5	22.3	28.9	49.9	21.2	26.5	52.4	21.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26.2	51.3	22.5	27.5	53.9	18.6	27.5	48.5	24.0	26.8	50.9	22.4
	남성	31.3	47.5	21.2	30.6	51.5	17.9	30.7	41.4	27.8	31.5	49.6	18.9

주: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25〉 인터넷 이용률

(단위: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88.3	85.6	91.0	90.3	87.7	92.7	91.5	89.1	93.9
서울특별시	87.9	85.5	90.4	90.5	88.5	92.6	91.4	89.6	93.3
부산광역시	92.7	90.7	94.8	93.3	91.9	94.8	92.8	90.9	94.9
대구광역시	91.7	89.7	93.7	93.6	91.9	95.3	94.9	94.0	95.8
인천광역시	88.1	85.9	90.3	89.0	86.5	91.5	91.5	89.1	93.9
광주광역시	91.4	89.3	93.5	93.9	91.8	96.2	94.5	92.6	96.3
대전광역시	90.6	88.2	93.1	91.8	90.0	93.7	94.1	92.8	95.5
울산광역시	96.6	95.6	97.5	97.0	96.5	97.4	95.2	93.9	96.5
세종특별자치시	91.0	89.8	92.3	92.4	91.4	93.5	95.5	94.9	96.2
경기도	88.8	86.2	91.3	90.3	87.9	92.6	91.7	89.1	94.2
강원도	74.6	70.8	78.5	83.1	78.5	87.6	83.7	79.6	87.7
충청북도	87.1	84.4	89.7	87.8	85.5	90.0	91.1	89.4	92.8
충청남도	84.7	80.7	88.6	89.0	86.2	91.7	92.2	89.9	94.5
전라북도	85.6	82.2	89.1	89.4	87.4	91.5	90.2	87.9	92.4
전라남도	81.2	76.8	85.7	83.6	76.3	90.8	85.3	79.5	91.1
경상북도	86.6	82.8	90.4	89.0	85.3	92.6	92.3	89.3	95.2
경상남도	90.8	87.7	93.7	91.0	88.1	93.8	90.7	87.2	94.1
제주특별자치도	86.3	82.5	90.2	86.7	82.7	90.5	88.9	85.6	92.2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91.8	89.6	93.9	91.9	89.7	94.0	93.0	90.9	95.0
서울특별시	92.2	90.3	94.2	92.3	91.0	93.7	93.2	91.6	94.9
부산광역시	92.8	89.6	96.3	93.0	91.0	95.0	96.1	95.0	97.3
대구광역시	98.2	97.9	98.6	96.5	95.1	98.0	93.5	92.1	95.0
인천광역시	93.2	91.1	95.2	91.4	88.7	94.1	93.9	91.5	96.2
광주광역시	91.5	89.5	93.5	92.0	89.6	94.6	95.2	94.2	96.3
대전광역시	94.7	93.6	95.7	94.1	93.4	94.8	92.1	89.8	94.3
울산광역시	93.7	91.6	95.6	95.9	94.6	97.1	97.9	96.9	98.9
세종특별자치시	97.9	97.1	98.6	99.1	99.0	99.3	89.4	87.5	91.2
경기도	91.1	89.3	92.9	92.3	90.3	94.3	94.3	92.5	96.0
강원도	84.9	80.9	88.9	80.6	77.3	83.9	82.0	78.0	86.0
충청북도	95.6	94.6	96.7	95.0	94.0	96.0	91.5	89.5	93.4
충청남도	95.8	94.5	97.1	92.3	89.7	94.8	91.1	88.9	93.2
전라북도	85.1	81.8	88.4	87.4	83.7	91.1	89.7	86.6	92.9
전라남도	84.3	79.9	88.7	86.0	81.9	90.1	86.6	82.0	91.2
경상북도	94.4	92.3	96.5	93.3	91.2	95.3	91.4	89.0	93.7
경상남도	88.7	85.1	92.1	89.5	85.5	93.3	94.9	92.7	96.9
제주특별자치도	88.8	86.4	91.1	89.1	86.8	91.4	87.8	83.3	92.2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내부자료.

〈부표 2-26〉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성비

(단위: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53,577	112,124	32.3	59,514	108,471	35.4	64,097	104,514	38.0
서울특별시	8,571	12,683	40.3	9,430	12,774	42.5	9,415	12,533	42.9
부산광역시	3,418	6,095	35.9	3,697	6,152	37.5	4,069	6,174	39.7
대구광역시	1,878	3,913	32.4	1,977	3,537	35.9	2,263	3,412	39.9
인천광역시	2,994	5,622	34.7	3,553	5,379	39.8	3,731	5,114	42.2
광주광역시	1,642	3,220	33.8	1,833	3,050	37.5	1,937	2,944	39.7
대전광역시	2,040	3,105	39.7	2,143	3,244	39.8	2,378	3,424	41.0
울산광역시	1,444	3,120	31.6	1,704	2,961	36.5	1,751	2,743	39.0
세종특별자치시	405	761	34.7	521	842	38.2	667	971	40.7
경기도	8,912	17,394	33.9	9,726	17,418	35.8	10,390	16,943	38.0
강원도	2,925	7,548	27.9	3,270	7,369	30.7	3,478	6,436	35.1
충청북도	2,923	5,754	33.7	2,913	5,204	35.9	3,287	5,310	38.2
충청남도	2,854	7,295	28.1	3,418	7,618	31.0	3,799	6,993	35.2
전라북도	2,408	6,789	26.2	2,831	6,287	31.0	3,090	5,721	35.1
전라남도	3,304	10,047	24.7	4,002	8,958	30.9	4,765	9,020	34.6
경상북도	3,094	8,712	26.2	3,537	8,049	30.5	3,711	7,396	33.4
경상남도	3,963	8,684	31.3	4,069	8,244	33.0	4,441	7,984	35.7
제주특별자치도	802	1,382	36.7	890	1,385	39.1	925	1,396	39.9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71,971	110,829	41.4	77,290	116,541	41.8	81,245	119,998	42.5
서울특별시	10,302	13,224	45.5	10,834	13,487	45.3	10,677	13,209	46.0
부산광역시	4,410	6,357	43.9	4,564	6,687	43.4	4,782	7,122	43.5
대구광역시	2,465	3,406	45.9	2,671	3,721	45.4	2,840	3,831	45.6
인천광역시	4,089	5,319	43.3	4,322	5,545	44.1	4,423	5,520	44.9
광주광역시	2,025	3,227	41.7	2,048	3,157	42.1	2,187	3,345	41.7
대전광역시	2,349	3,185	44.2	2,469	3,346	44.3	2,619	3,386	45.9
울산광역시	1,964	3,102	41.2	2,166	3,324	42.0	2,260	3,662	41.5
세종특별자치시	716	1,012	45.8	1,019	1,426	45.8	1,087	1,511	45.6
경기도	12,334	18,759	41.8	13,268	20,174	42.2	14,226	20,730	43.0
강원도	3,832	7,073	36.6	3,832	7,053	37.1	3,802	7,157	36.9
충청북도	3,612	5,382	43.2	4,044	5,842	43.7	4,256	5,860	44.6
충청남도	4,652	7,705	39.7	5,062	7,852	40.7	5,487	8,164	42.1
전라북도	3,381	5,994	39.2	3,587	6,178	39.9	3,937	6,716	40.0
전라남도	5,369	9,067	39.4	5,943	9,599	40.4	6,383	10,204	41.0
경상북도	4,419	8,133	37.6	4,701	8,420	38.4	5,230	8,739	40.4
경상남도	5,110	8,516	39.1	5,765	9,317	39.8	6,051	9,447	41.0
제주특별자치도	942	1,368	44.3	995	1,413	45.3	998	1,395	45.8

자료: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부표 2-27〉 스트레스인지율

(단위: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27.9	28.8	27.0	25.4	25.9	25.3	25.5	25.6	25.0
서울특별시	29.1	28.9	29.3	26.8	27.7	25.8	26.4	26.8	26.0
부산광역시	25.2	26.4	24.0	24.3	24.6	24.0	22.9	23.2	22.6
대구광역시	24.9	24.8	25.0	23.9	24.1	23.7	21.9	22.8	21.0
인천광역시	29.5	28.5	30.5	27.6	28.3	26.9	30.4	30.3	30.5
광주광역시	27.7	27.1	28.4	27.5	28.2	26.8	25.6	26.6	24.5
대전광역시	30.6	30.8	30.3	24.3	22.6	26.1	26.5	27.5	25.5
울산광역시	23.8	23.9	23.7	23.3	23.9	22.7	23.8	23.6	24.0
세종특별자치시	25.3	25.6	25.1	28.9	30.4	27.3	30.9	28.2	33.6
경기도	29.5	29.0	30.0	29.1	28.6	29.7	27.6	26.6	28.7
강원도	24.8	25.0	24.6	26.6	27.2	26.0	25.0	26.2	23.9
충청북도	26.9	28.0	25.8	27.7	29.1	26.4	25.5	25.9	25.0
충청남도	27.6	28.0	27.2	29.0	29.3	28.6	26.0	26.2	25.8
전라북도	23.1	25.2	21.0	21.9	22.7	21.2	26.4	27.2	25.6
전라남도	24.1	25.6	22.6	23.4	23.9	22.9	23.3	25.0	21.7
경상북도	23.6	24.4	22.7	22.6	22.2	22.9	22.6	22.9	22.2
경상남도	24.2	24.5	23.9	20.9	21.5	20.4	23.4	24.4	22.4
제주특별자치도	29.0	30.3	27.7	23.4	25.3	21.5	25.4	25.6	25.2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24.3	24.9	23.6	24.3	24.8	23.8	24.0	25.1	22.8
서울특별시	25.8	27.6	23.9	27.8	29.2	26.3	26.3	27.9	24.5
부산광역시	21.9	22.4	21.5	23.1	23.9	22.3	23.2	24.3	22.1
대구광역시	23.4	24.6	22.2	21.6	21.9	21.2	22.1	23.1	21.1
인천광역시	28.1	28.3	27.8	30.7	30.9	30.4	27.5	28.9	26.2
광주광역시	26.7	27	26.4	25.8	27.0	24.6	25.8	26.7	24.8
대전광역시	23.8	23.3	24.2	22.3	22.2	22.4	22.2	23.2	21.3
울산광역시	22.3	23.2	21.4	23.8	25.0	22.5	23.3	26.4	20.3
세종특별자치시	28.4	27.5	29.3	24.0	22.1	25.9	24.9	25.0	24.7
경기도	26.5	26.3	26.8	27.5	27.7	27.3	26.5	27.2	25.8
강원도	22.8	25.1	20.4	24.9	25.9	24.0	24.4	24.9	23.9
충청북도	24.3	26	22.7	24.0	25.2	22.8	24.6	24.9	24.2
충청남도	27.6	27.2	28.1	25.2	25.0	25.4	24.9	25.9	24.0
전라북도	23.6	23.8	23.4	24.6	24.6	24.6	23.1	24.6	21.6
전라남도	22.1	23.4	20.9	18.8	20.9	16.8	21.0	22.1	19.9
경상북도	21.8	22.8	20.7	21.6	21.7	21.4	21.4	23.1	19.7
경상남도	21.6	23.2	20.1	23.5	23.8	23.2	22.2	22.7	21.6
제주특별자치도	21.9	22.6	21.2	24.6	25.3	23.9	23.8	25.9	21.7

자료: 질병관리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

2022년 12월 17일 인쇄

2022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029-10